기존 동판기와보다 10배나 두꺼운 동주물기와는
한번 시공으로 영구적인 수명을 300년 이상 연장합니다
대원동주물기와 ☎(02)739-8745/735-2344

# 현대불교

55 세부터의 월급, 국민은행에서 드리겠습니다.
국민은행 개인 연금 신탁
가입문의 : 080 - 023 - 4000

명예회장 : 노대행 / 발행인 겸 편집인 : 김광삼 / 논설고문 : 고은 / 편집국장 : 최정희 / 인쇄인 : 김규석 / 등록번호 : 다-3379 / ⑥ 110-170 서울시 종로구 견지동 110-33 / 대표전화 : 737-8881 / 편집국 : 722-4162 FAX 737-0698 / 광고국 : 737-0692 / 구독신청 : 737-0693
구독료 : 월 4천원 1년 4만원
불기 2539년(서기 1995년) 3월 1일 수요일 (주간)
불교의 생활화 · 현대화 · 세계화

**금주의 법구**

형벌을 통해 범죄를
막으려 하는 것은 옳지 않다.
〈장아함〉

## 법회 안내

각명사 (02)387-3510
신중기도 매월 1~3일(음)
정기법회 매월 15일(음)
지장재일 매월 18일(음)
관음재일 매월 24일(음)
학생법회 매주 일 오전10시
청년법회 매주 일 오후2시

보문사 (02)928-3797
보리회법회 매월 3일
합창단법회 매주 목 오후2시
청년회법회 매주 토 오후6시
중·고생법회 매주 일 오후2시
연화어린이회 일 오전10시

계룡산 자광사 (042)822-9219
신중기도 매월 1일(음)
화엄법회 매월 7일(음)
지장법회 매월 18일(음)
관음법회 매월 24일(음)
성지순례 매월 15일
거사림법회 첫, 셋째 수 오후7시
참아기도 매월 셋째 토 오후7시
학생법회 매주 토 오전10시
어린이법회 매주 일 오전10시

속초 원각사 (0392)33-3895
어린이법회 매주 일 오전10시
고등학생회 매주 토 오후3시
대불학생회 매주 목 오후5시
청년부법회 매주 월 오후7시
달기회 매월 14, 24일 오후6시
금강회 매월 10일 오후7시
거사림회 매월 둘째 수 오후7시
군법회 매주 일 오후1시
가족법회 매주 일 오전11시
금요법회 매주 금 오후7시

광주 금륜회관(062)224-0175
중학생법회 매주 일 오전10시
고등부법회 매주 토 오후5시
청년부법회 매주 일 오후6시
정기법회 매주 토 오후3시

평택 영법사(0333)655-3215
어린이법회 매주 일 오전10시
거사림법회 첫, 셋째 일
합창단법회 매주 목 오전11시

※ 법회안내를 원하시는 사찰·포교당은 전화(722-4162) 팩스(737-0698)로 연락바랍니다.

구독료납부은행지로
3054464

# 교계 면학열풍 불고 있다

## 본말사 주지·포교사·신도대상 연수교육 줄이어

## 교양대학 급증…바른 신행·사회적 기능 밑거름

불교계에 교육열풍이 불고있다.

승·재가를 막론하고 '배워야 한다'는 움직임이 21세기를 대비하듯 거세게 일고있다.

특히 한국불교는 선불교라는 이명아래 '알음알이로 헤아리지 말라'는 선방의 목소리가 높았던 승가에서 더욱 활기차게 움직이고 있다.

조계종은 금년들어 포교원과 교육원을 발원으로 독립시키고 '선교육·후득도'를 승풍운동차원으로 전개하고 있다.

이들 포교원과 교육원은 예산의 대부분을 교육부분에 설정해 놓고 총무원장을 비롯 본말사 주지, 종무원은 물론 포교사, 신도에 이르기까지 전 불교도를 대상으로 하는 교육을 주요사업으로 전개하고 있다.

그 첫 발걸음인 본사주지및 중진스님 연수회가 지난 20일 직지사에서 열렸다. 전 현직 본사주지와 지도급 스님들이 참석한 이번 연수는 지자체와 다변화 사회속에서 불교가 나아가야 할 방향등에 대한 강연이 진행되어 성공리에 마쳤다.

승가의 교육강화는 90년대에 들어서면서 젊은 승려들의 모임인 실천불교승가회,선우도량, 21세기불교연구회를 주축으로 제기되었던 부분이다. 이들 승려들의 모임은 세미나,토론등을 통해 꾸준히 승가의 교육부재에 대해 지적하고 대안을 내놓아 개혁종단이 들어서면서 결실을 맺고있다는 평이다.

공부하자는 열기는 승가보다 재가불자들 사이에 더욱 구체적으로 진행되고 있다.

지역별로 재가자를 위한 불교교양대학이 생기고 불교관련 서적이 매달 20여종 쏟아지는 등 활기가 넘친다.

이러한 움직임은 90년대 중반인 요즈음 절정을 이루어 사찰별로 교양강좌를 개설하는 한편 불교강좌가 전문화 되고 있다.

현재 전국적으로 불교강좌를 개설한 사찰 및 대학은 2백여개로 추산되고 있으며 95학년도 불교교양대학 졸업생 가운데 5백여명이 포교사 자격증을 획득한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재가교육기관 가운데는 환경연구소, 불교사회연구소등의 사회문제, 환경등 현대사회가 안고있는 문제해결을 위해 연구하는 움직임도 전개되고 있다. 또한 지능별, 지역별로 경전을 공부하는 소그룹 공부모임까지 급증하고 있다.

배워야한다는 열풍은 최첨단 기기인 컴퓨터에서도 활기를 띄고있다. 컴퓨터통신자들의 모임인 불교컴퓨터동호회는 3천여명의 회원들이 경전을 비롯 설법란을 통해 불교를 접하고있다. 또한 불교방송이 컴퓨터통신을 통해 제공하는 불교관련 정보가 불자는 물론 일반인에게도 인기를 끌고있으며 교계일부에서 경전의 전산화작업이 진행되고 있어 미래불교의 앞날을 밝게 하고 있다.

이같은 교계의, 배워야 한다는 열기에 대해 부산불교교육원 원장도 임장은 "불교를 너무 모르고 행하는 불자들이 이제는 알고 행하자는 바람으로 기복불교를 탈피하는 성과를 이루었다"고 진단하고 "불교의 백년대계와 세계화를 위해서는 양보다 질을 높이는 것이 앞으로의 관건이다"고 강조했다.

개인의 바른신행은 불교의 사회적기능과 역할을 확대해 가는 지름길이기에 불교계의 교육열풍은 앞으로도 계속될 전망이다. 〈이준엽 기자〉



**다시 초발심** 김천 직지사에서 2박3일간 개최된 조계종 교구본사 주지 및 중진스님 연수회에 참석한 스님들은 초발심으로 돌아가 시종 진지했다.

**출가·열반절기념 강연**

제1회 현대불교 문화강좌개설

현대불교신문은 출가·열반절을 기념해 제1회 문화강좌를 3월10일과 14일에 개최합니다. 출가와 열반의 참뜻을 새기고 우리의 삶을 보다 건실하게 가꿔갈 방향을 제시하게 될 이번 문화강좌에 불자여러분의 많은 동참 바랍니다.

"위대한 출가·깨달음"



● 강사 : 정락스님 (조계종 포교원장)
● 3월10일 오후 6시30분

"눈뜨기 마음열기"



● 강사 : 고은선생 (시인·본지 논설고문)
● 3월14일 오후 6시30분

● 장소 : 한마음불교회관 자하 녹수청산

참가 안내

- 선착순 1백명에 한합니다.
- 참가자 전원에게는 한방차와 기념품, 책방 여시아문 도서구입 10%할인 쿠폰을 드립니다.
- 회비 3천원입니다.
- 문의처:722-4162, 737-8881
  서울시 종로구 견지동 110-33번지 한마음불교회관

현대불교신문사

## 직지사 연수 현장 취재기

# 수료증 받고 "환한 웃음"…총무원장도 싸리비 청소

월주 녹원 고산 보성 도원스님. 법명만 들어도 한국불교계를 움직이는 대표자급 스님들임을 알 수 있는 겨두들이 맨 앞자리에 좌정, 그 뒤로 월서 총관 벽봉 원명 암도스님등 중진스님들이 한치의 흐트러짐 없이 90분 강의 하나하나를 꼼꼼히 메모하며 경청하고 있다.

"초발심때 마음으로 돌아가 교육받았다"

김천 직지사에서 열린 조계종 '본사 주지·중진스님 연수회' 마지막날 경기화에서 총무원장 월주스님이 이렇게 소감을 말하자 대다수 스님들이 동의하는 낯빛이었다.

20일 입재한, 본사 주지 18명을 비롯 33명 스님들은 22일 회향때 전원 빠짐없이 교육원장 스님으로부터 교육필증서를 받았다. 교육필증서를 받아드는 스님들의 얼굴에 졸업장을 받아든 유치원생의 얼굴처럼 환한 웃음이 가득 담긴다.

한지리에 모이기가 하늘의 별따기만큼 어렵다는 말처럼 바쁘기만한 어렵다는 말처럼 바쁘기만한 본사 전·현직 주지들, 교계 중진스님들은 대중방에서 함께 숙식하며 2박3일 연수를 성공적으로 마쳤다.

입재식때 격려법문을 내린 원로회의장 혜암스님과 특강을 실시한 관응스님(직지사 조실) 두분 다 교계의 중진스님들이 함께 모여 교육을 받는다는데 대해 기쁨을 감추지 못했다.

혜암스님은 특유의 직설화법으로 "이왕 하는 김에 맨날 먹을 것"이라며 뒤늦게나마 교육이 실시되는 것에 큰 기대를 표시했다.

연수일정은 빈틈없는 기업체 연수는 저리가라 할만큼 빡빡했지만 한치의 오차도 없이 진행됐다.

새벽 3시 기상과 더불어 3시 30분~4시 예불, 4시부터 한시간 좌선, 5시30분~6시30분 아침공양, 6시30분~7시 도량청소…

총무원장스님부터 전원이 싸리비를 들고 경내 이곳저곳을 청소했다. 칠흑같은 어둠속에서 청소에 몰두해 있는 스님들. 그 옛날 행자때의 생활을 상기한듯 공공하게 비질한다.

오전에 두개의 강의-"한국사회속에서 종교현황" "사회변화와 우리의 자세", 설법 잘하기로 이름높은 정락 포교원장스님은 "큰스님들 앞에서 말씀드리려니 말도 잘 안나오고 떨린다"며 조심스러움을 감추지 못했다. 강의로만 40년 이상을 보낸 김종서교수(서울대 명예교수) 역시 강의중 몇 번이나 "속된 표현 좀 하겠습니다"는 말을 반복해 교계 대표급 스님들에 대한 강의준비에 얼마나 고심을 했는지를 짐작케 했다. 교계 사상 처음이라는 점에서도, 과연 얼마나 참석할까, 중도에 가버리는 스님들이 많지 않을까 하는 참석수에 대해서도 시선이 쏠린 이번 연수의 평가에 관심이 가지 않을 수 없다. 자체평가에서 참여 스님들은 본말토의가 없었다는 것, 초빙강사들이 불교와 연관시키기보다는 일반론적인 얘기를 주로 한 것과 불교미술이나 문화재에 대한 강의가 없었다는데 대해 아쉬움을 표시했지만 전반적으로 함께 모여 수련하는 자체만 해도 큰 환희심이 난다는데 동감을 표시했다.

고산스님(조계종장)의 다음과 같은 말이 스님들의 소감을 대변해 주고 있다. "처음에는 늙은 우리를 데려다 무엇을 가르칠랑가 의문 가지고 왔어요. 그래도 본사 주지고 교계중진들이면 전부 지도자들인데 무얼 가르칠건가…갔아서 졸다나 가지 하는 생각이었어요. 그런데 강의를 하나 하나 들어보니까 부처님 말씀에 위배되는 것 하나 없이 전부 들을 만 하더라구요. 역시 열반하는 그 순간까지 배워야겠다는 생각을 하게 됐어요"

(직지사=이경숙 기자)

이번호 (3월 1일자) 20면 발행



# 열린마당

## 사 설

### 낡은 옷 벗는 계기 삼길

현대사회의 중추적 종교로서의 불교가 되기 위한 움직임이 다양하게 전개되고 있다. 그중에서도 한국불교계의 대표적 종단인 조계종의 포교원에서 매월 설법교안을 발간한다는 소식은 때 늦은 감은 있지만 눈길을 끄는 일임에 틀림없다.

조계종단의 기본방침은 교육·포교·역경으로 알려져 있다. 그러나 공허한 메아리처럼 허공에 맴도는 구호에 불과했던 것이 사실이다. 비구와 대처의 분쟁에서 비롯된 조계종단 내부의 분쟁은 종단 내부의 역량을 결집할 여유를 지니지 못했다. 지난해 일어난 종단의 혁신운동이 하나의 대세를 형성하여 포교원을 독립시키더니 '설법교안'의 발간이라는 가시적 움직임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다.

'설법교안'은 각 사찰에서 포교를 담당하는 실무자를 대상으로 삼을 예정이라 한다. 내용상으로는 법회와 관련된 자료의 제공, 시사정보, 사찰의 사회적 기능과 사회교육기관으로서의 역할 제고, 구체적인 대신상담법의 안내 등에 역점을 두리라는 것이 실무자들의 설명이다.

'설법교안'의 발간은 그동안 조계종의 취약 부분인 몇가지 측면에서 긍정적인 효과를 촉발하리라 예상된다. 첫째는 종단의 종지와 신행체계를 통일화할 수 있을 것이다. 둘째는 체계적인 포교방법과 신도관리체계를 수립할 수 있다고 본다. 셋째는 국내외의 환경변화에 대한 통일적 대응태세를 갖추고, 그에 알맞는 포교방법을 제시할 수 있을 것이다. 넷째는 일선 포교사들의 자질을 향상시킬 수 있을 것이라 본다.

이상에서 열거한 예상 효과 이외에도 보다 많은 부문에서 '설법교안'의 효과가 나타나리라 본다. 이에 포교원의 노고에 아낌없는 박수를 보내면서 몇가지 고언을 덧붙이고자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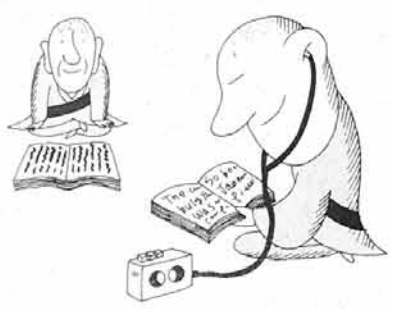
우선 '설법교안'의 내용이 생활과 직결되어야 한다. 새삼스럽게 이런 말을 덧붙이는 것은 불교계의 지도자들이 지니고 있는 교리의 현학성 때문이다. 생활과 무관한 관념적이고 신비적인 이론이 도통한 것처럼 과장되는 점이다. 특히 조계종단이 선종인 관계로 불교 수행의 알파와 오메가가 깨달음으로 치부되는 점도 간과할 수 없다.

수행의 긍정적 측면 이외에도 깨달음의 관념화 내지 신비화가 불교의 사회성을 탈각시키고 있다는 점을 잊어서는 안되리라 본다.

또한 이번의 '설법교안' 발간이 경사스럽고 경하해야 마땅한 일이지만 몇몇 사람의 독선에 의해 운영되는 것은 경계해야 한다고 본다. 이를 방지하고 미래지향적인 '설법교안'을 만들기 위해서도 여론을 수렴하기 위한 공청회가 개최되길 희망한다.

불교계의 일은 되는 일도 안되는 일도 없다는 것이 그동안 불교권에서 일하는 사람들의 자조적인 중평이었다. 그만치 일하기가 수월치 않음을 말하는 것이다. 차제에 포교원의 적극적인 활동을 통해 이러한 의식 자체가 교단에서 사라지길 바란다. 모처럼 기쁜 소식에 조심스러운 고언을 덧붙이는 것은 일불제자들의 애종심에 다름 아니다.

## 현대만평



박 구 원

세계화에 발맞춰 …

# 설법교안

## 이렇게 만든다 — 원혜스님



### 사찰운영·신도교육·정보등 담아
### 생활불교 이끄는 포교 길잡이로

포교원은 법원시대를 맞아 획기적인 종단 포교사업을 추진한다. 그중 하나가 〈월간 설법교안(가칭)〉발행이다.

포교원에서 발행하게 될 설법교안은 일선 사찰에서 사찰 운영과 신도들의 신행지도, 그리고 각종 불사에 바쁜스님들이 한결 법회 준비를 수월하게 하도록 편집된다.

따라서 〈설법교안〉은 전국사찰스님과 포교사를 대상으로 보급된다. 포교원은 이를 위해 이미 지난해 부터 포교전문가들을 주축으로 편집기획팀을 운영하고 있다.

5명으로 구성된 편집팀은 단체별, 연령별, 직능별에 따라 설법안을 미련하고 있다.

이들은 5월경에 첫 선을 보이는 것을 원칙으로 매주 모임을 통해 장단기 방안을 설정하고 있다.

매월 발행하는 설법교안은 80년대 발행되었던 〈월간 설법〉과 현재 설법연구원에서 발행되고있는 〈설법문안〉의 중간 형태를 취할 것이다. 내용은 사찰의 운영, 신행지도, 신도교육, 지역사회 활동은 물론 포교일선의 스님들이 갖추어야 할 정보도 제공하게 된다. 다변화사회에 맞는 시사와 환경문제등을 불교적으로 해석하고 대안도 제시하게 된다. 또한 정보화, 다원화, 고학력화로 법회 설법의 질적인 고민에 처해있던 법사들에게 큰 도움이 될것이다.

그동안 법회는 지역과 사찰에 따라 수준 차이가 있었다. 설법교안을 통해 전국 사찰의 법회가 체계적으로 비슷한 수준을 유지하게 될것이다. 매월 한차례는 〈설법교안〉에 따라 전국사찰에서 동시에 같은 주제의 법회가 진행되도록 유도하게 된다. 이는 불자라면 어느곳에서도 체계적으로 신행활동을 계속하게 될 것으로 기대된다. 〈포교원 포교부장〉

## 포교사의 바람 — 현진스님



### 사회문제등 경전 근거 해답제시
### 주제·분야별 다양한 내용 갖춰야

만시지탄이지만 포교원에서 포교사들을 위해 「설법교안」을 발행해 전국에 배포한다니 일선에서 포교당을 10여년 운영해 온 일선 포교사의 한 사람으로서 크게 환영하는 바이다.

무슨 내용을 어떻게 담고 나올지 자못 기대가 크지만 우선 바라는 점은 현장에서 포교사들이 직접적이고 알뜰하게 이용할 수 있는 전문화된 자료집이 되었으면 하는 것이다. 그렇다고 설법의 처음부터 끝까지 말을 나열하라는 것이 아니다. '환경'이라든지 '복지'라든지 주제가 있으면 그것에 대해 어느 경전에 어떻게 나와 있다는 것을 주제별로 자세히 자료 안내만 해 주면 설법자들은 그것을 참고로 하여 자기 나름대로 알찬 법문을 만들 수 있을 것이다.

예전에 설법자료집이 나왔었는데 그나마 도움은 되었지만 사용하기에 매우 미흡했다. 설법은 부처님의 경전을 보다 많이 인용해 풀어가야 하는데 자료로 제공된 것이 빈약했다. 포교원에서 발행한 「설법교안」은 어느 주제를 놓고 법문하더라도 다양하고 자유자재한 방편을 활용할 수 있도록 주제별·분야별 경전 구절의 제공이 증부했으면 한다.

또한 전문용어의 나열보다는 쉽게 풀어쓰고 실질적으로 피부에 와 닿는 설법자료가 되었으면 하고, 자료뿐 아니라 신도들이 법회 중 함께 소리내어 낭독할 수 있는 다양한 기도문도 들어있으면 한다.

그리고 좀더 요구한다면 한층 다변화되고 급변하여가는 현대인들의 요구를 충족하고 시시각각 빨라지는 시대조류들을 예견해 어떤 방법으로 신도들을 이끌고 어떤 불교운동을 다같이 벌여나가야할지 탁월한 식견을 담은 세밀한 자료제공의 역할로 포교현장에 있는 사람들의 정다운 지침서가 되어주기를 바라는 바이다.

〈여의도 포교원장〉

# 시 론

## '모래시계'의 역기능

### 폭력물 안방침투 경계한다



윤 청 광
〈방송작가·출판협회 부회장〉

TV드라마 「모래시계」가 세상을 떠들석하게 만든 가운데 방송되었다.

권위있는 일간신문들마저 과격적으로 지면을 할애해서 대대적으로 보도한 「모래시계」는 한국방송상사상 '최대의 화제작'으로, 그리고 '최고의 시청률'을 집중시켰다는 경이적인 기록을 세우면서 숱한 찬사속에 그 대단원의 막을 내렸다.

그러나 우리는 TV드라마 「모래시계」가 경이적인 성공을 거두었다는 찬사 못지 않게 이 드라마가 사회에 끼친 역기능 또한 그냥 지나쳐서는 안될 것이다.

부도덕한 정치권력과 사회부조리를 고발한다는 전제가 깔리기는 했지만 「모래시계」는 너무 많은 폭력행위를 여과없이 오랜 시간 되풀이해서 방송함으로써, 과연 우리의 〈안방극장〉에 이토록 처참하고 잔인하고 소름끼치는 폭력이 허용되어도 좋을 것인가 하는 문제를 제기해 주었다.

그리고 또한 「모래시계」는 폭력배와 폭력집단을 결과적으로 미화시킴으로써 감수성이 예민한 청소년들로 하여금 폭력배를 동경하고 폭력집단을 우상시하는 웃지 못할 분위기를 조성하였다.

그동안 우리의 안방극장에서는 지나친 성(性)의 묘사나 표현은 엄격히 규제되었고, 아무리 개방적인 선진국이라 하더라도 성문제와 폭력문제는 엄격히 규제되고 있는게 상식으로 되어있다.

TV는 영화와 달리 모든 가족구성원이 동시에 시청한다는 특수성 때문에, 가정의 질서와 윤리도덕, 그리고 불법적인 행위를 조장시킬 우려가 있는 내용은 방송하지 않는 것이 상식이며 시청자에게 혐오감과 공포감을 줄 우려가 있는 지나친 폭력장면도 절제하도록 요구되어 왔다.

### 청소년 폭력배 동경

그런데 「모래시계」에서는 폭력배의 폭력행사와 폭력집단의 행태가 여과없이 노골적으로 묘사되고, 더더구나 영웅시하는 분위기로 표현되어 한편으로는 청소년들로 하여금 폭력조직을 동경할 우려가 있도록 하였고, 또 한편으로는 가공할 폭력집단의 위력을 모든 시청자에게 확인시켜, 법과 질서와 윤리도덕과 사회규범 위에 폭력이 군림한다는 씁쓸한 패배감과 환멸감을 뿌리 깊게 확산시킨 결과를 초래했다.

폭력과 권력이 결탁해서 정치활동을 좌지우지하고, 폭력집단이 이권을 빼앗고 빼앗기며, 심지어는 사람을 유괴납치하고 청부살인을 하며 검사의 부인까지도 납치 협박하고, 집단으로 난동을 부리고, 각목과 쇠파이프가 난무하는 가운데 처참하게 피를 흘리며 살인행위가 자행되었으며, 드라마의 후반부에서는 주인공의 한 사람인 〈태수〉가 라이벌 폭력배를 폭력으로 죽여 바다에 던져버리는 무자비한 복수를 행하는 등 잔혹하고 무자비한 폭력들이 온통 TV화면 가득히, 그것도 수차에 걸쳐 지나치게 사실적으로 묘사되었다.

### 제작자들 자제다짐

누구나 다 알고있다시피, 폭력은 어떤 경우에도 정당화될 수 없는 범죄행위이며, 폭력집단은 그 집단이 권력에 빌붙어 있건, 이권에 빌붙어 있건, 이 사회에서 발본색원해야 할 흉악한 범죄집단일 뿐이다.

그런데, 바로 이 흉악무도한 범죄집단인 폭력집단이 본의가 아니라 하더라도 멋있고 그럴듯하게 묘사되어, 감수성 예민한 청소년들로하여금 '멋있다' '의리 있다' '잘 산다'고, 그릇 인식하게 한 것은 문제가 아닐 수 없다.

그러나 TV드라마 「모래시계」는 드라마의 사실성을 강조하기 위해 지난친 폭력장면, 잔인한 폭력행위를 너무 장시간 구체적으로 묘사함으로써 자칫하면 앞으로 TV화면에 걷잡을 수 없는 폭력사태를 유발할 위험마저 드러냈다.

만일 「모래시계」가 기록적이고 경이적인 시청자의 열광 속에 대성공을 거두었다고 해서 그동안 여과없이 쏟아놓은 무자비한 폭력장면이 용인된다면, 아마도 앞으로 우리나라의 다른 TV프로그램에서도 이와 유사하거나, 한술 더 뜨는 폭력장면이 무차별 방송될 우려가 있다.

폭력배들의 이야기는 선별된 관객만을 상대로 하는 극장영화로서는 어떤지 모르지만 온가족이 함께 시청하는 TV에서만은 엄격히 규제되어야 마땅한 것이다.

23일 방송위원회가 주최한 「모래시계」의 사회적 영향에 관한 토론회에서도 TV드라마의 폭력묘사가 집중거론 되었고, 안방극장인 TV의 폭력묘사가 청소년들에게 끼친 악영향에 대해서 심각한 우려가 제기되었다. KBS, MBC, sbs의 제작책임자들도 무절제한 폭력묘사와 선정적인 묘사는 자제할 것임을 다짐하기도 했다. 아무튼 「모래시계」의 열풍을 계기로 제기된 TV의 지나친 폭력묘사는 방송의 역기능을 되돌아 보는 좋은 계기가 되었다.

앞으로 케이블TV의 본격적인 방송을 앞두고 KBS, MBC, sbs등 공중파 방송과 케이블TV의 시청자 확보경쟁이 뜨거워질 것으로 예상된다. 아무리 시청률확보가 급선무라 하더라도 〈안방극장〉에서만은 과도한 성의 노출과 성의 상품화, 그리고 지나친 폭력장면만은 철저히, 엄격하게 규제하여 우리의 미풍양속과 건전한 윤리도덕을 지켜나가야 할 것이다.


초대합니다

대·행·스·님

부처님 뜻 받들어
중생과 더불어 고행하시는
대행스님의
대구·경북지역민과 호국영령을 위한
큰법좌에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대한불교 조계종 한마음선원 대구지원

지원장 혜 계 합장
신도회장 김우룡



● 일시 : 1995년 3월 12일(일) 오후 2시
● 장소 : 대구실내체육관
● 주최 : 대한불교조계종 한마음선원 대구지원
● 후원 : 대구불교신도회·BBS불교방송·
현대불교신문·보훈청·MBC대구·영남일보
● 문의전화 : (053)426-2779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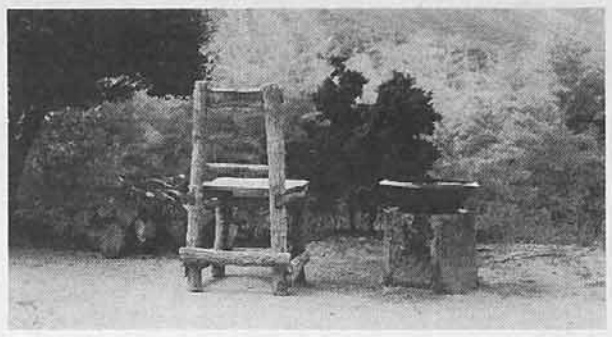
광복 50주년
대구·경북 지역민과
호국영령을 위한 대법회

육신 생긴 게 화두요
내 마음이 화두요
내 생활이 화두이니
화두가 따로 있는 게 아니다
부지런히 뛰는 생활 속에
참선이 있다.

- 대행스님 법어 중에서 -

부처님의 지구 사랑

전 재 성 ⑥



◇ 숲은 삶의 터전이자 수행과 깨달음의 장소이기도 하다

# 신선한 숲은 정신 체험의 공간

## 부처님도 나무아래서 탄생·정각·열반 이뤄

### 땅

거시적인 땅의 세계의 일대 장관을 이루는 완벽한 생태조화는 자연의 숲속에서 발견된다.

숲은 옛 부터 많은 동식물의 생활공간이었고 지금도 모든 동식물이 모여사는 곳이다. 난초에서 부터 거대한 낙엽수나 침엽수에 이르기까지, 또한 개미에서 코끼리에 이르기까지 수많은 생류가 서식하는 곳이다. 이러한 자연의 숲은 생물 다양성의 조화로 인해 해충으로부터의 피해가 적다. 왜냐하면 자연적인 천적이 있다고 하더라도 그 천적에 대한 식량공급이 제한되어 있기 때문이다. 또한 바람이나 눈보라등의 악천후에 의해 피해가 극히적다. 혼합림에서 자연의 젊이짊 —새로운 나무가 늙은 나무의 씨앗에서 자라는것— 이 상존함으로서 숲의 환경구조의 변화에 신축적으로 대응하며 그러한 피해를 줄이기 때문이다. 자연의 숲은 항상 신선하며 젊고 경이로운 곳이다. 우리는 이러한 숲속에서 끝없는 자연의 경이로움에 사로잡힌다. 봄에는 자연의 다양한 색깔과 새들의 지저귐으로 모두가 매료되고, 여름과 가을에는 그 자연의 풍성함에, 겨울에는 대지의 토양을 지키는 그 강인함에 감동하고 있다.

이러한 숲도 인류에게 삶의 공간일 뿐만아니라 온갖 종류의 정신적 체험의 원천적 공간이었다. 종교, 그림, 음악, 시, 문학등의 유일한 체험의 장소였고 특히 시와 서화도 숲을 빼놓고는 성립하지 않는다.

이러한 숲속에서 부처님께서는 태어나서, 수행하시고, 깨달음을 얻고, 초전법륜하시고, 돌아가셨다. 부처님이 태어난 곳은 룸비니라는 사라수 숲이었으며, 아버지 슛도다나왕이 농경제를 거행하고 있을 때에 미래의 부처인 아기 왕자 싯다르타가 가부좌자세로 깊은 선정에 드는 기적을 보인 곳도 장부타비예나무아래였다. 아기 왕자가 자랐을 때 넉달에 한번 찾아간 곳은 왕실 공원이었으며, 싯다르타 왕자가 생노병사의 네가지 괴로움을 관찰한 곳은 밍갈라 공원이었다. 29세에 유성출가하여 수행한 곳은 우루벨라 숲이었다. 그리고 그는 네란자라 강변의 보리수나무아래에서 깨달음을 얻었고, 초전법륜을 행한 곳은 미가다비 숲이었다. 부처님께서는 신칼루다이의 초청으로 라자가라에서 카필라바루까지의 매혹적인 봄의 숲을 여행하신 적이 있으며, 그가 건강을 회복하면서, 한철을 보낸곳도 벨라레야바나 숲이었다.

그리고 부처님이 제자들과 지낸 곳인 사원인 벨루바나 비하라, 제타바나 비하라, 니르로다르마 비하라등은 모두 숲이나 공원안에 있었다. 이 숲이나 공원안에는 대나무와 벵갈보리수가 무성하게 함께하고 있었다.

나중에 부처님께서는 루시나가라의 깊은 숲속에서 열반만에 드셨다. 부처님의 모든 큰 사건들과 깨달음을 숲속에서 이루어졌음을 알 수 있다.

숲은 참사람의 깊은 명상과 수행을 위해서 가장 이상적인 환경을 제공한다. 거시적인 땅의 위대한 드라마인 숲은 인간의 모든 관심과 유혹을 차단시키기 때문에, 참으로 인간이 세속을 떠날수 있고 만유와 조화롭게 살 수 있는 터전이기 때문이다. 부처님께서 수행승들에 지시한 13조가운데 숲의 나무밑에 사는 것이 수행승들의 중요한 덕목으로 되어있다.

## '95 신행 캠페인

# 참다운 불자가 됩시다

재적사찰 등록 불자라면 특정사찰에 신도로 등록하고 법회를 비롯한 사찰의 각종 대소사에 참여해야 함이 당연한 의무이다. 그러나 "사찰에 신도로 등록한 사람보다 그렇지 않은 사람이 더 많을 것"이라는 분석이 대체적이다.

한 설문조사에 따르면, 1년에 1회 이하 또는 사찰에 가지 않아도 된다는 응답자가 12%에 이른다. 개신교의 무교회주의 같은 종조가 불교계에도 상당히 펴져있음을 알려주고 있다.

많은 불자들은 재적사찰 갖기, 법회참석 및 보시 등의 기본적인 의무를 외면하는 것 같다"며 "불자들의 인식이 반드시 재적사찰을 가져야 한다는 방향으로 변해야 한다"고 말했다.

금주의 주제

재적사찰 갖기

"스님으로부터 올바른 수행지도를 받을 때만이 자기의 문제골 부처'이니 '모든 곳이 법당'이니 하는 가르침을 도피처로 삼아서도 안될 것이라고 충고했다.

이에 대해 서울 은평구 ㅈ포교원에 다니는 이원만행보살(38)은 "특히 매이는 것을 싫어하는 젊은 불자들이 재적사찰 갖기, 법회참석 및 보시 등의 기본적인 의무를 외면하는 것 같다"며 "불자들의 인식이 반드시 재적사찰을 가져야 한다는 방향으로 변해야 한다"고 말했다.

"스님으로부터 올바른 수행지도를 받을 때만이 자기의 문제

## 의무다하는 '확실한 불자'

### 절 예절·교리등 스님에게 지도받아야

찰 갖기에 원칙적으로 찬성하면서도 '왜 재적사찰 갖기를 불자들이 외면하는지 그 이유를 먼저 물어야 한다'고 말한다.

20여년전부터 불교를 신앙하며 불교단체에서 활동하고 있는 김영배씨(48)는 "스님들이 제대로 하면 왜 사찰에 안 가겠느냐"고 반문한다. "스님들이 청정성을 회복하고 불교의 가르침을 일상속에서 실천할 수 있는 법문을 들려준다면 당연히 사찰을 찾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도 김씨는 불교서적 등을 통해 얻은 '내가 를 볼 수 있는 지질을 갖출 수 있으며, 그렇지 않고 이절 저절 떠돌아 다니거나 아예 사찰에 다니지 않는 불자들을 보면 개인의 습관을 떨쳐버리지 못하는 앉은뱅이 신앙을 하고 있다"는 것이다.

한편 재적사찰을 갖고 정기법회 참석, 보시 등 신도의 의무를 행하는 것과 함께 사찰운영에 참여할 수 있는 방안도 마련돼야 한다는 요구도 많다. 그래야만 신도들이 소속의식을 가질 수 있으며, 불교인이라는 정체성을 고양시킬 수 있을 것이라는 지적이다.

# 신행수첩

### 76차 깨달음의 장 정토 수련원 수련회

나를 찾아 떠나는 소중한 여행길이 있다.

경북 문경군 가은읍 원북1리 백화산줄기에 위치한 정토수련원(원장 원각법사)은 3월 8~11일 4박5일간 제76차 '깨달음의 장(場)'을 마련한다.

울창한 백화산 숲속 수련원에서 맑은 공기를 호흡하며 자신의 본성(本性)을 조용히 성찰하게 될 이번 수련회는 불자들에게 참다운 삶을 영위하게 하는 계기를 마련해 줄 것이다.

수련을 마친 불자들은 "미워하는 사람과 관계도 좋아지고 일상생활에 화를 내는 일도 없어져, 즐겁고 기쁜 삶을 살게 된다"는 것이 지도하는 법사들의 설명이다.

동참을 원하는 불자(만 18세 이상)들은 평상복차림에 세면도구를 지참하면 된다.

(0581)71-603

### 전통민간 침술 치료법 성훈따주기 강좌 열어

현대인들은 물질적으로 풍요로워져 세간살이 부러울 것 없이 살지만 그 풍요로움 속에서 간혹 심신의 나약함을 느끼며 산다.

인생의 어려움을 겪고사는 우리의 이웃들에게 진실한 빛이 되고자 24시간 연중무휴로 운영되고 있는 전화전문 상담기관 자비의 전화에서는 일반인및 불자들을 대상으로 '성훈 따주기'라는 의료 교양강좌를 마련, 현대인들의 지친 육체를 치료하고자 한다.

성훈따주기는 민간치료법으로 사용했던 우리나라 고유의 침으로 치료하는 것으로 자비의 전화에서는 전통 민간요법에 관심있는 60명의 회원을 3월 2일까지 모집한다.

(02)737-7378

### 백제문화 극치를 찾아서 서산마애불·감사등 답사

빛고을 한복판에서 신행과 포교에 역점을 두고 꾸준이 수행하는 불자들이 유서깊은 불교성지를 찾아 순례의 길을 나선다.

도심포교의 파수꾼 역할을 다하고 있는 관음사(주지 종연)는 3월 25일 부터 26일까지 계룡산을 시작으로 태안반도에 이르는 성지순례를 실시한다.

백제불교문화의 극치를 맛보게 될 이번 순례의 길은 먼저 계룡산 동학사와 갑사, 만공선사의 법향이 물씬 풍기는 수덕사를 참배한다.

이번 순례의 길은 서산 마애석불, 부석사, 부여 정림사지와 낙화암 등지로 순례의 길이 계속 이어진다.

서산 마애불을 만나고자 하는 불자들은 당일 7시 광주공원으로 모이면 누구나 동참할 수 있다. (062)223-7666

### '노년을 즐겁고 흥겹게' 마음젊은 노인학생 모집

우주는 한집과 같고 중생은 한가족이라서 우리중생 모두는 아득한 옛날부터 부모형제 아님이 없다고 한다.

거리에서 만나는 모든 할아버지 할머니들이 우리의 조상이며 가족이라 생각한다면 우리사회는 한결 밝아지지 않을까.

'인생은 60부터'라는 말처럼 할아버지 할머니들이 풍물과 노래, 춤을 배우며 흥겨운 노년을 즐길 수 있는 곳이 있다.

길음종합사회복지관(관장 제원) 노인대학에서는 3월9일까지 60세이상의 마음이 젊은 노인대학생을 모집한다.

기쁨의 현장인 길음복지관 노인대학에서 삶의 기쁨을 느껴보자. (02)985-0161~4

### 수화로 만나는 또다른 삶 원심회 수화교실 개강

수화를 배우며 손끝으로 표현되는 색다른 언어의 세계를 통해 언어장애자들과 만남의 자리를 가지는 것도 우리자신의 삶의 영역을 넓히는 소중한 기회가 될 것이다.

조계사 장애인포교원심회(회장 덕신)는 수화교실을 개강한다.

오는 6일부터 매주 월요일과 목요일에 열리는 수화교실은 만남이라는 말의 깊은 의미를 되새기는 귀한 인연의 자리를 제공해 줄 것이다.

(02)720-4528

### 독립운동 유적지 순례 한용운 손병희 묘소

76년전 오늘, 우리 얼 우리 땅을 되찾고자 분연히 독립만세를 외쳤던 이 땅의 주인들. 무덤가 무성한 잡초마저도 당신들의 기개에 고개 숙이며 가지런히 모여 앉는 3월.

삼일선원(회장 손창대)이 바로 이 날 3월 1일 우리 선열들의 피와 땀을 되새기며 민족독립운동의 유적지를 찾는 성지순례 및 역사문화기행을 떠난다.

그토록 독립을 애타게 갈망했던 민족대표 33인의 한사람 손병희선생이 자리한 수유리에서의 회한.

원체치하에서 일본에게는 고개를 숙이지 않겠다며 선채로 세수를 했다는 민족과 불교의 등불 한용운스님이 묻힌 망우리에서의 회한.

경기 양주 봉선사에서 듣는 주지스님의 법어도 내나라 내민족의 평화와 부궁함이 함께 하라는 간절한 염원이고 보면 이 땅의 주인 이 땅의 불자로서 해야할 일, 그것은 이 땅 모든 것을 소중히 지키고 이 땅 모든 이를 사랑하는 것임을 이날 다시 다짐해보는 기회가 될 것이다. (02) 237-4438



◇ 서산 마애삼존불의 웃는모습 백제인의 미소로 전해온다.

### 깨달음의 사회화성금

| | |
|---|---|
| ▲강화 보문사 | 3백2만7천원 |
| ▲화엄사 | 5백만원 |
| ▲강화 청련사 | 4십3만1백20원 |
| ▲월정사 | 1백6십5만원 |
| ▲낙산사 | 2백만원 |
| ▲성북 팔정사 | 8만원 |

(2월 15~20일)

• 성금모금 계좌번호
농협053-01-22778
국민은행023-01-0533-563
예금주:(불교중앙교원)

### 지방주재기자를 찾습니다

현대불교신문사는 전국 불자들의 신행활동을 보다 빠르고 폭넓게 전하기 위하여 지방주재기자를 모집합니다.

◇자격: 다음의 대상 주소지에서 2년이상 거주 35세미만의 불심 돈독한 대졸 남·녀 (경력자 우대)
◇대상: 부산·대구·광주
◇구비서류: 자필이력서 1통(명함판 사진 2매), 주민등록초본, 자기소개서(2백자 원고지 5매이내)
◇선발: 서류전형 후 개별통지
◇마감: 1995년 3월 20일
◇보내실곳: 서울 종로구 견지동 110-33
현대불교신문사 (문의 02-722-4162)

현대불교신문사

나와 이웃 그리고 자연은 하나

생활속의 불교 ⑱

협찬 : 태광 BOLT

# 평생두고 양식이 넉넉한 도리



어느 한 분야에서 우뚝 솟을만큼 성공한 사람들, 일가(一家)를 이룬 사람들은 대개 20년, 30년을 외곬으로 파고든 사람들이다. 한 통계에 의하면 대기업체 사장이 되기까지는 입사 이후 25년쯤 소요된다고 한다. 은행장이 되려면 입행 후 30년쯤 걸린다. 학문의 길로 들어서서 박사학위를 취득하기까지 책과 씨름한 기간을 따지면 통산 20년이 조금 넘는다.

그러니 그 오랜 세월의 각고가 얼마나 벅찬 일이겠는가. 한 권의 책으로 엮어내도 모자랄 만큼 온통 눈물과 땀의 기록으로 이어져 왔을 것이다.

그런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불법만큼은 속성과로 알아지기를 원한다. 한두 권의 불서를 읽고 나서, 또는 스님들의 법문을 몇 차례 듣고 나서 "불법은 어려워서……."라고 말한다. 세상 사는데 필요한 최소한의 기초지식을 습득하는 데만 초·중고 12년의 세월을 보낸 사실은 까마득히 잊고서는 불법이 어렵다는 말만 되뇌인다.

단지 한두 과목의 성적을 올리기 위해 며칠씩 밤을 새웠던 그 때의 노력은 어디에 두고 불법만큼은 단숨에 알아지기를 바라는 것일까.

불법공부의 공덕은 세간공부에 비견할 바가 아니다. 부처님께서는 뭇 경전의 사구게(四句偈) 하나만 제것으로 만들어도 그 공덕이 보물을 산더미처럼 쌓아놓은 것보다 비교할 수 없이 크다고 하셨다. 그런 큰 공부를 어찌 세간의 노력에 비유할 것이며 더욱이나 십분의 일, 백분의 일에도 못 미치는 노력만으로 제 것을 만들려 하겠는가.

참으로 다행스러운 일은 그렇지만 불법공부만큼은 따로 시간을 쪼개지 않더라도 생활 가운데서 해나갈 수 있다는 점이다. 그러니 한편 생각하기에 얼마나 쉬운 일인가. '불법은 어려워서……' 라고 말하기 전에 불법공부의 공덕을 먼저 생각해볼 일이다.

평생 동안, 아니 세세생생 양식이 풍족한 도리는 불법공부에 있다.

협찬
태광 BOLT
대표 조성훈
서울시 영등포구 당산동 1가 4번지
전화 : 634-8015, 678-4766 / 팩스 : 634-7362

# 교차로



참나 청소년 상담연구원장

## 도각 스님

## "청소년들의 형님 될터"

"청소년 선도활동은 무엇보다도 시급한 과제입니다. 만해 한용운선사의 청년운동정신을 고취시키고 불법을 통해 청소년을 계도하는데 앞장서겠습니다"

지난 2월 26일 방황하는 청소년들을 위한 전문무료상담센터인 '참나 청소년 상담연구원'을 개원한 김도각스님(한국불교청년회장)의 서원이다.

도각스님은 지난해 11월 1급 청소년 지도자 자격취득계기로 청소년문제등에 관한 전문상담사업의 필요성을 절감하고 '참나 청소년 상담연구원'을 개설했다.

"건전한 청소년 문화의 정착을 위해 청소년들의 맏형으로서 모든 그민을 해결해 줄 것"이라고 포부를 밝혔다. 참나 청소년 상담연구원은 오후 5시부터 8시까지 상담하며 필요시 방문 상담도 하게된다. 또한 도각스님은 마음의 전화를 개설해 청소년뿐만 아니라 일반인에게도 상담의 폭을 넓힐 계획이다. 〈근〉

### 서예·사군자 강의



구암스님(대한불화종 종정)은 오는 7일부터 매주화요일 2시 부산여성불교대학의 문화교양강좌 서예·사군자반의 강의를 4개월동안 지도한다.

### 일본 대정대 교환교수로



법혜스님(동국대 교수)은 교비해외 연수차 3월1일부터 8월31일까지 일본 대정대학에서 교환교수로 활동하게 된다.

### 대원불교대 미국분교장에



경암스님(미국 워싱턴 보류사 주지)은 2월11일자로 대원불교대학 미국분교장으로 임명받았다.

### KBS불자회 초청법문



지원스님(삼보사 주지)은 지난 24일 한국방송공사 불자회가 주관한 초청법회에서 '금강경의 가르침'을 주제로 법문을 했다.

### 아미타삼존불 봉안

성원스님(선원사 주지)은 고려팔만대장경 관각성지인 선원사를 복원, 4월2일 아미타삼존불 봉안식을 봉행한다. 이번에 선원사에 모셔지는 아미타삼존불은 조선시대 불상으로 후불탱화와 함께 봉안된다.



### 동국대서 정치학 명예박사



황명수의원(민자·동국대총동문회장)은 지난달 24일 오전10시 민주화와 정치발전에 기여하고 모교의 명예를 빛낸 공로로 동국대로부터 명예정치학 박사학위를 받았다.

### 김성곤 전회장 추도식 봉행



김석원회장(쌍용그룹)은 25일 신현확 전총리를 비롯, 정재계 인사 5백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용평 리조트에서 고 김성곤 전회장의 20주기 추도식을 가졌다.

### 장남 혁주군 화촉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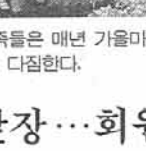
권오현국장(대한불교 진흥원 사무국)의 장남 혁주군이 노경순씨의 차녀 전상은양을 신부로 맞아 3월4일 오후 2시 불교방송국 3층 법당에서 화촉을 밝힌다.

### 정년퇴임·출판기념식



리제재교장(동수원 중학교)은 27일 오전 11시 동수원중학교에서 정년퇴임한다. 46년6개월간 교육계에서 헌신한 리교장은 이날 정년퇴임식과 함께 저서 〈수원의 옛문화〉출판기념회를 갖는다.

### 항소심서 무죄선고 받아



이문옥씨(전불련 공동의장)는 지난 90년 재벌의 비업무용 부동산 보유실태에 관한 감사결과를 공개, 공무상비밀누설 혐의로 기소됐으나 1심 무죄에 이어 지난 21일 항소심에서도 무죄를 선고받았다.

### 육사생도법회서 특강

박광서교수(우리는 선우 공동대표)는 지난달 19일 육사 법당에서 열린 육사생도와 우리는 선우 공동법회에 참석, '왜 불교를 믿어야 하는가'를 주제로 특강했다.

### 한라불교 대표이사 취임



김승석변호사는 지난 10일 한라불교신문을 주식회사로 법인등록하고 대표이사로 취임했다. 한라불교 신문은 제주 유일의 불교신문이다.




## 불교기아 도움기구 후원의 밤 성황

불교방송특집 공개방송으로 열린 한국불교기아도움기구 후원의 밤이 지난 22일 오후 6시 서울 중구 구민회관에서 5백여명의 불자가 동참한 가운데 성대히 개최됐다.

이날 행사에는 명국환 남강수 현당 김홍국씨와 선우·대은스님 김활선씨 덕봉스님 한인식 향명숙 김재일회장(뒷줄 왼쪽부터), 장미화 박기순 김혜연 진송남(앞줄)씨등 불자가수가 출연했다.

이날 1천여만원의 기금이 모금됐다.

## 게시판

▲출판기념법회=수효사는 1일부터 3일까지 지묵스님의 〈초발심자경문〉출판기념 및 참회산림법회를 봉행한다. 매일 오전 10시30분, 법사는 지묵스님. (02)313-3060, 3037

▲경불련 간사 모집=경제정의실천불교시민연합(회장 월주)은 외국인노동자와 관련된 업무를 담당할 간사를 모집한다. 외국어연수 등의 기회를 제공한다.

문의 (02)765-5448

▲보육교사 교육생 모집=중앙승가대학 보육교사교육원은 교육생을 모집한다. 모집인원은 주간·야간 각 1백명. 모집기간은 3월6일까지.

(02)929-5004

▲강좌개설=(사)한국불교연구원(이사장 이기영)은 연구원 법당에서 3개월과정 강좌를 개설한다. 금강경오가해Ⅲ강좌는 매주 금요일 오전10시30분부터 12시까지, 불교학개론 강좌는 매주 목요일 오후1시30분부터 2시30분까지.

(02)575-6167~8

## 내일을 여는 불자



불교음악 대중화 숨은 일꾼

지휘자 박 이 제 씨

"입을 크게 벌리고 리듬에 몸을 실어봐. 자! 다시 한번 해 볼까"

지휘자 박이제씨의 말이 떨어지기 무섭게 부산스럽던 어린이들이 입이 다시 하나가 된다.

6여년의 독일 유학생활을 마치고 귀국, 대한불교소년소녀합창단을 꼭 1년째 맡고 있는 박이제씨는 중앙대 음대에서 작곡을 전공한 우리나라에서 몇 안되는 정통파 불교음악인으로 불교계의 숨은 일꾼이다.

박이제씨는 군복무 기간동안 줄곧 교회를 다니다 군제대 3개월전 우연히 군법당을 들린 것이 계기가 돼 불교와 인연을 맺었다.

"불교음악은 심신의 힘겨움을 해소해 줄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다사다난한 인생사를 포괄적으로 내놓아 호평을 들었다.

"교회음악인 서양음악이 현대음악의 기조를 이루는 가운데 불교음악이 무작정 그 흐름에 좇아가고 있는 것 같다"고 우려의 목소리를 높이는 박이제씨는 "서양음악에 우리 불교음악을 맞출 것이 아니라 범패와 같은 우리 음악양식에 서양음악을 응용시키는 것이 바람직하다"며 우직하게 불교음악의 방향을 제시한다.

타종교에는 '음악목사'라 불리울 만큼 전공인과 전문인이 많고, 그만큼 활동도 활발히 이뤄지고 있음을 설명하는 박씨는 "전무하다시피한 전문 연주단체와 전공성악인의 수적부족이 한국불교음악의 침체원인"이라고 진단했다. 이어"침체의 늪에서 벗어나 발전

## '부처님 사랑' 등 작곡에 전념

### 소년소녀합창단 지휘…지난해 독일유학 마쳐

적으로 회향하기 위해서는 동국대와 승가대에 불교음악과가 개설돼야 하며 무엇보다 종단차원의 전폭적인 도움과 불자들의 관심이 있어야 한다"고 단호하게 말했다.

그는 또한 많은 찬불가 공모를 통한 창작의 기회와 발표의 기회가 마련돼 찬불가 및 불교음악의 질적향상을 도모해야 한다고 역설하고 "소규모 실내악과 전자음악, 합창단을 모두 포함하는 불교음악으로 세계종교음악제와 음악시장에서 평가를 받고 싶다"는 포부를 밝히기도 했다.

「세계민요」의 편곡과 찬불가의 창작활동에 여념이 없는 그는 불교음악연구회의 연주회와 대한불교소년소녀합창단의 제3회 정기발표회 준비로 오늘도 숨가쁘게 달리고 있다.

〈도필선 기자〉

탐 방

한국은행 불교회

## 복지단체 후원·불우아동 결연에 앞장…회원 3백명

'성실하고 인정받는 직장인으로서 불법을 통해 사회에 봉사하고 올바른 삶의 가치를 구현하자'

우리 경제 중요부분의 일익을 담당하면서 변함없는 불심으로 이렇게 서원하는 불자들이 모인 단체가 있다.

개인신앙과 친목을 도모하고 불교인으로서의 자긍심을 높이기 위해 만들어진 '한국은행 불교회(회장 권영진·이하 한은불교회)'는 지난 85년 12월 창립돼 현재 3백여명의 회원을 가진 금융계에서 가장 모범적인 신행단체로 손꼽힌다.

매주 금요일 낮 12시, 점심시간을 이용해 정기법회를 열고 있는 한은불교회는 그동안 법정스님, 서경보스님,지광스님을 비롯해 송석구, 정병조, 이기영, 목정배교수 등 교계의 이름있는 스님과 학자를 초청, 불법을 체계적으로 공부해 오는등 교리학습에도 정성을 쏟고 있다.

매월 1회 근교사찰 참배와 분기 1회 성지순례를 통해 불심을 증장시키고 있는 한은불교회는 가을마다 해인사를 찾아 신입회원과 가족들을 위한 수계법회를 여는 등 가정과 직장을 하나로 연결하는 다리 역할에도 열심이다.

또한 창립법회와 초파일법회등 대법회에는 덕있는 큰스님을 비롯 불법전파를 위해 서정주,고은씨등을 초청해 사내 불교를 모르는 직원들에게도 불교를 접할 수 있게 하였다.

이외에도 한은불교회는 지역 불우이웃돕기는 물론 성남 자광원등 불교복지단체의 후원과 불우아동과의 자매결연을 주선하는 등의 보살행을 실천하고 있기도 하다.

이런 다양한 활동중에서도 한은불교회가 가장 자랑스럽게 여기는 것은 한은불교회 창립이 한일·제일·중소기업·서울신탁은행등 국내 13개 금융기관의 불교회 창립의 모태가 되었다는 것이다.

더욱이 한은불교회는 92년부터 시작된 각 은행 간사들의 모임인 '금융단 불교회 운영위원회'를 주도하면서 정기모임을 통해 다른 금융기관의 법회설립을 돕고,매년 봄·가을 두차례 합동법회와 연등행사를 펼치는 등 다양한 활동을 통해 금융계 불자회의 터줏대감으로 자리잡고 있다.

최근들어 각 직장마다 각종 법회가 생기기는 하나 법회운영 프로그램과 지도법사 부족등으로 법회운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그러나 이런 속에서도 한은불교회는 10여년을 한결같이 새로운 내용의 알찬 법회를 운영하며 내실을 기하고 있다.

창립초기 여러가지 어려움을 극복해내고 지금의 한은불교회를 만들어 내는데 열정을 바쳐온 홍순우 부회장은 "갈수록 치열해지는 상호경쟁과 복잡한 교통문제로 보다 다양한 활동에 제약을 받고 있기는 하나 독송모임, 참선모임 등 소모임을 활성화시키는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통해 금융계 법회의 모범으로 그 자리를 굳게 해 나갈 것"임을 다짐했다.

〈한명우 기자〉



◇ 한국은행 불교회 신입회원과 가족들은 매년 가을마다 해인사를 찾아 오계를 받고 불법에 충실할 것을 다짐한다.


1995학년도 • 신(편)입생 모집요강

# 동방불교대학

(佛教學科 · 梵唄科 · 佛教美術科 · 韓醫豫科)

—4년제 주간, 2년제 및 통신과정 병설—

1982년 설립되어 불교 교역자를 양성하고 있는 본 대학은 4년제 대학교육 체제와 종합적인 불교 교육기관의 면모를 갖추고 뜻있는 불자들의 입학을 바라고 있습니다.

1 모집학과 및 모집인원

| 학 과 | 교 육 내 용 | 모집인원 | 비 고 |
|---|---|---|---|
| 불교학과 | 불교교리와 불교 경전을 교육 | 60명 (통신생 포함) | 4년제 |
| 범 패 과 | 전통불교의식인 상주권공을 교육 | 15명 | 2년제 |
| 불교미술과 | 전통불교미술 교과를 교육 | 25명 | 4년제 |
| 한의예과 | 한의학개론 · 생리학 · 본초학개론 등 미국 결연 대학 한의학과 예과 과정을 교육 | 40명 | 2년제 |

2 응시자격(다음 사항 중 한 가지 이상의 자격을 갖춘 자)
(1) 고등학교 졸업 또는 동등 이상의 학력 소지자
(2) 불교 강원 사교과 이상 수료자
(3) 태고종단 간부의 추천을 받은 자

3 전형방법
(1) 필기시험(불교상식, 공통), 실기시험(불교미술과) 및 면접(공통)
(2) 한의예과는 국어 · 영어 · 수학 · 화학

4 원서교부 및 접수기간: 1995년 1월 16일 ~ 2월 28일
(평일은 10:00~17:00까지, 토요일은 14:00까지, 일요일은 휴업함)

5 전형일자: 1995년 3월 1일 (수) 10:00 ~ 18:00

6 제출서류
(1) 입학원서(소정양식) 1통 (2) 최종학교 졸업(예정)증명서 1통
(3) 최종학교 성적증명서 1통 (3) 주민등록등본1통
(5) 승적증명서 또는 수계증 사본 1통 (6) 반명함판 사진 6매
(7) 전형료:30,000원(단, 불교미술과는 40,000)

7 참고사항
(1) 한의예과 수료자는 미국 캘리포니아주 소재 사우스베일로 대학과의 교육 결연에 의거, 사우스베일로 대학에 편입하여 소정의 학위와 자격을 취득할 수 있음.
(2) 미국 결연 대학에서는 한국어로 교육받고 시험도 한국어로 응시할 수 있음.
(3) 본 대학 이수자엔 태고종단의 포교사 자격증을 수여함.
(4) 강좌 개설 시간은 오전 10시~오후 5시 사이임.
(5) 통신생은 월 1회 1박 2일 출석교육과 하계 · 동계 방학 중의 2박 3일 출석교육을 이수하여야 함.
(6) 기숙사 운영(지방학생은 문의 바람)

편입생 모집요강

1. 응시자격
(1) 본대학 2년 수료자 (2) 강원 대교과 수료자
(3) 4년제 정규대학 졸업자(불교미술과는 미술대학 졸업자) (4) 불교교양대학 졸업자

2. 기타
(1) 응시자의 수학 경력에 따라 2학년 또는 3학년에 편입토록 함.
(2) 4년제 이수자에겐 제1급 중앙포교사 자격증을 수여하며, 태고종단 승려에겐 중덕법계를 품수함. ※원서교부 등 기타 사항은 상기 신입생 요강에 준함.

■원서교부 및 접수처: (1) 본 대학 교학처(☎ 763-0229,8536) (2) 태고종 총무원(☎ 745-2030) (3) 태고종단 각 교구 종무원 (4) 경서원(조계사 앞 ☎ 733-3345)



삽화 · 이기선

# 자신을 이기는 아라한 되어야

목정배 교수가 쓰는

**오늘의 불교** ⑯

克己

눈만 뜨면 사람은 다투기를 잘한다.

싸움에 지면 자신의 삶이 파괴되니까.

그러므로 오늘날을 경쟁의 시대라고 한다. 숨만 붙어 있어도 살려는 몸부림이 앞서 나와 많은 남들을 이기려고 한다. 남에게만 이기면 된다고 주먹을 불끈 쥐기도 한다. 아니 어깨에 힘을 넣고 눈을 부라리기도 한다. 마치 사천왕이나 금강력사처럼 모양새를 만들어 남을 위협하고 있다.

사실 우리들이 남과 싸워 이기려는 위세는 왕왕하면서 자신의 마음을 살펴 본적이 있는가. 우리가 이겨야 할 대상은 남이라기보다 자신이 아닌가. 자신과 맞싸워 이기는 승자가 되어야 한다.

법구경의 말씀에 '전장에 있어서 수천의 적과 혼자 싸워서 이기기보다 하나의 자기를 이김이야말로 참으로 전사중의 최상이니라' 고하였다. 이 말씀은 적은 밖에 존재하는 상대가 아니라 안에 있는 자신을 말한 것이다. 사자는 짐승의 맹왕이다. 사자가 두려워하는 것은 어디에도 없다. 사자는 다른 짐승의 공략을 받지도 않을뿐더러 또한 그러한 경우가 있다해도 맹위와 위력으로 뭇짐승을 살상한다. 강인한 살육의 힘을 갖고 있다. 상대에 항복이나 죽임을 당하지 않는 위엄과 무력을 지니고 있기 때문이다. 그러니 평화롭게 한가로이 거닐면서 낮잠도 즐기고 맛있는 먹이감을 골라잡아 포식하기도 한다.

### 자아상실 문턱서 구제

그러나 그 사자가 종국에는 죽게 된다. 무엇때문에 죽게 될까. 사자 몸속의 벌레가 사자를 죽게한다. 사자신중충이 바로 그것이다. 사람들도 이 사자의 죽음에 대하여 깊이 성찰하여야 한다. 경쟁의 상대가 남이라고 생각하여 걸치레를 부리거나 위세를 날릴 필요가 있을건가. 세상은 속살이 든 사람을 기다리고 있다. 속이 비어 있는 사람은 어느 정도는 살 수 있을지 모른다. 그러나 속살속에 스며있는 생명의 정기가 다 빠지고 나면 썩은 갈대처럼 쓰러지고 말 것이다.

## 말씀따라 행동하면 승리자
## 탐욕·분노는 마음의 비린내

도덕성과 윤리성으로 안을 채워야 한다. 마음속에 비린내를 품고 있으면 그 비린내가 밖으로 풍겨 나와 다른 사람으로부터 냄새가 발각된다. 몸밖에 비린 냄새가 묻어 있으면 말끔히 씻어내면 가셔질 수 있지만 마음속의 비린내는 가셔낼 수 없다.

이 비린내가 무엇인가. 물욕, 부도덕이다. 일찍이 부처님께서도 누누히 말씀하셨다.

물고기, 육고기등이 비린것이 아니라고, 마음이 음욕심, 탐욕심, 분노심에 불타고 있다면 이것이 비린것이라고 하였다. 우리들은 대물적(大物的)인 비린것에 관심을 갖고 생활하지만 부처님께서는 유심적인 무형질의 비림을 지적한 것이다. 우리들이 이길려고 온갖 힘, 무력, 무기를 동원하여 남을 쳐부수려고 하지만 사실 부처님이 우리에게 이겨야 한다고 일러주신것은 그러한 대상이 아닌 것이다.

그 대상이 누구인가. 바로 자신인 것이다. 그러므로 전쟁에 나아가서 수천의 적과 상대하여 이기는 것보다 자기자신과 싸워서 이기는 것이 최상의 전승자(戰勝者)라고 한것이 아닌가.

세상 돌아가는 것을 잘 살펴 보아라.

### 이겨야할 상대 나자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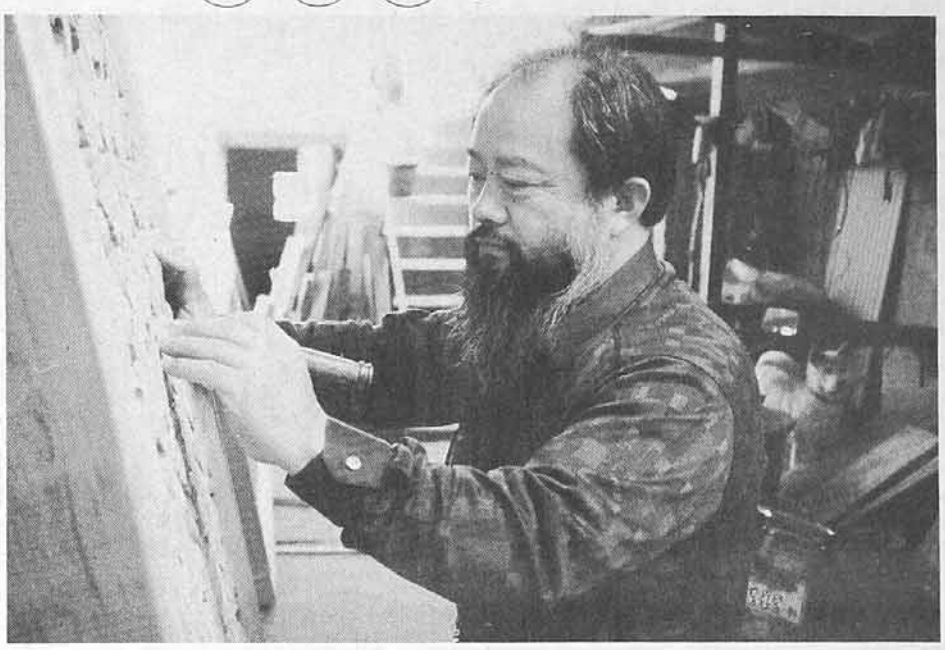
재미라기 보다 비극적으로 심각하지 않는가. 제 자신을 제정신으로 가눌 수 없어 환각제를 복용, 흡연하는 사람이 날로 늘어나고 있다. 이러한 사건은 왜 일어나고 있는가. 제 마음을 다잡지 못하고 의타적인 생활습벽이 증대하였기 때문이다. 신앙적으로 남을 의존하는 능도가 짙어지면 대물적인것에도 의탁하려는 생각이 들게 된다. 자립도를 높이는 신앙을 길러야 한다. 절대자가 환상으로 나타나면 안된다. 절대자는 환상이 아니고 바로 자기 앞에 있는 자존적 자아(自存的自我)이다. 자아는 고귀하고 존귀한 생명이다. 이 자아를 자신에서부터 발견하여야 한다. 타의적으로 살려는 생각은 자아상실의 문턱에서 광란의 마약방으로 풀어가게 된다. 우리는 자아의 수문장을 눈뜨게하여 자아의 여래방을 지키게 하여야 한다.

'아침에 도를 알게 되면 저녁에 죽어도 좋다'고 한 것은 자신의 노력으로 삶의 길을 찾아나선 사람은 임종을 바르게 맞이할 수 있다고 한 것과 같은 의미일 것이다. 남과 더불어 매일 싸워 이기려는 맹목적 아수라들이여 이제는 새벽잠에서 깨어나 저 신선한 대기를 호흡하면서 자신과 싸워 이기는 아라한이 되어야 한다.

# 문짝짜기 40년 "솜씨로 찬불"

## 산문밖의 禪華

### 사찰창호 소목장인 조찬형 씨



"어서오세요. 난로가 고장나서, 당최 꺼뱅하게 사니께 …"

그가 인사겹 사는 모습의 누추함을 가리지 못해서 송구스럽다는 듯 사무실로 기자를 안내했다. 사무실이란 핏말을 붙였지만 작업장의 소음을 피하기 위해 만든 방이다. 벽에는 온통 견본용 창살과 그의 손길로 이룬 창호를 찍은 사진액자, 불화로 가득하다. 그의 사는 모습이다.

사찰창호 전문제작자 조찬형씨. 쉰여덟해를 사는 동안 어린시절 몇년을 빼놓고는 문짝 짜는 일에만 매달렸다. 이 길로 들어선 특별한 이유는 없었다. 한약방을 하셨던 선친의 반대가 심했지만, 지나가다 목공소만 보면 '저걸 배워야 할텐데'라는 생각이 저절로 생겨나더라는 것이다.

"그렇게 하고 싶더라고, 열여섯살 때 데모도로 시작했지."

### 작업장엔 불화가득

모든 일이 그렇지만 이 일도 보는 것처럼 쉽지는 않았다. 어릴때 나무토막을 주워다가 빨래방망이며 굉이를 만들 때와는 달랐다. 재주가 있다고 생각했지만 도편수의 나무람이 없을 수 없었다. 이때 따끔한 가르침을 주었던 분이 대목 신응수선생이다. 안동 하회마을 복원의 대목을 맡았던 신선생으로부터 나무고르기부터 말리기·짝맞추기를 배웠다. 그의 말마따나 "뿌리없는 나무가 어디 있으며, 선생없는 제자가 어디 있겠느냐"며 신응수선생에게 언제나 고마운 마음을 지니며 살아간다.

사찰창호 제작 외길 40년이 순조로왔던 것만은 아니다. 누구에게나 삶의 곡절이 있었듯 그에게도 예외는 아니었다.

"이걸 해서 밥벌이나 될까." 목수일을 하는 것이구나."

조찬형씨는 창살을 통해서 세상을 바라본다. 때로는 빗살문으로, 때로는 완자문으로, 때로는 연꽃문양의 꽃살창으로 바라보는 것만이 아니다. 들어오는 사람에게 문을 열어주기도 한다.

"조상들의 살림살이를 보면 어느 것하나 그냥 만들어진 것이 없어요. 드나드는 문에 온갖 정성을 쏟은 것을 보면 문에 특별한 의미를 부여했으리란 짐작이 어렵지 않아요."

집안의 가장 깊숙한 곳에 위치한 방의 쓰임새와 품격에 따라, 또는 주

## "일할땐 아무생각 말라"…5백여 법당에 온 정성

이 힘들 뿐만아니라 노력한 만큼의 대가가 돌아오는 것도 아니고, 야랏사람 부리듯 하는 사람들의 인식이 그를 괴롭혔다.

그만 둘까 하는 생각을 수없이 되풀이 했다. 알루미늄 샷시와 합판문짝이 전통창호를 밀어내던 때였다.

그런데 일거리가 끊이지 않았다. 가구며 한양장 제사상 등 나무로 만드는 일이라면 누구보다 꼼꼼하게 잘한다는 소문이 나기 시작했다.

이제는 사찰창호 하면 그의 이름을 떠올린다. 그만큼 솜씨있는 소목장으로 알려졌다. 부처님을 모신 대웅전은 물론 고궁, 윤봉길의사 사당 등 쫌 유명하다 하는 곳은 그의 솜씨가 담겨있다. 사찰만해도 수덕사 명부전을 비롯 구인사 삼광사 지관전 등 5백여곳에 이른다.

임금님이 살았던 경복궁 강녕전 창호는 그의 자랑거리다. 지금은 복원작업중인 경복궁 창호를 맡아 쉴틈이 없다. 3월부터는 아예 작업장을 경복궁으로 옮길 작정이다.

"먹고살기 위해서 이 일을 한 것이지 뭘 위해 했다는 것은 말도 안돼. 잘 하려고 하다보니 오래 했고, 이렇게 된거지"

그러면서도 제자들에게는 늘상 입에 붙은 말처럼 맑은 마음을 강조한다.

"일을 할 때는 아무 생각도 말아라. 마음을 다스리지 못할 바엔 차라리 이 일을 집어치우라"고 호되게 나무란다.

그는 꾸지람하는 것을 자신에게 주어진 당연한 몫으로 여긴다. 창호를 배우러 왔다가 꾸지람을 견디지 못하고 떠나는 젊은이도 더러 있지만 들려줘야 할 얘기를 들려준다는 생각이다.

법당의 문짝 하나를 짜도 스님네들이 밭이 닳도록 돌아다니면서 시주한 돈으로 하는 건데 허투루 할 수 없는 일이라는 것이다. 더욱이 법당문은 부처님을 뵈러가는 사람들의 마음을 마지막으로 추스리게 하는 신앙의 의미를 담고 있지 않은가.

### 1천배 올린후 시작

그래서 그는 법당문을 짤 때는 제자들 보란 듯 목욕재계하고 마음 다스리는 모습을 보여준다. 법당에 가 108배, 1천배 올리는 것은 물론이다.

20여년전 경기도 안중의 심복사 일을 할 때 내리 3일 부처님 꿈을 꾸었다.

"부처님이 구름을 타고 오셔서 아무 말씀도 안하시고 찬찬히 나를 보고 계시더라구. 사찰창호 짜는 일도 예삿일이 아니라고 생각했죠. 부처님인의 마음쓰임을 좇아 문을 치장했을 것이다. 완자문, 빗살문, 꽃살창 …

꽃살창은 대개 사찰 대웅전의 정면 출입문인 어간과 협문에 쓰였다. 무늬는 주로 연꽃이다. 혼탁 속에 뿌리를 내리고 찬란함을 피워내는 연꽃과 같아서, 그 마음에 따라 그려 했으리라.

완자문은 어떤가. 넓은 팔각 또는 직사각의 틀에 사각형의 반듯함이 있다. 단정하면서도 나무결의 온화함이 깃들어 있어 휴사 풍류를 앞뒤 품격을 잃지 않는 사대부의 내면을 표현한 듯하다.

길게 설명을 늘어놓은 조찬형씨는 이내 쑥스러운 듯 머리를 긁적이며 "40년 넘게 창호일만 하다보니 이런 생각이 들어요. 무슨 철학이라 말해도 괜찮을까요"라고 되묻는다.

〈예산 = 정성운 기자〉


계룡산 자광사 '95년도

**자광불교 교양대학 신입생모집**

1. 모집전형
- 입학자격 : 기초과정 – 불교를 믿고 신행하는 자
  일반과정 – 불교교양 기초과정을 수료한 자
- 교육일시 : 기초과정 – 매주 일요일 오전 09:30 ~ 10:50 (80분)
  일반과정 – 매주 일요일 오전 11:00 ~ 12:20 (80분)
- 구비서류 : 입학원서(본교 소정양식 1통), 사진 반명함판(3×4cm) 3매
- 수 강 료 : 기초과정 – 연 12만원, 일반과정 – 15만원(입학·등록금 없음)
- 입학정원 : 기초과정 – 100명, 일반과정 – 50명
- 교육기간 : 1995. 3. 1. ~ 1996. 2. 28 (12개월)
- 원서마감 : 1995. 1. 15. ~ 1995. 2. 28

2. 교양과정 교과 법사스님 및 교수진

| 과정 | 교과 | 법사스님 및 교수진 |
|---|---|---|
| 기초과정 (1년차) | 불교기초교리 / 불교학개론 / 천수경, 반야심경 / 유마경 / 불설42장경 / 정토사상 | 김정락 스님 (조계종 포교원장) / 한보광 스님 (동국대학 정각원장) / 변각성 스님 (삼일선원 상임법사) / 안혜거 스님 (금강선원 주지) / 이원행 스님 (조계종 중앙종회의원) / 이기영 박사 (한국불교 연구원 이사장) / 오형근 박사 (동국대학 대학원장) / 권기종 박사 (동국대학 불교대학장) / 정병조 박사 (동국대학교 교수) / 강건기 박사 (전북대학 교수) / 이평래 박사 (충남대학 교수) |
| 일반과정 (2년차) | 금강경 / 원각경 / 법화경 / 대승기신론 / 한국불교사 / 선학개론 | |
| 상단법문 | 비룡 큰스님, 석주 큰스님, 원담 큰스님, 숭산 큰스님 | |
| 특강 | 유월탄 스님, 김현해 스님, 전설정 스님, 서돈각 박사, 김지견 박사, 송석구 박사 | |

계룡산 자광사 305-360 대전 광역시 유성구 학하동 649번지
TEL. (042) 822-9219~20, 822-6472~3 / FAX. (042) 822-8304

**자광불교 교양대학**



한국불교연구원

**정기법회변경 안내**

사단법인 한국불교연구원에서는 그 동안 토요일에 개설하던 정기법회를 다음과 같이 목요정기법회로 일시를 변경하였습니다. 그 동안 주말에 시간을 내기 어려워 법회에 참석지 못하셨던 분들은 본 연구원의 목요정기법회를 통하여 부처님의 가르침을 공부해 보시기 바랍니다.

- 시 간 : 매주 목요일 오후 7시부터
- 대 상 : 제한 없음
- 문 의 : 한국불교연구원 사무국 TEL. 575-6167~8
- 법회일정

| 일 시 | 강 사 | 내 용 |
|---|---|---|
| 3월 9일(목)<br>3월 23일(목) | 이기영 박사<br>(본원 원장) | 불교용어해설 |
| 3월 16일(목)<br>3월 30일(목) | 정병조 교수<br>(동대 교수) | 반야심경 |

사단법인 한국불교연구원 **서울구도회**



원효학당 상설강좌

**불교개론**

본 학당에서는 불교에 처음 입문하신 분들을 위하여 다음과 같이 불교개론강좌를 개설합니다. 처음 접하는 용어와 기초지식의 부족으로 인하여 불교연구에 어려움을 느끼셨던 분들은 본 학당의 불교개론강좌를 통하여 그와 같은 어려움을 해소하여 보시기 바랍니다.

- 시 간 : 목요일 오후 1시 30분부터 3시간
- 기 간 : 3월 9일(木)부터 3개월간
- 장 소 : 한국불교연구원 법당
- 강 사 : 이기영 박사 (본원 원장)
  권기종 교수 (동대 교수)
  정병조 교수 (동대 교수)
- 수강료 : 10만원
- 문 의 : 학당사무국 (TEL 575-6167~8)

사단법인 한국불교연구원 **원효학당**

3·1절 특집

# "불교계 3·1운동 선도역할 했다"

## 기미년 당시 전국 사찰스님들 독립투쟁 주도
## 일제강점전후 스님·불자중심 무력저항 가열

금년은 항일민족운동의 분수령을 이룬 3·1독립운동 85주년이 되는 해이다. 그리고 올해는 일제의 사슬로부터 풀려난지 반세기를 맞이하는 해방 50년이 되는 뜻 깊은 해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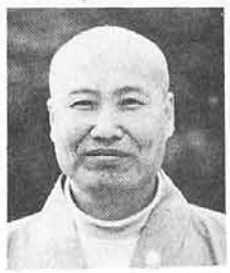
3·1독립운동 준비의 전개과정에서 불교계가 천도교·기독교와 더불어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였음은 익히 알려진 사실인데 독립운동연구자들 중에는 당시 민족대표로 참여한 스님이 두 분뿐이었다는 점을 들어 불교계가 열세였다는 주장을 하는 경우가 있다.

당시 초기 운동의 확산에는 '민족대표'가 일정한 영향을 미친 것이 사실이나 3·1운동의 확산과 심화에는 독립선언문의 배포가 결정적인 영향을 미쳤다는 점을 주목할 필요가 있다.

왜냐하면 운동 전개 과정에서 민족대표 33인은 말할 것도 없고 일제 관헌에 체포된 많은 독립시위자들이 심문을 받는 와중에 독립선언서의 배포가 촛점이 되어 피체된 사람들의 죄명도 소위 일제가 말하는 보안법과 함께 '출판법'의 위반이 이들에게 적용되었기 때문이다. 이는 독립선언서의 배포가 3·1운동의 결정적인 주요 사안이었음을 반증하고 있다. 따라서 이 부분을 중점적으로 살펴보면 이러하다.

독립선언서의 제작은 천도교에서 작업하던 보성사(普成社)에서 그해 2월20일부터 27일까지 3만5천매를 인쇄하였다.(매수는 자료에 따라 2만여매·3만매 등으로 약간씩 다르다)

독립선언서는 불교·천도교·기독교가 각 1만매씩, 그리고 나머지는 학생측이 분담 배포키로 하였다. 불교측의 배포는 만해가 책임졌는데 그는 독립선언서 1만매를 2월28일 인수하였다. 그날 밤 만해는 자신의 집에 미리 대기하고 있던 불교중앙학림 학생이자 스님인 김법린(金法麟)·김상헌(金尙憲)·백성욱(白性郁)·정병헌(鄭秉憲)·오택언(吳澤彦)·신상완(申尙玩)·김규현(金圭鉉)·김봉신(金奉信)·김대용(金大鎔) 등과 중앙학교의 박민오(朴玟悟) 등 10여명에게 그간의 경위와 앞으로의 각오를 얘기하고 독립선언서를 건네주며 서울 시내와 각 지방에 배포하도록 당부하였다.


◇일제봉스님 〈이천 지족암〉

이들은 3월1일 서울 일원에 독립선언서를 배포하고, 또 많은 불교도를 동원하여 파고다공원의 독립선언식과 만세시위에 참가하였다. 그리고 다음 날에는 출신 사찰을 중심으로 하여 김법린과 김상헌은 범어사를, 오택언은 용도사를, 김봉신은 해인사를, 김대용은 통화사를, 정병헌은 화엄사를 중심으로 독립투쟁을 실천하기로 분담하고 각기 독립선언서를 휴대하여 각 지방으로 내려갔다. 그런데 이때 지방불교계의 3·1운동에서 특기할 점은 독립선언서를 더욱 많이 다시 제작하여 배포했다는 사실이다. 즉 해인사에서 3천매를, 범어사에서 1천매를 자체 제작하여 배포하였다. 또 양주 봉선사에서는 김성숙(金星淑)이 통표 스님들과 함께 2백여매의 독립문서를 작성하여 인근 촌락과 시장에 살포하였다.

이상의 사실에서 알 수 있듯이 3·1운동 당시 불교계는 ①독립선언서의 배포 부분과 ②전국적인 각 지역별 만세시위의 주도 등의 면에서 천도교·기독교와 더불어 주요한 핵심 3대 세력의 하나로서 3분의 1이상 기여하였음이 입증·평가된다. 그런데 흑자들중 '민족대표'가 두 분뿐이었다는 사실만으로 3·1운동시 불교계가 열세였다거나 그 기여도를 폄하하는 시각은 시정되어야 마땅하다.

불교계의 항일투쟁은 3·1운동을 분수령으로 삼아 그 이전과 이후로 나뉘어 살펴본다면 대략 이렇게 말할 수 있다.

의병항쟁기(1905~1909)에는 양주를 중심으로 승려출신의 의병장 박순근(朴順根, 1872~?)이 무장투쟁을 하였고, 경봉 김재홍(鏡峰 金在弘, 1885~1969, 건봉사 재적승)은 1908년 전북 무주에서 일본군과 교전하는 등 항일투쟁을 하다가 승려가 되었다. 응송 박영희(應松 朴暎熙, 1892~1980)는 1908년 소년 의병으로 전남 완도·해남등지에서 활동하다가 승려가 되었고, 출가 후에는 3·1운동과 만주의 항일무장투쟁에 참여하였다.

한일병합 후에는 우리 나라 최초로 불교사전을 편찬한 운허 용하(耘虛 龍夏, 1892~1980)스님이 대동청년단과 만주에서 동포 자녀들의 교육과 무장투쟁에 헌신하였다.

3·1운동이 일어나기 바로 전해인 1918년 10월에는 제주도 법정사(法井寺)의 김연일(金蓮日)·방동화(方東華)등 10여명의 스님들이 불교신도와 주민 4백여명을 동원하여 격렬한 무장항쟁을 벌였다. 이 사건은 3·1운동 6개월전에 불교계 스님들의 주도로 이루어진 주목할만한 항일투쟁이었다.

3·1운동 후에는 항쟁에 참여했던 김법린·백성욱·이종욱 등의 많은 스님들이 한성임시정부와 상해임정의 독립투쟁에 투신하였고, 정남용·송세호스님은 대동단과 상해임정의 국내 연통부에, 그외고 백초월스님은 비타협적 항일투쟁을 하다가 일경에 체포되어 감옥에서 옥사하였다.

또한 3·1운동에 의해 민족적 자주의식에 눈뜬 청년승려들은 조선불교청년회와 그 별동대인 불교유신회를 결성하여 사찰령 철폐운동·주체적인 총무원 결성·친일 주지들의 전횡 방지·비밀 항일 단체인 만당(卍黨)의 조직 등으로 이어져 1920~30년대의 항일투쟁으로 연계되었다.

우리나라의 독립운동사에서 여타 분야도 그러하였지만 불교계에 있어서도 3·1운동은 계속적인 항일독립투쟁을 촉진시키는 중요한 계기가 되었던 것이다.

### 일제하 불교 법난사 〈1877~1945〉

▲1877. 일본승려들 조선 침투.
▲1895. 일련종 승려 사노(佐野前勵)의 건의에 의해 조선승려 도성출입금지 해제.
▲1906.11. 통감부령 제45호로 「종교의 선포에 관한 규칙」 반포.
▲1910.6. 원종(圓宗)의 종정 이회광, 일본 조동종과 연합맹약.
▲1911.6.3. 사찰령 반포.
▲1912.1.19. 묘향산 보현사에서 일본승려 길천(吉川大航)을 주지후보로 선정, 수속서류를 평북 도지사에게 제출했다가 이를 퇴각당한 후, 다시 배영해스님을 주지로 선정해 승인받음. △6. 총독부가 사찰령을 반포, 원종과 임제종 간판을 철거함.
▲1915. 강대련, 30본산 연합사무소의 위원장이 되면서 조선불교계 종권 장악.
▲1917.6.11. 본말사법(本末寺法) 제47조를 개정해 천장절축일(天長節祝日), 일본 명치천황의 강탄회(降誕會), 등극회, 등하회(登遐會) 등을 삽입.
▲1913. 충남 대본산 마곡사 관내 사찰들은 '마곡사 본말사법'을 본사로 환송하고 복종하지 않음. △3.30. 30본산주지회의, 절안에서의 처자 동거와 부녀자 숙박 금지.
▲1919.11. 강대련, 일제 각급기관에 친일·비불교적인 〈조선불교기관 확장의결서〉 제출.
▲1920. 3대 총독 사이또, '일본인과 조선인의 제휴로 불교적 사회운동을 일으키자'는 내용의 〈종교적 사회운동〉 작성.
▲1921. 한용운과 북암, 김상호, 정맹일, 강신창 등의 스님들이 조선불교유신회를 결성, 일제의 사찰령을 정면으로 비판하고 나섬.
▲1922.1.9. 조선불교유신회, 조선불교총회에서 30본산연합제규를 폐지하고 총무원 설립. △유신회를 반대하는 친일본사 주지들이 용주사에서 회의를 열고 별도의 총무원을 설립. △3.24. 조선불교유신회, 각황사에서 제1회 총회 개최. △3.26. 각황사에서 '주지성토 강연회' 개최. △4.21. 불교유신회 회원 2천2백명이 연명으로 날인, 사찰령 폐지와 통일기관 설치를 요구하는 건백서를 총독에게 제출. △교무원측 친일본사 주지들, 중앙학림 강제 폐교.
▲1924.1.6. 불교유신회 사찰령 폐지 요구. △총무원, 친일성향의 중앙교무원에 통합당함.
▲1925. 남산에 일본신사의 총본산격인 조선신궁 완공.
▲1926.3~9. 백용성스님, 총독부와 일본 내무성에 조선승려의 '대처·식육금지 건백서' 발송. △사법(寺法)중 주지의 '비구계 구족' 조항을 삭제.
▲1930.5. 어용단체인 '오대산 적멸보궁찬양회(회장 박영효)' 결성.
▲1932.1. 한용운스님, 〈불교〉 제91호에 〈사법개정에 대하여〉란 글을 통해 사찰령과 사법에 대해 비판.
▲1937.7.26. 종교교화단체연합회가 주최한 시국강연회에서 불교측 대표로 권상로가 친일강연을 함. △8.5. 개운사에서 중국을 침략한 일본군의 승리를 기원하는 '무운장구 기원법요' 거행. △8.6. 이종욱의 사회로, 권상로 대은스님 김태흡 등이 친일강연회 개최. △8.8~9.30. 이종욱, 임석진, 황금봉 등 중국 화북지역으로 출동하는 일본군을 위한 환송행사를 54일동안 23회나 치름. 중일전쟁기간에 국방헌금과 위문금을 모금함.
▲1938.4. 교무원, 일제의 국가총동원법에 발맞춰 '국민정신총동원 조선연맹'에 발기인 단체로 참여.
▲1940.1.1. 〈불교시보〉에 일본왕 부부사진과 함께 '흥아성업건설의 신춘천은 사해팔광에 보짐(普霑)'이란 친일기사 게재. △김삼도(金三道), 우영(宇英)이란 필명으로 〈신불교〉 제20집에 '황기 260년을 맞이하여'란 친일 권두언을 기고. △권상로, 친일시사문 「시국하 조선불교도의 임무」를 〈신불교〉 제25집에 게재. △11.10. 31본사 주지중 각 도에서 대표자를 추천, 일본 황기 2천6백년 기념식에 참석시킴.
▲1941. 이종욱 등의 친일승려들, 총독부의 협조로 어용화된 조선불교 조계종 총본산 만듦.
▲1942.12. 금강산 유점사 함북 포교당인 약수사 신도와 스님이 중일전쟁 전몰장병위령제 및 대동아전쟁 완수 등(同) 육해공군 무운장구 및 전사충령위령법회를 거행 후 법종 1구를 국방기자재로 헌병대에 헌납함. △5.16. 일제 관료와 조계종 종무총장의 독촉을 받은 조선사찰들이 쇠붙이나 유기, 청동으로 제작된 불교용품 대다수를 무기용 국방자재로 헌납.
▲1945.11.2. 미군정, 구법령인 사찰령의 존속을 규정.

※94년도 승가 誌에 실린 해봉스님 논문에서 발췌

연구논문 3편 발표 일제하 불교관련 인터뷰

## 청년운동이 총본산 건립 기반
### "자료부족·기존연구미약·학계편향시각 극복할터"



김광식 씨

일제시대의 불교와 관련한 논문을 왕성하게 발표하고 있는 김광식씨(한국독립운동사연구소 책임연구원).

그는 최근 '일제하 선학원의 운영과 성격'(한국독립운동사연구 제8집 별쇄본)과 '조선불교청년회의 사적고찰'(한국불교학 제19집)을 발표한데 이어 곧 발간될 한국독립운동사연구 제10집에도' 일제하 불교계의 총본산 건립운동과 조계종'이란 논문을 발표한다. 김씨는 논문 '일제하 선학원의 · · · '를 통해 선학원의 창설과정과 침체, 재건, 변질등을 다뤄 주목받았다.(본지 15호기사참조)

또한 '조선불교청년회의 사적고찰'은 이 분야에 대한 연구가 미약한 토대위에 발표돼 일제하 불교청년운동의 전모를 밝히려는 학문적 단초를 마련했다는 평을 들었다. 김씨는 이 논문에서 조선불교청년회의 창립활동, 침체와 재기등을 다뤘다.이같은 연구의 접근은 철저히 역사적 안목에서 이뤄졌다는데 의의를 둘 수 있다. "조선불교청년회가 1920년 창립때부터 31년까지 보인 일제의 사찰정책을 극복하고 불교의 혁신을 기하기위한 노력을 경주한 것은 한국 근대 불교사상에서 그 의의가 적지않다"는 김씨의 견해는 "그 운동의 전신은 조선불교선교양종승려대회와 총본산 건설운동의 기반이 되었던 것"으로 귀추되고 있다. 이 같은 김씨의 연구는 앞으로 일제하의 청년불교운동에 대한 연구범위의 확대로 이어질 전망이다.

'일제하 불교계의 총본산 건설운동과 조계종'은 1930년대 초반 질곡의 역사속에 불교계가 처했던 상황에 천착, 총본산 운동의 전개 과정과 일제의 획책과정을 밝혀낸 논문. 김씨는 이 논문을 통해 1929년 조선불교청년회 출신 청년승려들의 발의로 시작된 승려대회에서는 불교계의 대표기관인 종회와 교무원을 탄생시키고 종헌을 완성시킨 일련의 과정과정을 세밀히 분석했다. 이어 총본산 건설운동의 본격화로 1937년 2월말 이후 총본산의 사격(寺格)을 위해 태고사를 정한 과정까지를 밝힌 것이 논문의 요지이다.

일제하의 불교에 대한 연구를 하는 과정에서 김씨는 몇가지 넘어야할 벽을 만났다고 말했다. "우선 친일·항일이라는 구조속에서만 당시의 불교를 보려는 시각을 벗어나 역사적 상황속에서 전시대적으로 파악해야 한다는 것을 새삼느끼게 됐습니다. 또한 관련자료의 빈약함과 숨기려는 역사의식도 이 분야연구에 깊을 빠는 그간의 사정이었습니다"

개항기와 일제하 그리고 광복직후와 정화운동, 현대의 법난등으로 이어지는 연속성상에서 불교가 보다 객관적으로 연구돼야 한다는 것이 김씨의 주장이다.

그는 올해에도 3~4편의 논문을 발표할 계획이다.

〈임연태 기자〉


불교의 대중화 ● 불교의 대중화 ● 불교의 대중화 ● 불교의 대중화 ● 불교의 대중화 ● 불교의 대중화 ● 불교의 대중화 ● 불교의 대중화

대 원 불교대학

• 2년제 야간, 전문과정
• 교계 최고의 강사진
• 20년 역사의
불교계 최초 전문 교육기관

"불교 대중화를 선도하는 대원불교대학이 신입생을 모집합니다"

1. 모집학과: 불교학과 { 출강과정 ○○명 / 통신과정 ○○명
2. 지원자격: 불교를 배우고자 하는 자
3. 전형방법: 서류전형후 개별통보
4. 원서교부 및 접수기간 1995년 2월말일까지
5. 교 과 목: 주5일 수업

| | | | | | | |
|---|---|---|---|---|---|---|
| 1학년 | 1학기 | 불교학개론 | 선종사상 | 한국불교사 | 인도불교사 | 불전개설 |
| | 2학기 | 불교입문 | 화엄사상 | 밀교사상 | 법화사상 | 정토사상 |
| 2학년 | 1학기 | 의식이론 | 반야사상 | 포교방법론 | 불교미술 | 유식철학 |
| | 2학기 | 의식실수 | 불교상담학 | 불교복지론 | 종교사및종교학 | 원전강독Ⅰ |

6. 특기사항: 졸업후 소정의 법사고시를 거쳐 법사호 수여
※ 기타 상세한 사항은 본교로 문의바람

대원불교대학 ▌ 140-190 서울 용산구 후암동 358-17
전화 : 776-7156, 773-9171, 754-1613 팩스 : 756-7258

대원불교대학 · 대원불교대학 · 대원불교대학 · 대원불교대학 · 대원불교대학 · 대원불교대학 · 대원불교대학 · 대원불교대학 · 대원불교대학 · 대원불교대학 · 대원불교대학 · 대원불교대학 · 대원불교대학 · 대원불교대학 · 대원불교대학 · 대원불교대학 · 대원불교대학 · 대원불교대학

# 3·1절 특집

### 3월1일 아침에 만난 사람

만해스님 외동딸 **한영숙**보살

# "창씨개명 물으면 목침 던지셨죠"



◇만해스님 외동딸 한영숙보살



◇심우장 전경(서울시 기념물 7호).

서울 성북구 성북2동 222~1 심우장(尋牛莊·서울시 기념물 7호). 지금 그곳에는 만해스님의 외동딸 韓英淑(승련화·61)보살이 살고 있다. 마당에 살림집을 새로 짓고 가족과 함께.

한보살은 사진속의 만해스님을 많이 닮았다.

"외골수이셨죠. 학생들이 많이 찾아왔는데 창씨개명에 대해 얘기하면 목침이 날아갔고 당장 내쫓았어요. 주로 사랑방에서 원고 쓰시고 손님이 오시면 술을 같이 드셨어요. 외출하실 때는 단장을 짚으셨고, 사진찍기를 싫어하셨어요."

한보살이 11살까지 본 아버지 만해스님에 대한 기억이다. 그는 또 늘 주무시고 가시던 만공스님의 세숫물 떠드린 어린날을 떠올렸다.

한영숙씨는 혼자 마당에서만 놀아야 했다. 일본경찰의 감시와 아이들과 어울리는 것에 대한 부담 때문이었다. 그는 학교를 안다니고 집에서 한문과 수학 그리고 붓글씨 등을 배웠다.

해방후 가호적을 만들어 국민학교 3학년에 편입하였다. 이화여고에 입학했으나 6·25로 인해 다른 학교를 다녔다고 한다.

심우장과 나이를 같이하는 한영숙보살. 鄭宅根씨와의 사이에 2남1녀를 두어 모두 결혼시켰다. 그의 모친은 외손주 셋을 다보고 세상을 떴다.

## '향나무'가 나라사랑 부담줘요

"공약삼장, 신학구과 나오기 전에는 쓰신걸로 돼있었죠. 그분(만해스님)은 나타내는 성품이 아니셨고, 자손이라도 번창해야 밝힐텐데요. 직접 아는 분은 다 돌아가셨으니 이제 할 수 없죠. 지금도 김관호선생님은 그 얘기만 나오면 펄펄 뛰셔요. 옆에서 모셨기 때문이죠."

한영숙씨는 '공약삼장'을 누가 썼는가에 대해 답답했다. 우리네 삶에 뭐그리 대수로울 일이 있느냐는 듯.

그는 만해스님 일대기가 소설화되고, 연극·TV드라마로 공연돼도 본 일이 없다. 이유는 고증을 거치지 않고 '만들은 것'이기 때문이라는 것.

"독립유공자 가족이라고 뭐 특별한 가요. 오히려 그런 정신을 이어 나라사랑을 해야죠. 저도 정신적 부담감이 큽니다."

대지 138평에 건평13평의 심우장. 만해스님이 글을 쓰던 사랑방에는 유품 한점 없다. 초상화 액자는 금이가 있고, 분향대가 을씨년스럽기만 하다.

소나무가 유난히 많았다는 달동네. 심우장의 개나리 울타리와 싸립문은 현대화 되어 있다. 방·광·목욕탕과 변소가 있던 아래채 자리에는 새 건물이 벌채로 앉아있다. '卍海先生手植松'이란 팻말을 달고 있는 향나무와 대문옆 소나무가 '심우장의 정신'을 대변하듯, 독야청청 하듯 서있다.

〈貞〉

### 만해사상연구회 전보삼회장



"광복 50주년이 되는 올해는 그간의 활동을 발판으로 만해정신 구현과 확산을 위한 만해기념관 확장사업에 주력할 계획입니다."

민족 정신사에 사표가 되는 만해 한용운 스님의 민족독립정신·불교정신·문학정신을 연구 정리하여 민족정신의 올바른 지표를 확립코자 노력해온 만해사상연구회 전보삼회장(신구전문대 교수)의 다짐이다.

"30년전 학생 때부터 만해스님의 시와 생각과 철학이 좋아 평생을 바쳐 만해사상을 연구하고 있다"는 전교수는 지난해 520평의 부지를 매입, 만해기념관 확장공사에 더욱 박차를 가하고 있다. 또한 올해 8·15 광복50주년을 기념해 성북구청과 함께 「만해스님 특별 기획전」을 준비중이며, '제3기 만해학교' 개설(7월)과 〈한용운사상연구〉 제4집 발간 및 학술발표회를 계획하고 있다.

## "만해기념관 확장공사 박차"

만해스님의 정신세계의 도량인 설악산 백담사 및 오세암, 금강산 건봉사와 남한산성 만해기념관에서 각각 3박4일간 진행되는 만해학교는 「님의 침묵」 등 만해스님의 시(詩)세계를 조명하는 강좌, 백담사·건봉사에서 스님이 연구한 서구사상 해설, 「불교유신론」설명및 토론등으로 꾸며져 있다. 전교수는 "시낭송회등의 '만해의 밤' 축제, 만해 일대기 슬라이드 및 다큐멘타리 영상자료 상영등의 프로그램을 마련, 현장교육을 통해 만해사상을 총체적으로 체험할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지역사회에 만해사상의 구현과 보살정신의 실현을 위해 개포아파트 2단지 '작은 도서관' 관장을 맡아 즐겁게 일하고 있다"는 전교수는 올해 2월 만해사상의 고향인 강원도를 중심으로 간행되는 월간 「영동불교」의 주간을 맡아 왕성한 활동을 펼치고 있다.

〈재〉

# 만해연구 "문학에 치우쳤다"

◇만해스님 관련 연구현황(1926~1994년)

| 분 류 | | 분 포 | | 총 계 |
|---|---|---|---|---|
| 문학일반 | 시 | 142편(32.4%) | 213편(48.4%) | 438편(100%) |
| | 소 설 | 7편(1.6%) | | |
| | 문학사상 | 64편(14.4%) | | |
| 사상일반 | 불교사상 | 81편(18.5%) | 123편(28.1%) | |
| | 민족독립사상 | 28편(6.4%) | | |
| | 사회사상 | 14편(3.2%) | | |
| 전 기 | | 94편(21.5%) | | |
| 기 타 | | 8편(1.9%) | | |

만해(卍海) 한용운(韓龍雲;1879~1944) 스님의 불교사상·독립운동보다 문학관련 연구가 훨씬 많이 이뤄진 것으로 나타났다.

본지의 조사에 의하면 1926년부터 지난해까지의 만해스님 관련문헌은 모두 440여편인 것으로 집계됐다. 이번 조사는 동국대 불교학자료실과 만해사상연구회가 엮은 「불교독립운동자료 2」와, 〈한국불교총람〉의 「도서·논문 목록」, 〈한용운 시의 비평적 연구〉 부록 「한용운 관계문헌 발표연대별 목록」을 모두 참조해 이뤄졌다.

이번 조사에 따르면 만해스님의 시(32.4%)와 소설(1.6%), 문학사상(14.4%)을 포함한 한용운 문학일반에 관한 문헌이 약 48.4%로 전체의 절반가량을 차지해 만해스님에 관한 연구가 대부분 문학일변도로 진행되고 있음을 보여줬다. 특히 만해스님의 '시'에 관한 연구가 32.4%를 차지해 만해 연구자들의 높은 관심을 보여줬다.

반면, 만해스님의 불교(혁신)사상은 18.5%를 점유, 상대적으로 낮은 관심을 보였고 민족·독립사상(6.4%)과 사회사상(3.2%)을 포함한 만해사상일반에 대한 연구는 28.1%에 그쳤다. 이밖에 만해 일대기에 대한 연구가 21.5%, 기록·서지등의 기타 연구가 1.9%로 나타났다.

만해스님에 관한 연구가 불교사상, 민족독립사상 등 사상일반에 대한 연구보다는 문학과 시사상 연구와 만해 일대기 연구에 치중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한용운 문학에 대한 연구는 이제 바닥이 났다"는 한 학자의 말은 그만큼 한용운 문학에 대한 연구가 질과 양면에서 대단한 성과를 거두었음을 보여준다. 이같은 결과는 역설적으로 만해스님에 대한 연구방향을 그의 문학에서 사상, 특히 '불교사상'으로 전환해야 할 때임을 암시하고 있다.

한용운 관련 문헌중 75년도부터 나온 박사학위논문은 △한용운 시의 정조 연구/윤석성(동국대) 등 15여편에 달하고 있으나 대부분이 만해스님의 시문학을 조명하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또한 약 34편의 석사학위논문은 시(61.8%)를 포함한 문학사상이 70.6%를 차지해 역시 만해 문학에 대한 높은 관심을 보여주고 있으나, 지난 80년대부터 불교사상을 조명한 논문이 하나 둘씩 나오고 있다.

〈김재경 기자〉

## 지상상담 — 길을 묻는 이에게

독자문의를 받습니다. 불법을 공부하는 중에 특히 신행에 관해 의심이 나거나 궁금한 점이 있으면 서신·팩스로 보내주십시오. 접수되는 순서대로 응답해 드립니다. 이 지상상담은 조계종 한마음선원 대행스님께 묻고 답을 들어서 편집자가 정리, 게재하게 됩니다.

보낼곳: 110-170 서울시 종로구 견지동 110- 33 현대불교신문사
전화: (02)722-4162 팩스: (02)737-0698

### 화두를 하나 주십시오

**문** 스님께 화두 하나를 청합니다. (대전 대덕구 오정동·정춘근)

**답** 육근, 육진, 육식이 쉴 사이 없이 찰나찰나 화하며 돌아가는 그 자체가 화두입니다. 화두를 이미 들었는데 또 화두를 달라하시는군요.

### 평소 잡념이 많아 걱정입니다

**문** 나름대로 공부를 해 보려고 애를 쓰고 있습니다만 평소 잡념이 많아서 잘 되지를 않습니다. 이 잡념을 어찌해야 합는지요. (서울 종로구 경운동·이복례)

**답** 살아있는 사람이 이것 저것 생각하게 되는 것은 너무나 당연하지요. 그런데 그걸 잡념이라고 보시는군요. 사람이 생각을 못하면 그거 목석아닙니까?

제 생각을 잡념이라해서 애써 지우려하지 마시고 바로 그것을 공부의 재료로 삼아야 합니다. 그 잡념이라는 것은 누가 일으키는가, 어디서 나오는 것인가. 그걸 공부재료로 생각하지 않고 잡념이라 한다면 공부 길은 점점 좁아지기만 할 것입니다.

### 천도는 무엇을 제도하는 것이죠

**문** 사람은 육신이 무너지면 더 이상 공부를 할 수 없고 업식에 따라 윤회의 길에서 헤어나지 못한다고 들었습니다. 그렇다면 천도란 무엇입니까? 육신 떨어진 중생을 어떻게 제도할 수 있는지요. (마산시 합포구 남성동·정해덕)

**답** 육신이 떨어진다해서 마음의 근본마져 없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지금 살아가면서 부딪히고 경험한 것들이 낱낱이 자동적으로 입력이 되고, 과거에 입력된 것이 오늘에 되나오곤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몸 속에는 일체의 악업·선업이 채곡채곡 쌓여있다고 말하는 것인데 과거에 입력된 것에다 현실에서 달리 입력한다면 옛 업장이 무너지는 도리도 있습니다.

천도란 체가 없는 업식, 말하자면 몸은 없어도 입력된 채 남아있는 마음작용에 영향을 미치는 것을 말합니다. 사람이 죽어 몸을 버렸지만 마음은 과거에 살던 습대로 체가 있는 줄 알아 이미 벗어났음에도 불구하고 물·불을 두려워하고 악업·선업에 발이 묶이게 됩니다. 옛날 어떤 사람이 친구가 죽었는데 살펴보니까 그 친구가 개구리 소굴로 들어가려는 찰나였답니다.

그래서 길을 막고 호통을 치니까 자기는 고래등 같은 기와집이 보여서 들어간다는 겁니다. 천도란 일체가 공한 도리를 알려주어 생전의 업식에 끄달리지 않도록 인도해 주는 것을 말합니다.

### 극락은 어디에 있는지요

**문** 어떤 친구에게 제가 말하기를 '극락은 네 마음안에 있다. 평상시에 편안한 마음으로 사는 사람들은 죽어서도 극락에 간다' 했더니 '극락이 어디있느냐?'고 물었습니다. 범천세계 어디쯤에 극락이 있는지요? (충남 서산군 대산읍·김두룡)

**답** 범천이 따로 있는게 아닙니다. 이 세상에 지옥도 있고 범천도 있고 천당도 있습니다.

세상살이를 눈여겨 보세요. 잘못을 저지르면 불잡혀 가기도하고 마음으로 죄진 대가를 치르며 살아야하니 그것이 바로 지옥이나 다름없겠지요. 반면 편안한 마음으로 바른 신행생활을 한다면 같은 생을 살아도 앞사람의 경우와 비교가 되겠습니까. 모든 굴레로부터 자유로울 수 있다면 그건 극락인 셈이지요. 친구의 질문을 받고도 스스로 모르니 답을 하지 못했을 것이고, 내 자신이 누구인지를 모르고야 어찌 대답인들 함부로 해줄 수 있겠습니까? 부처님의 가르침을 열심히 공부하기 바랍니다.

### 체험은 공부에 따라 다른지요

**문** 몇사람이 모여서 불법을 공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떤 친구는 공부중에 관세음보살님을 친견했다고 하고 또다른 친구는 제 몸이 붕~ 뜨는 것같은 체험을 했다고 합니다. 그런 체험을 한 사람과 못한 사람의 차이는 공부의 정도에 따라 다른 것인지 무척 궁금합니다. (광주 서구 쌍촌동·백성여)

**답** 관세음보살을 보았다해도 집착해선 안되고 특이한 체험을 했다해도 그것을 놓아야 합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실상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모든 것은 내 마음속에서 빚어내는 말하자면 어떤 모습 현상으로 보인다 하더라도 내 몸 속에 잔뜩 쌓여있는 업식이 모습으로 화해서 나타나는 것이니 나온 자리에 다시 맡겨 놓아야 바른 공부길이라 할 것입니다.

땅에서 엎어지면 엎어진 자리를 딛고 일어서야 하는 것과 같습니다.

공부가 더 되고 덜 되고의 문제가 아닙니다. 경계가 다가오면 다가오는대로 업식 가운데서 수없이 나오는 것이니 이건 좋은 조짐이다, 아니 이건 나쁜 징조다 하는 생각까지도 다시 되놓아야 합니다. 일심에서 만가지 법이 나오는 것이니 일심에 다시 놓고 일심아닌 일심을 참구해야 합니다. 공부의 늦고 더딤을 안타까워하는 그것마저도 놓으십시오.


옷어야 하는 이유 ①

## 웃음은 명약

웃음은 명약(Laughter, the best medicine)!」 리더스다이제스트의 가장 인기있는 컬럼의 제목입니다. 왜 웃어야 하는지, 그 핵심을 한마디로 찌른 명언입니다.

사람의 몸은 면역체, 호르몬, 신경계가 서로 긴밀한 관계를 맺어 외부에서 유해한 병균이 침입하지 못하도록 하고, 몸에 생긴 병을 치유케 합니다. 그것을 증명한 이런 실험이 있습니다.

약 20년전 미국 항공우주국 의료반에서 우주 비행사의 혈액을 검사했습니다. 그 결과 그들이 지구에 돌아온 직후(정신적 충격을 받은 후)에는 면역세포의 일종인 백혈구가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 몇 년 후, 미국의 솔몬이라는 사람은 비통한 마음이 건강을 해친다는 가설을 동물실험으로 증명했습니다. 그는 쥐를 두 무리로 나누어 우리 속에 넣고, 한 무리에는 심리적 스트레스를 준 뒤 암세포를 심고, 다른 무리에게는 스트레스를 주지 않고 암세포를 심었습니다. 그랬더니 쇼크를 받은 쥐들에서는 암세포 증식 속도가 빨리 나타났습니다.

사람의 마음이 면역계와 밀접한 관계를 가지고 있음이 틀림없습니다. 웃음이 명약이 되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웃어야 하는 이유를 이렇게 말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웃어라, 내일은 더 괴로울 테니까!」

*웃음 못지 않은 명약, 질좋은 된장은 면역력을 길러줍니다*

**인산죽염된장**

전화주시면 댁까지 보내드립니다 ☎736-3171

옷어야 하는 이유 ②

## 웃음이라는 항암제

일본 오카마현의 병원 의사인 이타미 박사는 이런 재미있는 실험을 했습니다.
성인 남녀 19명을 극장에 초대하고, 코메디를 보여주어 3시간 동안 배꼽이 빠지도록 웃게 한 뒤, 이들의 혈액을 채취하여 면역기능의 변화를 조사했습니다.

이 조사는 흔히 암에 대한 저항력을 나타내는 혈액 중 NK(Natural Killer)세포의 활성도가 어떻게 변화하는지를 알기 위해서 행해 졌습니다. NK세포가 활성화 될수록 암에 대한 저항력이 강해진다고 합니다.

그랬더니 정상인에서는 수치의 변동이 없었으나, 활성도가 낮은 사람의 수치는 거의 정상수준으로 올라갔습니다.
웃음은 단지 기분을 좋게 할 뿐만 아니라 체내의 면역기능에 좋은 효과를 가져 오는 것입니다.

이 웃음으로 말할 것 같으면, 현재 암 치료에 사용되고 있는 면역요법제보다 속효성이 더욱 크다고 합니다.
웃는 다는 것, 그것도 소리내어 마음껏 웃는 것은, 곧 암에 대한 저항력을 높이는 것을 말합니다.

그리고 한가지, 비관적인 사람일수록 암환자가 많다는 것!
분명한 사실입니다.

*웃음만큼이나 좋은 항암식품*

**인산죽염된장**

150년을 잇는 신토불이 건강의 맥 仁山家

## 한민족 정통 신선도 수련법



회원모집: 수시접수 (영구회원 접수중)
수련과정: 단전호흡법, 철산법, 신선기공 36동작, 생식법, 벽곡법, 토굴에서 생활하는 법, 단식법
문의전화: (02) 735-6795 · 6796 / FAX (02) 730-9298
서울 종로구 인사동 4-2 중원 B/D 4층

한국 신선도 협회
회장 이해창(성오) 합장

## 나무대자대비 관세음보살



35×70cm 수묵관음도

관세음보살이 이땅에 나투심은
일체중생 번뇌를 멸하여
성불의 연을 지어가게 함입니다.
자비의 화신 관세음보살을 가정마다 모시고
우러러 예경하면 불심 증장과 함께
최상의 복락을 누리게 됩니다.

이 관음도는 금산스님(대구예인협후대작가이 한점씩 정성들여 그리시고 청소년 포교기금 마련 및 불화모시기 운동전개를 위해 염가 보급하오니 많은 동참바랍니다.

●구입문의 : 02) 841-7165
●보급처 : 불교교육연구원 · 대동불교예술대학 후원회
서울시 영등포구 대림1동 885-5

## 다시 푸는 경서 — 치문경훈 (3)

### 潙山大圓禪師警策(위산대원선사경책) ③

或掇輕言 便責後生 無禮
혹피경언 변책후생 무례
嘖心忿起 言語殺人
진심분기 언어해인
一朝臥疾在牀 衆苦萃躬 通自
일조 와질재상 중고영전립박
曉夕思惟 心裡煩惶 前路茫茫 未知何往
효석사촌 심리회황 전로망망 미지하왕
從茲始悔過 臨渴掘井 委爲
종자 시지회과 임갈굴정 해위
自既早不豫修 年晩多諸過咎
자한조불예수 년만다제과구
臨行 抽刺 抱持懊惶
임행 휘곽 파포장황

혹 업신여기는 말을 듣게되면 곧 꾸짖기를 '후생이 무례하다' 하며 화를 벌컥 내면서 말로 억누르려 한다.

(그러다가) 하루 아침에 병들어 자리보전하고 온갖 고통에 얽혀 심신이 몹시 괴로우매

아침 저녁으로 헤아려 보아도 마음 속은 어지럽고 두려운지라 앞길이 아득하여 어디로 갈지조차 모르게 된다.

이에 이르러 비로소 허물을 뉘우치게 되나니 목이 말라서야 샘을 파는 격이니 이를 어찌 할 것인가.

일찍부터 스스로 미리미리 닦지 아니하고 늑마에 허물 많은 것을 한스럽다 하나니

所恨 同生像季 去聖尙遙
소한 동생상계 거성시요
佛法生疎 人多懈怠
불법생소 인다해태
略伸管見 以曉後來
약신관견 이효후래
若不錄斤 誠難輪道
약불견긍 성난윤과

한탄스러운 것은 그대들이나 나나 상법·말법 시대에 태어난 것이라 부처님 멸도에 드신 지 오래이며 불법은 생소하고 사람들은 많이 게으르매 간략하게나마 좁은 소견 펼쳐서 후학들을 깨우쳐 보고자 하노라

만약 '내로다' 뽐내는 생각 없애지 아니하면 참으로 윤회의 바퀴돌이를 면할 수 없을 것이다.

夫出家者 發足超方 心形異俗
부출가자 발족초방 심형이속
紹隆聖種 摧滅魔軍 用報四恩 拔濟三有
소륭성종 진섭마군 용보사은 발제삼유
若不如此 誠則僧倫
약불여차 탐측승륜
言行荒疎 虛消信施
언행황소 허점신시
昔年行處 寸步不移 恍忽一生 將何酬恃
석년행처 촌보불이 황홀일생 장하빙시
況乃堂堂僧相 容貌可觀
황내당당승상 용모가관
盛是宿植善根 感斯異報
성시숙식선근 감사이보

## "사욕·번뇌다스려 인천삼유 구제하라"
## 뽐내는생각 있으면 윤회굴레 못면해

죽음을 맞아서 몸 부림치며 두려워 어찌할 줄을 모르는도다.

蓑穿雀飛 誠心隨業
곡천작비 식심수업
如人負債 强者先牽 心緖多端 重處偏墜
여인부채 강자선견 심서다단 중처편추
無常殺鬼 念念不停 命不可延 時不可待
무상살귀 념념부정 명불가연 시불가대
人天三有 惡未免之
인천삼유 응미면지
如是受身 非論劫數
여시수신 비론겁수
感報歷歷 哀哉切心 豈可緘言 通相警策
감상탄아 애재절심 기가함언 체상경책

명주비단 뚫어져 참새가 날아가니(업식이 몸을 버리고 떠나가니) 식심이 업에 이끌리는 것이 마치 빚진 사람이 강한 자에게 먼저 끌려가듯이 마음의 심마리는 가닥가닥 수 없이 많건만 (생전에) 무겁게 마음 둔 자리로 (한이 맺힌 자리를 말함) 치우쳐 떨어지게 된다.

무상살귀(식심이 할나찰나로 변함을 뜻함)가 생각 생각마다 머물지 않나니 명은 가히 늘리지 못하며 때는 기다리지 않는지라

욕계·색계·무색계(인천 삼유)를 돌며 다시 태어남을 면치 못한다.

이와같이 몸 바꿔 돌고 돈 세월, 그 겁수는 논할 수도 없도다.

가슴 쓰리고 한 숨 짓고 애간장 끓이나니 어찌 입을 다물고서 서로 경책할 수 있으리오.

便懈惰然拱手 不責寸陰
변의타연공수 불귀촌음
事業不勤 功果 無因克就
사업불근 공과 무인극취
豈過一生空過 抑亦來業無殃
기과일생공과 억역래업무비

무릇 출가한 이는 발길을 옮겨 세상을 뛰어넘고 마음과 모양새(행동거지)도 세속과 달리하며 불법을 이어 융성케하고 온갖 마장경계를 다스려 조복을 받으며 (나아가) 네가지 은혜에 보답하고 인천 삼유를 남김없이 구제하여야 한다.

만약 이와같이 하지 아니하면 외람되게도 승려 무리에 끼어들었을 뿐 말이 거칠고 행주좌와 위의가 가즈런하지 못하면서 헛되이 신심어린 시주만 나눠갖고 옛 성현들이 갈고 닦은 자리에는 촌보도 다가가지 않으면서 정신없이 한 생에 보내니 장차 무엇을 의지하고 믿을 것인가. 그럼에도 삭발염의한 겉모습만은 당당하여 가히 불만한지라.

이는 다 숙생에 선근을 심어 이에 감응한 과보인데,

(거기에만) 의지하여 손을 잡아매고(닦을 생각 않고) 촌음을 귀히 여기지 아니하니

부지런히 닦지 않으면 끝내 불과를 이룰 인연이 없으매

어찌 한평생 헛되이 보내리오. 그래서야 다가올 업연 또한 그대를 돕지 못하리라.

龍眼

## 지상 법석

# 입만 '아미타불' 외우고

## 수산스님
〈염불선원 조실〉

약 력
- 1906. 2. 20 경남 生
- 52년 효봉스님 은사로 득도
- 56년 비구계 수지
- 86년 불교노인대학설립
- 저서로 〈정토지남〉 〈수행요집〉 〈염불법문집〉 등 다수.



나무아미타불 나무아미타불 나무아미타불.

시방삼세 부처님 중 아미타불 이제일이시라.

구품 연대로 중생을 제도하사 위엄과 덕이 한량 없으시다.

제가 이제 크게 귀의하여 몸과 입과 뜻을 참회하오며 지은바 복과 선은 지극한 정성으로 정토에 회향합니다.

염불하는 사람과 한가지로 극락에 왕생하여 부처님을 뵈옵고 생사를 요하며 부처님과 같이 중생을 제도하기를 원하옵니다. 나무아미타불.

### 정성으로 정토회향

우리 인생은 생사고의 어둠에서 벗어나려 수행하는 수행자의 모습입니다.

나는 오늘 사부대중에게 생사대사의 고통을 면할 수 있는 방법을 얘기하고자 합니다.

'삼계 윤회가 우물 물 퍼내는 것과 같이 백겁 천겁 만겁 미지수 겁을 지내도다. 그러니 이 몸을 금생에 제도하지 못하면 다시 어느 생에서 제도할 것인가' 하는 법문이 있습니다.

삼계라는 것은 욕·색·무색계인데 이 사바세계 전체를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 인간과 여섯 하늘을 엮어서 욕계(欲界)-욕심내는 세계라 하고, 그 위에 색계(色界)- 욕심은 없어도 물체, 즉 몸뚱이가 있는 세계라고 하는 빛깔이 있는 세계라 하고, 그 위에 또 네 하늘은 무색계(無色界)라 하여 몸뚱이가 없고 정신세계만 있는 세계를 말합니다.

근데 하늘 복은 인간에 비하면 여러 만배입니다.

수명이 길고 복이 많은 것도 복진결과라. 복이 다하면 악도에 떨어지고 삼계가 불집이라는 이유가 거기에 있습니다.

항상 여기 죽어 저기 나고, 나면 다시 죽고 생사고통을 면할 수 없다고 합니다. 더군다나 삼악도의 고통은 말할 수 없이 무서운데 지옥은 들어가게 되면 만사만생이라.

지옥에서는 하루동안에 만번 죽이고 만번 살리는 고통을 받는데 칼로 찔러 죽이고, 맷돌로 갈아 죽이고 톱으로 켜 죽이고, 기름관에 삶아 죽이고, 허물 매서 죽이고, 독사가 물어 죽이고, 얼음얼어 죽이고, 천가지 만가지가 전부 죽이는 기구뿐으로 죽이고 나면 이상한 바람이 불어 다시 송장이 되어 살아난다고 합니다.

살아나면 또 죽이고, 만번 죽이는데, 지옥은 워낙 헤가 깊어 인간 육십겁이 지옥의 일주야라 하니 전부 죽이는 기구뿐이니 얼마나 고통이 심하겠는가.

사실 우리는 지옥에 가서 이런 고통을 많이 받았습니다.

근데 이제 「지옥」에서 벗어나면 또 「아귀」가 돼 그 고통을 받는데 그 아귀는 몸은 집통만 하면서 입은 바늘구멍만 해서 물 한방울이 잘 안 넘어가고, 설령 물이 있다 하더라도 먹으려하면 금방 없어집니다. 또 밥이 있어 밥을 먹으려 하면 금방 밥이 불로 변하니 물도 못 먹고 밥도 못 먹고 항상 배가 고프고 목은 말라 있으며 업태우는 불이 전신을 태우고 있습니다.

그러니깐 아귀는 항상 울고 있지, 한시라도 편할 시간이 없습니다.

아귀업을 다 받고나면 이제 「축생, 짐승」이 돼 사는데 짐승은 지옥에 비하면 신선이나, 사람들이 서로 잡아먹습니다. 짐승끼리도 서로 잡아먹는 설리가 있어 안심하고 살 수 없는 그런 고통이 있습니다. 그리고 좋다는 「인간」세상도 나고 죽고 병들고 아프고 하는 고통을 못 면하거든.

어떻게 하면 우리는 그 고통을 면할 수 있을까.

우리 대중은 이런 고통을 받으며 천겁 만겁을 지내왔는데, 그 천겁 만겁의 일겁은 만년도 훨씬 넘는 시간입니다. 우리는 그 일겁도 모자라서 미진수겁에 걸쳐 고통을 받으며 지내왔습니다.

### 불법은 '죽지않는 법'

그러나 다행이 우리는 전생에 복을 쌓아 지금 인간이 돼 이 좋은 불법을 만났으니 이것은 무엇보다 큰 행복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근데 이 불법이라는 것은 다름이 아니라 생사를 해탈한 법, 죽지 않는 법이라.

이 불법을 잘 닦아 부처님을 잘 따라 수행하면 참선에 견성을 하던지, 극락세계를 가던지, 다시는 생사를 받지 않고 성불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지 못하고 다시 생사 윤회의 수레바퀴에 빠져 지옥에 가든지, 악도에 떨어진다고 하면 다시 여러 억천만겁으로 고생해 다시 태어나지 못합니다.

그러니 금생에 이 몸을 제도하지 못하면 어느 생에 제도했겠습니까.

금생에 잘 못해서 실수하면 일책천책이라, 한번 미끌어지면 천번가번 미끌어지는 것. 한번 잘못해 악도에 떨어지면 천번만번 떨어지게 돼 해맵니다.

그러니 금생에 어떻게 해서든 이 생사대사를 벗어나야 됩니다.

부처님이 팔만사천 법문에 많이 말씀하신 것이 모두 생사해탈 법입니다.

모두 염불해서 삼매를 얻고, 참선해서 견성하고, 복도 짓고해서 이 생사고통에서 벗어나라는 것이 모두 그런 법문입니다.

근데 그 법문을 총괄해서 말하면 자력문과 타력문 얘기라 할 수 있습니다.

자력은 스스로의 힘으로 연구하고 수행해서 깨닫는 것 입니다.


佛教聖地巡禮

"성지순례를 다녀오신 모든 이는 부처님의 미소를 닮아 있었습니다."

태국 5일
₩595,000

서울-방콕(2박)-아유타야, 방파인, 수상시장, 새벽사원, 왕궁, 에머랄드 사원, 무암보란, 황금불 사원-파타야(2박)-방콕-서울

· 출발일 : 3月 / 2, 7, 9, 14, 16, 21, 23, 28, 30

| | |
|---|---|
| 대만 5日 ₩595,000 | 서울-대북-일월담(1박)-고웅·불광사(1박)-화련(1박)-대북(1박)-서울<br>3月/1, 8, 15, 22, 29 |
| 스리랑카 6日 ₩1,070,000 | 서울-콜롬보(1박)-아누다라푸라-하바라나(2박)-폴론나루와-담불라-캔디(1박)-콜롬보(1박)-서울<br>3月/3, 10, 17, 24, 31 |
| 미얀마·태국 8日 ₩1,400,000 | 서울-방콕-양곤(1박)-파간(1박)-만달레이(1박)-양곤(1박)-페구-양곤(1박)-방콕(2박)-서울<br>3月/3, 10, 17, 24, 31 |

新春海外旅行

-최고의 여정·최상의 서비스·최대의 기쁨-

| | |
|---|---|
| 방콕·파타야 5日 ₩635,000 | 서울-방콕(1박)-파타야(2박)-방콕(1박)-서울<br>3月/1, 4, 5, 8, 11, 12, 15, 18, 19, 22, 25, 26, 29 |
| 방콕·푸켓 5日 ₩649,000 | 서울-방콕(1박)-푸켓(3박)-서울<br>3月/4, 11, 18, 25 |
| 동남아 3국 5日 ₩655,000 | 서울-싱가폴(4박)-바탐·조호바루-서울<br>3月/1, 3, 4, 6, 8, 10, 11, 13, 15, 17, 18, 20, 22, 24, 25, 27, 29, 31 |
| 방콕·푸켓·싱가폴 6日 ₩795,000 | 서울-방콕(1박)-푸켓(2박)-싱가폴(2박)-서울<br>3月/7, 14, 21, 28 |
| 하와이 5日 ₩649,000(일급) ₩699,000(특급) | 서울-호놀룰루(3박)-기내(1박)-서울<br>3月/1, 2, 4, 8, 9, 11, 15, 16, 18, 22, 23, 25, 29, 30 |
| 미국 서부 버스 7日 ₩899,000 | 서울-LA(1박)-홀랙스텝(1박)-라스베가스(1박)-후레스노(1박)-샌프란시스코(1박)-기내(1박)-서울<br>3月/6, 13, 20, 27 |
| 유럽 5개국 10日 ₩1,790,000 | 서울-영국-독일-스위스-이태리-프랑스-서울<br>3月/2, 9, 16, 23, 30 |
| 사이판 4日 ₩549,000 | 서울-사이판(3박)-서울<br>3月/2, 5, 9, 12, 16, 19, 23, 26, 30 |
| 괌 4日 ₩549,000 | 서울-괌(3박)-서울<br>3月/2, 5, 9, 12, 16, 19, 23, 26, 30 |
| 호주·뉴질랜드 8日 ₩1,270,000 | 서울-기내(1박)-골드코스트(1박)-로토루아(2박)-오클랜드(1박)-시드니(2박)-서울<br>3月/2, 7, 9, 14, 16, 21, 23 |

新婚旅行

"새로운 출발, 허니문 전담팀이 권해 드리는 일곱색깔 무지개 여정"

| | | |
|---|---|---|
| 방콕·파타야 | 5日 | ₩635,000 |
| | 서울-방콕(1박)-파타야(2박)-방콕(1박)-서울 | |
| 푸켓 | 5日 | ₩740,000 |
| | 서울-방콕(1박)-푸켓(2박)-방콕(1박)-서울 | |
| | -전 일정 비디오 촬영 무료증정- | |
| 대만(화련) | 4日 | ₩520,000 |
| | 서울-대만(화련) 3박-서울 | |
| 괌 | 4日 | ₩670,000 |
| | 5日 | ₩785,000 |
| | 서울-괌(3박, 4박)-서울 | |
| 사이판 | 4日 | ₩670,000 |
| | 5日 | ₩785,000 |
| | 서울-사이판(3박, 4박)-서울 | |
| 하와이 | 5日 | ₩649,000(일급) ₩699,000(특급) |
| | 서울-하와이(3박)-기내(1박)-서울 | |
| 호주 | 5日 | ₩860,000 |
| | 6日 | ₩899,000 |
| | 서울-기내(1박)-골드코스트(1박, 2박)-시드니(2박)-서울 | |

여행조건 10人 이상 출발(허니문은 1쌍이라도 매일 출발), 전 일정 식사 제공, 특급 및 일급 호텔 사용(허니문은 특급호텔), 해외 여행자 보험 자동 가입, 현지 가이드 동행

특전 2개월 전 예약시 5% 할인, 모자 증정, 축하 와인, 과일바구니 제공, 해산물 부페 제공

21세기를 지향하는 불교 성지 순례 전문 (주) 아 태 관 광 국외 여행업 제817호 ☎ 732-3200 (代)

지상 법석

# 일심 안되면 공덕 없어

**부처님 팔만사천 법문의 말씀은**
**모두 생사해탈 법이다. 염불해서**
**삼매를 얻고, 참선해서 견성하고**
**복도 짓고해서 생사고통에서 벗어나라는 것이다.**

## 지성심·신심·회향발원심 내면 극락정토 '눈앞'
## 삼독심 변해 자비심 되니 성불의 길 절로 열려

타력은 나의 힘이 약하니깐 다른 이의 힘을 빌리는 것을 말합니다. 그러나 타력으로써 생사고뇌를 해탈하는 것은 지극히 어렵습니다.

참선을 해서 생사해탈을 하면 '오매일여(寤寐一如)' 경지가 되고, 화두를 잘 들어 화두 한가지로 일관할 때 '정중일여(靜中一如)', 고요한 가운데 하늘 같이 됩니다.

참선은 앉아서 할 때는 잘 되어도, 일어서 일을 하던지 길을 가던지 하다가 끊겨 화두가 성립이 안 됩니다. 그때 용맹스럽게 몇만, 몇년을 지속적으로 화두를 들면 '동정일여'의 경지가 되는 것입니다. 그 경지에서는 움직일 때나 가만이 있을 때나 그 화두가 잘 됩니다.

그러나 '동정일여'가 돼도 밤에 잠잘 때 꿈에서는 딴 꿈의 세계가 펼쳐지는데 꿈에서도 화두와 염불같은 공부를 해야 합니다.

꿈에서도 한가지가 되려면 '몽중일여(夢中一如)'가 돼야 합니다.

또 꿈에서는 뭔지라도 꿈을 꾸지 않을 때는 안되는데 꿈을 안 꿀때 화두를 내버리고 자게 되는데 그때는 다시 정진해 '오매일여'의 세계로 나아가야 합니다.

그 경지에서 좀 더 지나 더욱 정진하면 또 '확연대오(廓然大悟)'가 됩니다.

확연대오의 경지에서는 번뇌가 모두 사라집니다. 또 그때는 돈오돈수가 돼 생사를 초월할 수 있습니다.

그런 경지에 가려하면 특수한 상근기가 아니면 도저히 안됩니다.

육조대사니 하는 그런 분들은 벌써 전생에서 많이 수행하고, 복을 많이 지었기에 보살이 되어 법문 한번 듣고 깨치는 것이지만 보통의 사람은 그렇지 못 합니다. 그러니 자력성불이 어렵다는 것입니다.

부처님이 '정토삼부경'을 통해 염불을 말씀하셨는데 오직 부처님을 믿고 염불하라고 했습니다.

부처님이 보리수 밑에서 성불하셔 많은 중생들을 교화하는데 정반왕이 수차례 사신을 보내 뵙기를 원하기에 정반왕의 일가와 7만의 대중이 모인 가운데 부처님이 법문하시기를 "염불해서 극락세계를 가야 성불이 빠릅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에 정반왕이 "진리를 바로 깨달으면 성불하는데 왜 하필 염불법문을 가르키십니까"하고 물었습니다.

부처님이 대답하시기를 "보통 범부로서 진여자성을 얻어 성불한다는 것은 지극히 어려운 일이기에 염불로서 성불하라고 한 것입니다"고 했습니다.

정반왕이 이어 되묻기를 "그러면 염불 공덕이 어떠합니까"하고 물었습니다.

부처님이 말씀하시기를 "지극정성으로 염불하면 극락세계에 가고 극락세계에 가면 탐·진·치 삼독심이 변해 자비심이 되고 성불합니다"고 했습니다.

지극정성으로 부처님에게 의지하고 원을 세워 실행하면 성불이 가능합니다.

아미타불의 48원(四十八願)에서 전하기를 첫째, 내 나라에 나는 이는 악도에 다시 가지 아니한다.

둘째, 내 나라에 나는 이는 육신통을 구족한다.

세째, 내 나라에 나기만 하면 모두 정정취에 들어 결정코 성불한다고 했습니다.

아미타불은 이렇게 원을 세웠습니다. 잘난 사람이나 못난 사람이나 내 나라에 나기만 하면 결정코 성불한다고.

그 때문에 시방삼세 제불중에 아미타불이 제일이라 생각합니다.

아미타불은 누구든지 아미타불을 정성으로서 믿고 열번만 부르면 아미타불 세계에 난다고 했습니다.

즉, 쉽게 얘기해 죽을 때 일념으로 나무아미타불을 부르면 극락세계에 간다는 것입니다. 이는 부처님 말씀에도 있고, 역대조사들도 증명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실천이 어려운 법, 죽는 사람이 고통이 심해 지옥세계를 헤매는데 아미타불 한번을 외기가 얼마나 어렵겠습니까? 그러니 항상 평상시에 염두해 두시고 열심히 염불하면 죽을 때와 같이 급한 상황에서도 일념하게 됩니다.

문수반야경에 보면 문수보살이 묻기를 "어떻게 하면 빨리 성불하겠습니까"하고 물었습니다. 이에 부처님이 말씀하시기를 "일행삼매 등, 한결같은 삼매에 들면 성불합니다"고 했습니다.

또 "일행삼매에 들려거든 조용한 곳에 한가이 있으면서 상호를 관하지 말고 부처님 명호를 불러 부처님을 향해 앉고 정진하면 지혜가 생겨 삼세에 부처님을 다 볼 수 있다"고 했습니다. 그러니 문수보살이 다시 "그 많은 법문 중에 어찌해야 빨리 성불하겠습니까?"하고 물었습니다. 이에 부처님이 삼매법문 즉 염불법문을 설했습니다.

염불이 그만큼 중요한 것입니다.

그 다음에는 원을 세워야 합니다. 원이 없으면 극락세계더 갈 수 없습니다.

이 원은 결정코 극락세계에 가는 원이어야 합니다. 그러나 그 원은 혼자 극락세계에 가 편하겠다는 원보다 고통받는 중생들과 함께 극락세계에 가겠다는 원을 세워야 성불할 수 있습니다.

또 행은 직접수행, 적은 복과 선근으로 극락세계에 날 수 없고 오직 아미타불 명호를 불러 일심불란하면 아미타불의 극락세계에 갈 수 있습니다.

염불도 입으로만 아미타불을 외고 생각은 엉뚱하게 쓰면 그것은 염불이 아닙니다. 즉 신념성취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부처님이 삼심(三心)을 말했는데 상기, 상품에 가려하면 세가지 마음을 가져야 합니다.

첫째는 '지성심' 지극한 정성을 드리는 마음.

둘째는 '신심' 깊이 믿는 마음.

세째는 '회향 발원심'

이 세마음을 내 정진하면 극락세계에 가도 상기·상품에 갑니다.

참선을 해도 다른 화두를 들 필요가 없습니다.

나무아미타불, 나무아미타불하고 염불하는 것도 좋은 선입니다.

지극정성으로 선을 하고 염불하면 아미타불을 보고 또 내 자성불도 볼 수 있습니다.

부처님이나 중생이나 마음자리는 똑같은 것. 우리 중생은 삼독 번뇌에 쌓여 불성을 못 보다가 염불을 하는 힘으로써 번뇌가 녹는 것입니다. 녹아지면 불성이 드러나는데. 그게 견성입니다. 견성이 곧 삼매고요.

염불 잘해 삼매를 얻으면 불생불멸합니다.

바로 열반을 증득하는 것입니다.

우리 중생들도 만년 정도 수행하면 확연대오 할 수 있습니다.

참선도 하고, 견성도 하고 정토발원하면 그것은 제일 좋은 수행입니다. 그것은 우리 보통 범부로서는 바랄 수 없는 일일 것입니다.

그러나 일념으로 수행정진하면 우리 범부도 보살이 되고, 부처가 될 수 있습니다.

믿으십시오. 믿음이 없는 수행은 아집에 빠질 뿐이니 믿으십시오. 그리하면 성불하고 부처가 되는 것 입니다.

유마경에서도 문수보살이 또 묻는데 "보살들이 제일 생사를 두려워 하는데 어떻게 해야 이 생사를 벗어날 수 있습니까?" 하니 유마거사가 "부처님 공덕의 힘에 의지해야 합니다"했습니다.

우리 대중, 초발심 보살들은 부처님 원력을 믿고 부처님에 의지해 일념하면 성불할 수 있습니다. 즉, 부처님을 오직 일념으로 믿고 원하면 삼악도의 지옥·아귀·축생을 모두 면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 일행삼매하면 성불

염불에는 신심·원력·수행의 세가지 조건이 있습니다.

첫째 '신심'이 있어야 합니다.

요새 사람들은 아만심이 있어 내 눈에 안 보이면 극락세계, 지옥이 어디 있냐고 말합니다. 이는 어리석은 생각입니다.

극락세계는 내 마음에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믿음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

과학속의 불교 — 불교속의 과학 ⑯

김 성 규



## 병의 원인과 치료

미국과 유럽에는 전생기억이 분명한 사람들을 조사하기 위하여 조직된 전문적인 연구단체가 많이 있다. 그 중 세계적으로 유명한 미국 버지니아대학의 스티븐슨 박사가 있는데, 그는 1975년까지 1,300명에 달하는 전생기억자들을 조사 수집하여 전생이 있음을 과학적으로 확증하였다. 일반적으로 전생기억은 태어나 아무런 습도 익히지 않은 상태인 어린 시절에 잘 나타난다. 상카는 1951년 7월 카나우지 시에서 태어났다. 그는 태어나면서 목에 흉터가 길게 나 있었는데 마치 칼에 입은 상처 같이 보였다. 상카는 세살때쯤 자기는 전생에 이발사 프라셔드의 아들이었는데 살해되었다고 말하면서 목에 있는 상처가 그 때 난 것이라고 했다. 1955년 상카 전생의 아버지 프라셔드가 소문을 듣고 상카가 살고있는

## 전생의 잘못된 행위서 만병이 발생

구프타 가를 찾아왔다. 상카는 프라셔드를 보자마자 반갑게 인사를 하더니 "아버지, 난 치팟테이의 학교에서 책을 잘 읽었지. 내 나무접시는 찬장 속에 들어있고 …"

프라셔드는 지금도 죽은 아들 믄나가 가지고 놀던 나무접시가 찬장 속에 들어 있음을 상기하였다. 믄나가 살해된 것은 1951년 1월 19일 상카가 태어나기 6개월 전의 일이었다.

이와같이 전생이 있다면 우리 몸에 생기는 병의 원인도 따지고 보면 전생에 자신이 잘못 행한 행위가 원인이 되어 이 생에 나타나는 것임을 알 수 있다.

삼세인과경에서도 말하는 것처럼 우리 몸에 생긴 병의 원인들을 정확하게 안다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참회함으로써 병으로부터 자유로워질 수 있다.

1. 머리에 생기는 병은 진리를 추구하는 수행자를 비방하였거나 가정에서 어른(부모, 남편, 아내)을 공경하지 않았거나 직장에서 상사를 공경하지 않았으면 머리에 고통을 받으며 몇 생을 내려오면서 계속 그렇게 하면 암이 된다.

2. 목에 생기는 병은 자기의 성품대로 자기가 하고싶은 대로 하면(상대방의 입장은 생각하지도 않고 자신의 생각에 맞지 않으면 소리를 지르고 화를 내거나 하는 것 등)목에 고통이 오고 매사가 뜻대로 되지 않으며 몇 생을 그렇게 하면 암이 된다.

3. 가슴(폐)에 생기는 병은 생활에 일어나는 사소한 것에도 짜증을 내며 다른 사람을 원망하고 싫어하는 마음이 쌓이면 가슴에 고통이 오고 몇 생을 그렇게 하면 암이 된다.

4. 위장이나 대장에 생기는 병은 성격이 원만하지 못하여 여러 사람들과 여러 생각들을 잘 받아들이지 못해 마음이 항상 불편하거나, 자신에게 닥친 고통스러운 일을 잊지 못하게 된다. 그러면 위장에 고통이 오게 되며 몇 생을 그렇게 하면 암이 된다.

5. 자궁에 생기는 병은 남편을 원망하고 미워하며 싫어하는 마음이 쌓이면 자궁에 병이 생기게 되고 몇 생을 그렇게 하면 암이 된다.

6. 심장에 생기는 병은 부모, 형제, 남편, 아내등 주위가 못마

## 참회하고 집착버리면 건강한 삶 영위

땅하고 불편하여 항상 원망하며 짜증내고 싫어하는 마음이 오래가면 심장병이 생기게 된다.

7. 간에 생기는 병은 돈에 대한 욕심 때문이다. 아무리 돈이 많아도 항상 부족한 것 같으며 돈이 아까워 꼭 써야 할 때도 쓰지 못하게 되고, 쌓이면 간에 병이 생기게 되고 몇 생을 그렇게 하면 암이 된다.

8. 신장에 생기는 병은 콩이나 팥 가리듯이 모든 사람들과 상황들을 자기 마음대로 판단하여 자기 주장만 옳다고 주장하므로서 다른 사람에게 고통을 주게 되고, 그러다보면 신장에 병이 생기게 되고 몇생을 그렇게 하면 암이 된다.

9. 항문에 생기는 병은 그런줄 알면서도 이길려고 자신의 주장을 굽히지 않고 상대를 무시하면 치질과 같은 병이 생기게 되고 몇 생을 그렇게 하면 암이 된다.

10. 피부에 생기는 병은 상대방의 고통을 예사로 생각하며 상대방이야 어떻게 되더라도 나만 잘 되고 돈만 벌면 된다는 생각이 쌓이면 피부에 병이 생기게 되고 몇 생을 그렇게 하면 암이 된다.

이 외에도 상대를 이해하지 못하고 용서하지 못하면 눈병이 생기게 되고, 남을 속이게 되면 장님의 과보를 받는다. 형제간에 등져서 원수가 되면 다음 생에 벙어리의 과보를 받게 되며, 부모의 마음을 심하게 거슬리면 소아마비를 앓는 과보를 받게 된다.

이 몸에 생기는 모든 병도 결국은 자신이 현생이나 전생에 행한 행위에 대한 결과인 것이다. 모든 것을 겸허하게 받아들이고 진정으로 참회하여 집착에서 벗어난다면 있던 병도 나을 것이며 앞으로 생길 병도 뿌리채 말라 생기지 않을 것이다. 〈영남대 의대교수〉


대중불교는 옳지못한 것을 가려내는데 그치지 않고 바른것을 더욱 바르게 피는 일을 함께 합니다.



월간 대중불교 서울시 용산구 후암동 358-17 (재)대원정사

〈대중불교〉를 만나고서야 나는 마침내
말씀의 꿈틀이는 맛을 느낄 수 있었다!

곧은소리
불가의 잣대는 언제나 부처님 마음입니다.
다소 손해를 보더라도 〈대중불교〉는 그 잣대를 세우는 일을 합니다.
시사, 쇠북소리, 귀담아듣고 새겨볼 이야기, 연중기획, 특별기획 …

깊은 풀이
해석이 없는 경전은 없는것과 마찬가지 입니다.
옛것을 옛것으로 놔두지 않고 현실로 끌어와 오늘을 움직이게 합니다.
수행칼럼, 세계의 선지식, 에세이 보살불교, 불교교리 산책, 법당이야기, 불교와 민속, 얼과 문화, 페사지를 찾아서 …

넓은 만남
경전이 인도하는 길은 언제나 곧장 부처를 만나는 길입니다.
내가 부처가 되는 길입니다.
불교방송교재 경전강의, 교리강좌, 불교 영어 한마디

대중불교
정기구독문의:전화(02)773-5731, 752-7047, 754-1614
팩시밀리(02)771-6796

대우자동차 전 차종 특별판매



대상차종
아카디아 · 브로엄 · 프린스 · 에스페로
씨에로 · 르망 · 티코 · 다마스 · 라보

· 리스 할부
· 인도금 없이 전액 자체 할부(국민차)
· 차종에 따라서 무이자 할부도 가능(한정판매)

자세한 문의사항은

• 전 화:718-0973~4 • 호출기:(015)305-3933 • 담당자:이 계 천

# 고은 불교 대하소설

## 수미산 〈17〉



## 태 풍

새로운 이름을 얻은 만화는 천수만(淺水灣)의 포구에까지 건너가서 몇해동안 쓸 수 있는 헌 배를 구해왔다. 배도 탈 사람이 줄어들어서 버려지는 영락(零落)의 세월이어서 가능했던 것이다. 또한 배에 관한 한 그에게 잘 맡겨진 일이기도 하였다.

일범풍순(一帆風順)이라. 한 폭의 돛은 어리굴 어촌 안뜸에서 새 것으로 바꿨으니 배를 매어둘 때는 돛만은 떼어다가 암자의 후원에 보관해 두도록 하였다.

정작 그 배를 구해오는 길에 당분간 스용되는 곡식과 갖가지 연장 및 생활용품들도 실어 왔으니 덜렁 배만 건너온 것도 아니었다.

만화의 임무가 이로부터 무욕도 살림을 자연스럽게 맡게 됨으로써 그의 공부는 우선 절반으로 줄어 들어야 하는 것이었다. 그래서 곰보 남처사가 말하기를 "배선장은 선장 노릇을 할 때에도 잠을 제대로 잘 수 없었는데 여기 와서 머리를 깎고도 공부를 제대로 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그러니 천상 남의 알에 폭 빠져있게 되었지요"라고 농담을 걸었다.

이런 만화도 여기에 온 이래 버릇 하나가 없어졌다. 아무데나 침 뱉는 일이 그것이다.

웬만한 일에도 꿈틀거리던 그 쐐기 눈썹을 굳이 꿈틀거릴 까닭이 없는 터여서 무욕도는 이같은 만화의 존재에 의해서 한층 더 자연스러워진 것이다. 남처사가 무어라고 말해도 그런 말에 맞서는 것 같지도 않았다. 그런데 해가 서해 수평선에 내려 앉을 무렵 금빛 수평선의 튑날 같은 파도를 바라보던 그가 사뭇 걱정스러운 표정을 숨기지 않는 것이었다.

인담이 그에게 말을 걸었다.

"무슨 일이라도?"

"…"

"무슨 일이라도 일어나겠오?"

"며칠 안으로 큰 바람이 불어닥칠 것입니다. 저기 보시오. 저 큰 갈매기들이 잔뜩 겁에 질려 제 새끼들을 불러모으고 있습니다"

"큰 바람이라! 큰 바람이라!"

그러나 인담은 더 이상 만화의 걱정에 기울어지지 않았다. 그의 마음 가운데는 '큰 바람이 분다한들… 큰 바람도 구멍을 뚫어 앞으로 나아가면 되는 것을… 막다른 데에 이르러서 진짜배기로 나아가는 공부가 있지 않겠는가'라는 수행자의 의지가 채워져 있었다.

하지만 우행자는 달랐다.

"큰 바람 뒤에야… 우리 공부가 제대로 될 것입니다. 아니 그 뿐 아니라 새로운 시절이 올 것입니다"

인담은 이런 우녀의 예감에 대해서 그다지 탐탁하지 않게 생각하였다. 그는 이 섬의 수행이 가능한 한 조용하기를 바랐던 것이고 비록 다섯사람으로 늘어나기는 했지만 사람들의 자취가 너무 뚜렷한 것을 바라지 않았다.

본디 무욕도는 갈매기의 섬이 아니던가. 갈매기의 섬에 인담이 건너와서 그 갈매기들의 하얀 똥에 익숙해졌고 그 갈매기들의 목에 먹은 것이 걸린 것 같은 울음소리에 묻혀 있는 나날이 아니었던가.

그런데 이제는 사람들이 그런 섬을 우세우세 군림하기 시작한 것이다.

"새로운 시절이 오다니 어떤 시절이겠는가?"

이것이 인담으로서는 도무지 어설프기 짝이없는 낯선 미지(未知)였다. 우녀야 말로 그런 미지이기도 한 것이었다.

이러구러 사흘이 지나갔다. 아침 바다는 웬일로 잠들어 있었다. 마치 그 파도 드리 이 세상의 것이 아닌 것처럼 이따금 섬 기슭의 검은 바랑을 슬쩍슬쩍 건드리는 것 말고는 다시는 살아날 것 같지 않게 바다의 평면에만 충실하고 있었다.

그때 물 위로 고기 몇마리가 펄쩍 뛰어 올랐다가 물 속으로 들어가는 것이었다. 그것은 고등어인가? 그것은 가자미인가?

그것이 어떤 고기여도 좋았다. 다만 그 고기가 물 위로 뛰어올라 바라본 세상은 과연 그 고기의 마음 속에서 어떤 세상으로 보였을 것인가.

그 전율(戰慄)의 새로움이야말로 우녀의 눈이 그 고기의 눈과 서로 시선이 부딪친 순간의 눈부신 어둠에 감춰진 어떤 경이(驚異)였던 것이다. 순간은 가장 순수한 전체를 드러낸다.

그날밤 바다 전체에는 바다의 방랑자 혹은 바다의 방황자라 할 부유동물들이 여기저기서 발산하는 인광(燐光)으로 수를 놓고 있었다.

과연 최근 들어 무욕도 부근의 바다 물빛이 약간 달라져 있었다. 초록색을 띠고 있었던 그 초록색 때문인지 고기떼들이 모이는 것을 짐작할 수 있었다. 만화는 "이놈의 고기들이… 우리가 잡아먹는 사람들이 아닌 것을 알고 모여드는 구나"하고 그 고기떼가 모이는 물에 돌멩이를 던져 놀래주기도 하는 것이었다.

밤이 깊었다. 이제까지 그런 일이 없었던바 캄캄한 바다가 마치 별이 반짝이는 하늘과 같았다. 하늘을 바라보면 거기에도 별이 반짝이고 있었다.

이런 밤의 축제는 인담으로서도 처음 목격하는 일이었다.

그 밤이 자정을 지난 뒤 사람들이 잠들어 있는 동안 함께 잠들었던 바다는 차츰 기지개를 켜면서 파도들을 깨워놓았다.

신새벽에는 벌써 파도가 너울로 변했고 파도소리를 몰아오는 바람소리도 심상치 않게 거세어졌다.

갈대암자는 워낙 착실하게 동여맨 지붕이어서 끄떡 없었지만 정작 섬꼭대기의 움집을 두른 거적 한 겹은 훔쩍 벗겨져서 소나무 가지가 잘려나가는 사나운 바람에 견디기 어려웠다.

새벽 축시(丑時)의 도량송 시간이라 세 남자는 으슬으슬 몸을 일으켰으나 사태가 도량송을 할 정도로 안심할 수 없음을 알아차렸다.

"아래로 내려가 볼 일이요"

하고 만화가 남처사를 데리고 벌써 내려가는 것이었다. 어둠 속이라 내리막길이 더욱 조심스러웠다. 인담도 그들의 뒤를 따라갔다.

그의 입에서 한 마디 낯선 것이 나왔다. "바다를 덮는 큰 기틀(跨海雄基)이라도 이루어진단 말인가. 아니, 하늘에 넘쳐나는 큰 일(彌天大貴)이라도 생긴단 말인가. 다 한번 내쉬는 숨결인 것을"

이 말이 나오자마자 그는 휘익! 불어닥친 바람 한 자락에 넘어졌다. 일어나려 했으나 다리 하나가 말을 듣지 않았다. 멀리서 오는 것 같은 통증이 일어나고 있었다. 이윽고 그 통증이 다리 하나를 꽁꽁 묶어놓는 것이었다.

"아아"하고 신음을 냈다.

그러나 두 사람은 널써 저 아래로 내려가서 아무런 자취도 없고 오직 세찬 바람소리 뿐이었다.

"어쩌란 말인가"

하고 인담은 신새벽 어둠 속에서 한쪽 다리의 아픔과 함께 주저앉아 있어야 하였다.



그림 · 조향숙

어둠이 사라지는 아침에 이르자 바다는 격렬해졌고 파도는 광란(狂亂)을 멈출 줄 모르게 되었다.

태풍이었다. 선장 출신의 만화가 예감한 큰 바람이 바로 그것이었다. 만화는 먼저 배를 끌어올려 고정시켰고 그 다음으로 갈대암자에 무거운 돌들을 옮겨다 눌러 놓았다.

그때에야 번히 먼동이 텄고 인담이 내려오지 않은 사실에 당황하였다.

"인담스님이 내려오시지 않았어요"

하고 파도소리 한복판에 그의 큰 소리를 박아놓고 그곳을 떠났다.

태풍은 바람만이 아니었다. 성난 소나기같은 빗줄기를 쏟아붓고 있어서 섬의 모든것이 대번에 물벼락을 맞은 것처럼 젖어버렸다. 우녀도 젖을대로 젖어서 그 몸으로 밖에 나올 수 없었다. 만화와 남처사가 꼭대기로 땅바닥에 납짝 늘어붙다싶이 엎드린채 기어 올라갔다. 인담이 거기서 꼼짝달싹하지 못하고 주저앉아 있었다.

"다리입니까?"

"그렇소. 왼쪽다리가 못쓰게 되었소"

만화가 인담의 다리를 냅다 잡아다녔다. 인담이 입을 딱 벌린채 아무런 소리도 낼 수 없었다. 그렇게 다리를 잡아다니기를 몇번 되풀이한 뒤 인담의 통증이 조금 나아질 수 있었다.

아직 제대로 걸어 다닐 수 없었다.

남처사가 그런 인담을 들쳐 업었다.

그들이 아래로 내려왔을 때는 벌써 저녁나절이 가까웠다. 그동안 다섯사람은 아무것도 입에 댈 겨를이 없었다가 겨우 암자 안에 모여 들어 불안한 음식으로 배를 채웠다.

그때였다. 사나운 짐승의 울음소리와도 같은 파도소리 사이로 어떤 소리가 들리는 것 같았다. 만화가 꼭 닫아 걸어둔 문을 열고 나가 보았다.

가장 난폭한 집중으로서의 자연이 거기 있었다. 자연이 어찌 이렇게도 무서운 것인가. 자연은 언제나 인간을 그 자연에 가장 안온하게 귀의시키지 않았던가.

그런데 이러한 자연을 철저하게 타파해 버리는 이 태풍의 바다는 얼마나 무자비한 것인가.

"저기다!"하고 남처사가 소리쳤다.

섬의 서남쪽 파도더미 위에 난파선임에 틀림없는 것이 나타났다가 그 파도더미에 파묻힌 것이다. 다행인 것은 그것이 파도의 방향을 따라 섬쪽으로 떠밀려오고 있었다.

만화는 여기서도 쓸모 있는 남자였다. 그가 암자 뒤에 간수해 둔 밧줄을 튼튼 말았다가 휘익 내던졌다. 그러나 그것이 파도더미 쪽에 적중하지 않았다.

몇번째 반복하는 동안 만화의 힘도 다하고 있었다.

이번에는 남처사가 한번 밧줄을 던져 보았는데 그 밧줄에 힘이 팽팽히 전해지는 것이었다.

"누군가가 잡았어요!"

"아니면 저쪽에 걸렸어요!"

"… 틀림없이 걸렸어요!"

만화와 남처사가 그 팽팽해진 밧줄을 아주 침착하게 잡아다녔다. 그러자 파도더미에 실컷 뜯혀있던 뱃머리가 치켜지며 밧줄에 의해서 다가오고 있었다.

"일중선이로다"

하고 만화가 선장 배만득으로 돌아가서 썩 좋은 그 배를 알아보았다.

섬은 갑자기 바빠졌다. 태풍의 위력이 조금 감소해졌지만 그렇다고 방심할 수 없다. 더 사나운 태풍으로 발전하기 십상이므로.

그 난파선이 섬의 바위너설에 닿았다.

우선 밧줄로 고정시켜 놓은 뒤 만화가 그 배 위로 가까스로 올라가서 배의 밧줄을 던져서 고정시키도록 하였다.

배 안에는 거의 송장이 된 사람 둘이 남겨져 선창 안에 걸려있었다. 그 송장 하나를 들쳐업고 뛰어내렸다. 그러자 남처사도 올라가 나머지 하나를 들쳐업고 뛰어내리는 것이었다.

하나는 만화, 하나는 인담이 말아 뱃속의 물을 토하게 하는 일에 여념이 없었다. 파도소리가 덜 사나워졌다.

## "큰 바람 뒤에야 우리 공부가 제대로 될 것입니다"
## 난파선이 섬에 닿았다 거의 송장이된 사람 둘이…


# 아직도! 인도성지 순례를 어렵다고만 생각하십니까

| 여행번호 | 방문지 | 여 행 일 정 | 요 금 |
|---|---|---|---|
| INA-01 | 인도 10일 | 불교 4대 성지 | 150만원 |
| INA-02 | 인도 30일 | 인도 전역 자유여행자를 위한 왕복 항공권 | |
| INA-03 | 인도 12일 | 방콕-델리-아그라-바라나시-보드가야-라지기르-파트나-바이샬리-쿠시나가르-룸비니-기원정사(바랄푸르)-럭나우-델리-방콕 | 180만원 (155만) |
| INA-04 | 인도 15일 | 방콕-델리-아그라-바라나시-보드가야-나지기르-파트나-쿠시나가르-룸비니-기원정사-산치-아잔타-엘로라-봄베이 | 210만원 (180만) |
| INA-05 | 인도 17일 | 방콕-델리-바라나시-보드가야-라지기르-나란다-파트나-바이샬리-쿠시나가르-룸비니-기원정사-럭나우-아그라-보팔-산치-잘가온-아잔타-오랑가바드-엘로라-맘마드-봄베이-방콕 | 230만원 (200만) |
| INA-06 | 인도 22일 | 방콕-카투만드-룸비니-사나울리-기원정사-쿠시나가르-바이샬리-파트나-나란다-라지기르-보드가야-바라나시-상카시아-아그라-델리-보팔-산치-잘가온-아잔타-오랑가바드-엘로라-맘마드-봄베이-콜롬보-아루라다푸라-폴론나누와-시기리아-캔디-방콕-아유타야-홍콩-마카오 | 280만원 (240만) |

올해년도 성실하게 불심으로 안내하겠습니다
-수미산 가족일동-

INDIA
인도관광성
Travelite (India)
인도전문여행사
일 정 표
TOUR DATE : (태국 사찰 순례)

TOUR DATE : 1995. 03. 25-03.30(5박 6일) 동참금 : 60만원

| 일자 | 지역 | 시각 | 교통편 | 일 정 |
|---|---|---|---|---|
| 제1일 3/25 (토) | 서 울<br>방 콕 | 17:20<br>19:25<br>23:59 | KE 637 | 김포공항 신청사(2청사)2층 외환은행앞 모임<br>서울 출발<br>방콕 도착후 호텔 투숙 |
| 제2일 3/26 (일) | 방 콕<br>파타야 | 전일 | 전용버스 | 파타야로 이동<br>안쌍와라맘사원 참배후 호텔 투숙 |
| 제3일 3/27 (월) | 파타야 | 전일 | 전용버스 | 농녹빌리지에서 민속쇼 코끼리쇼 관람, 정원산책<br>산호섬 일주 및 휴양 |
| 제4일 3/28 (화) | 파타야<br>방 콕 | 전일 | 전용버스 | 방콕으로 이동<br>수상시장, 새벽의사원, 왕궁, 에메랄드사원 등 시내관광 |
| 제5일 3/29 (수) | 방 콕<br>아유타야<br>방 콕 | 전일 | 전용버스 | 아유타야로 이동<br>아유타야 옛 고적지 참배<br>방콕 귀환후 공항으로 이동 |
| 제6일 3/30 (목) | 방 콕<br>서 울 | 01:35<br>08:55 | KE 632 | 방콕 출발<br>서울 도착후 해산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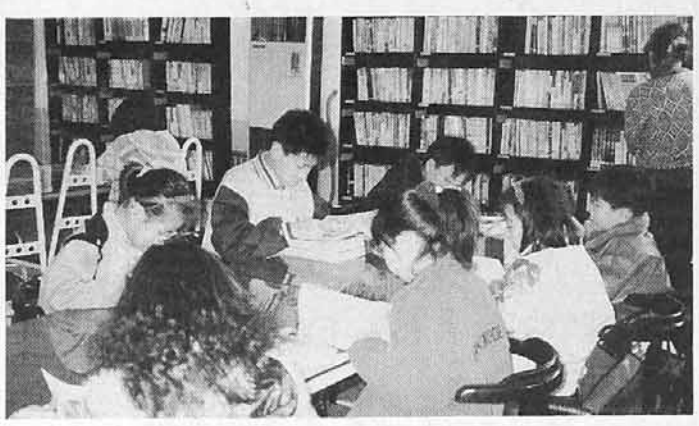
상기일정은 항공 및 현지사정에 의하여 변동될 수 있습니다.

| 여행번호 | 방문지 | 여 행 일 정 | 요 금 | 2월 | 3월 | 4월 |
|---|---|---|---|---|---|---|
| SMR-01 | 미얀마,<br>태국 8일 | 양곤-만달레이-파간-페구-방콕-아유타야(파타야) | 129만원 | 10<br>21 | 11<br>22 | 5<br>18 |
| SMR-02 | 일본 5일 | 오사까-나라-교또 | 95만원 | 17 | 17 | 20 |
| SMR-03 | 일본 6일 | 동경-나라-교또-오사카 | 135만원 | 15 | 8 | 22 |
| SMR-04 | 대만 5일 | 타이페이-일월담-고웅-불광사 | 55만원 | 24 | 12 | 20 |
| SMR-05 | 대만 5일 | 타이페이-일월담-고웅(불광사)-화련 | 65만원 | 24 | 23 | 8 |
| SMR-06 | 태국 6일 | 방콕-파타야-아유타야 | 60만원 | 8 | 15 | 21 |
| SMR-07 | 동남아<br>3개국8일 | 홍콩-방콕(아유타야)싱가폴(바탐) | 90만원 | 21 | 17 | 10 |
| SMR-08 | 동남아<br>4개국10일 | 방콕-아유타야-브루부둘-홍콩-타이페이(불광사) | 155만원 | 27 | 19 | 14 |
| SMR-09 | (8박9일)<br>스리랑카 | 홍콩-콜롬보-아누라다푸라-폴론나누와-캔디-누와라엘리아(불족산)(페라헤라 축제) | 140만원 | 14 | 9 | 15 |
| SMR-10 | (7박8일)<br>태국<br>스리랑카 | 홍콩-콜롬보-아누라다푸라-하바라나-캔디 | 108만원 | 10,21 | 20 | 21 |

*상기 일정중 단체 출발시에는 일정 변경이 가능합니다.
*상기 코스 이외에도 다양한 상품이 준비되어 있으므로, 문의해 주시면 상세히 안내드리겠습니다

須彌山
불교성지순례 전문여행사
(주) 수미산 여행사
110-140 서울시 종로구 수송동 46-19 원당빌딩 2층
전화 : (02)720-3241~7 / 팩스 : (02)720-3248
국외여행업 등록 제358호

어린이 → 놀이방
청소년 → 공부방
주부 → 부업준비
노인 → 경로공간



◇ 복지관의 도서실은 학교 수업을 마친 어린이들의 넉넉한 문화휴식 공간이다.

# 불교사회복지관은 "자비실천 도량"

## 전국 25곳 …재정·인력 확보등 확충계획 필요

관세음보살의 화신처럼 때로는 어머니로 때로는 아버지로, 선생님으로 지역사회 주민들의 대모 대부 역할을 톡톡히 해내고 있는 불교 종합사회복지관들.

불교계에서 위탁운영되고 있는 종합사회복지관들이 그 영역을 점점 넓혀가며 지역주민의 생활과 신앙을 복지혜택으로 묶어내고 있다.

수업이 끝나는 오후 1시. 동하(가락국교2학년)는 가방을 메고 삼전종합사회복지관 공부방으로 향한다. 엄마와 아빠가 일하러 나간 시간, 동하는 복지관 공부방에서 숙제도 하고 또 잘모르는 산수문제를 공부방 선생님께 물어도 본다. 그리고 잠시 쉬는 시간을 이용해 친구들과 선생님에게 재미있는 놀이도 배운다.

이곳 삼전복지관을 비롯 교계에서 위탁 운영하고 있는 전국 25곳의 거의 모든 복지관에는 어린이와 청소년을 위한 공부방과 독서실 주민을 위한 도서실이 운영되고 있다. 국민학생부터 고등학생에 이르는 이용자들 대부분이 저소득층 자녀들로 복지관에 마련된 공부방과 독서실에서 공부도 하고 취미생활도 즐기며 방과후 시간의 대부분을 보낸다.

"사회적으로 맞벌이부부가 늘어나고 있고 부모들이 집을 비우는 시간이 많아요. 그래서 어린이들과 청소년을 위한 공부방과 독서실이 꼭 필요합니다."어린이 교실의 운영을 책임지고 있는 삼전복지관 이미영복지사의 설명이다.

아동복지 청소년복지 사업의 하나로 실시되고 있는 이들 공부방과 독서실은 부모와 교사의 1인2역을 해가며 지역사회의 안정과 어린이 청소년의 건전한 문화교육공간으로써 제역할을 다하고 있다.

공부방과 도서실운영외에도 복지관이 하는 일은 너무나 많다. 가정복지 노인복지 장애인복지 각종 사회교육문화사업과 재가서비스지원등 지역복지를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의 운영에 총력을 기울이며 부처님의 가르침을 널리 펼치고 포교의 바탕을 일구기에 바쁘기만 하다.

양재, 도예와 같은 부업기능훈련으로 주부들의 취업의 기회를 열어주기도 하고 또 노인들의 여가지도와 만남의 공간 제공, 경로잔치, 노인학교운영등 지역노인들에 대한 복지사업도 활발하게 진행하고 있으며 각종 상담으로 장애인들에 대한 배려도 잊지 않고 있다.

"복지관의 지역내에서의 활동이 확대되기 위해서 더많은 불교 복지관들이 생겨나 양적으로나 질적으로 다양한 복지혜택을 줄수 있을때 불교의 위상과 사회적 인식도 넓어지리라 봅니다."라며 법동종합사회복지관 윤남선과장은 말했다.

복지관 운영에 있어 가장 어려운 점이 재정난과 인력난이라고 말하는 복지관 관계자들은 불교복지관을 운영해나갈 불자 인력양성과 재정지원에 불교계의 장기적인 계획과 뒷받침이 필요하다고 지적하기도 했다.

앞으로 전국에 계속적인 불교복지관 건립으로 지방화시대에 대비한 전국 포교의 기반을 다져야 한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견해다.

〈이은자 기자〉

## 어린이회 졸업법회통해 중학생회로 유도

조계사 어린이법회, 사천왕사 어린이법회, 능인선원 어린이법회 등 대부분의 사찰과 포교당이 졸업법회와 환송회를 결한 법회를 열어 6학년 졸업생들을 자연스럽게 중학교 학생회로 인도하는 등 변화된 모습을 보이고 있다.

지난달 19일 조계사어린이회는 졸업법회를 통해 이제 어린이법회를 떠나 중학생이 되는 어린이들을 환송하고 지속적인 불교신행활동을 권장키위해 학생회로 인도 했다.

이날 예비 중학생들에게 학생회 가입과 활동에 대해 설명한 조계사학생회 박상희 교사는 "국민학교를 갓 졸업하고 어린이에서 청소년으로 넘어가는 단계에 있는 중학교 1학년학생들에게 자립심을 키워주고 스스로 변화된 환경에 적응토록 지도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면서 이들의 올바른 신행생활을 위해서는 부모의 적극적인 지도와 지원이 절실하다고 말했다.

이른후 건강칼럼 <16>

술

### 기억력 감퇴

이제 연초도 지나 새해의 새로운 생활에 점점 자리를 잡아갈 시간이다.

지난 연말과 연초의 술 때문에 여러가지 일화들을 남긴 사람들도 많을 것이다. 술을 마시는 사람들은 핑계없는 무덤이 없다고 다 마실만한 그럴듯한 이유들을 분명히 제시하고 마신다. 슬프면 슬퍼서 기쁘면 기뻐서 마시니깐 어떤 이유를 들어도 술 마실 이유는 분명히 있게 마련이다.

"이 사람이 도대체 누구인가?" 사업상의 일로 이들을 술로 득에 빠졌다가 나온 한 기업체의 과장이 곁에 누워있는 사람이 도무지 기억에 나지 않아 하는 소리다. 함께 이틀 동안이나 술을 진탕 마시고도 그 함께 마신 사람을 잊은 거다. 만성적인 술중독은 기억력과 대단히 밀접한 관계를 가진다. 술과 연관하여 기억의 결손이 있고 기억을 왜곡하여 이로 인한 작화증 등이 있으면 소위 코르사토프 증후군이란 이름이 붙는다.

기억의 결손은 어떤 사건을 시점으로 그 이후에 일어난 일들을 기억하지 못하는데, 술을 마시면서 일어난 기억들은 대개 기억을 못한다. "술이 너무 과해서 혹시 실수한 것은 없는지 모르겠다"는 말로 자신의 실수를 은폐하려 들때가 많은데 많은 사람들은 이런 술꾼들의 이야기에 반신반의한다. 하지만 실제로 기억에 결손이 있다면 기쁘게 넘길수 있는 정도는 아니다. 기억의 왜곡이란 실제 경험했던 기억을 그대로 되살리는게 아니라 혼자 각색하여 그 각색된 내용이 실제 경험되었던 사건처럼 기억을 한다. 말하자면 잘못된 기억이다. 작화증이란 말의 내용을 지어내는 것인데 이는 기억의 결손을 메우려는 생리적인 현상으로 코르사코프증후군의 특징이 된다. 자신의 경험을 그럴사하게 꾸며 말하지만 이는 오로지 꾸며낸 말이지 실체로 경험한 내용은 아니다. 그러면 환자가 일부러 거짓말을 하는 것인가 하면 그렇지는 않다. 본인은 그런 꾸며낸 말을 실제로 경험한 것처럼 믿고 있다.



## 취중 실수·거짓말 예사…술깨도 '몽롱'

"그 사장님이 우리회사 제품을 전적으로 수입해주기로 했다"는 등의 말을 꾸밀 때가 있는데, 이는 그 사람의 소망일 뿐 실제 사장님이 약속을 해준 내용은 아닌데도 그는 철떡같이 그런 약속을 한 것으로 믿게 된다. 그러니 이는 취중의 대화를 왜곡해서 생각하고 그 왜곡된 내용을 덧살을 붙여 각색을 하며 이를 실제인양 말을 옮기게 되니 이를 작화증, 즉 말을 만들어 낸다는 것으로 설명한다. 취중의 약속들이 쉽게 다툼의 핵심이 되는 이유는 이런 기억의 착오나 작화증 때문에 그렇다. 작화증을 가질 정도의 술꾼은 이미 중독자란 진단이 붙는다.

만화

# 法句經 법구경

*꽃의 장*
꿀만을 따기는 꿀벌처럼



이 향 원





# 제3회 불교어린이지도자 양성과정

주간 · 야간 통신(비디오, 카셋트)

1. 취지
본 교과과정은 불교 어린이 교사의 자질향상과 전문성 고취, 그리고 조직적인 교육관리를 목적으로 기존 교사의 재교육과 초임교사의 기본교육에 중점을 두고 운영하오니 변화하는 교사, 성장하는 어린이 법회를 위해 많은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지난 교육에 참여하시고 성원을 보내주신 제방 스님 및 재가 교사님들께 깊이 감사드리며 늘 부처님의 가피 속에서 교육불사에 진념하시길 기대합니다.

2. 교육과정

| 과 정 | 과 목 |
|---|---|
| 불교학과정 | 불교학개론, 불교교리발달사, 불교의식 |
| 교육학과정 | 교육학개론, 아동심리(학습심리, 발달심리, 상담심리) |
| 불교교육학과 정 | 사찰 부적응아 지도법, 교사론, 불교의 아동관, 불교 교육방법론, 설법설계의 원리와 절차, 불교학교의 교육행정, 시청각교육원리 및 실제 |
| 지도실기 | 레크리에이션(게임송, 실내 · 외 게임, 포크 댄스, 캠프 진행, 찬불가 율동(제작원리)) 특별프로그램 기획 및 운영(오후행사, 기념행사 등) |

3. 교육기간 및 행사개요
가) 교육기간 : 1995년 3월 13일 ~ 6월 12일 (3개월)
나) 교육시간 : 매주 월 · 수 · 금 **주간반 :** 오후 2시 ~ 4시 **야간반 :** 오후 7시 ~ 9시 **통신반 :** 비디오 과정, 카세트 과정
다) 인 원 : 각 반별 30명 (선착순 접수) 라) 수강료 : 월 6만원
마) 교육장소 : 불교교육연구원 (조계사 중문, 시사일본어학원 옆)

4. 입학자격
가) 어린이 교육에 관심 있으신 분 나) 불교유치원 교사, 사찰 법사스님 및 어린이회 교사
다) 자녀를 지혜로운 불자로 키우고 싶은 학부모

5. 특전
가) 불교교육연구원 수료증 및 연구원증 발급 나) 본원 및 외부강사로 활동 보장
다) 수료 후 사찰 어린이 법회 유급교사로 알선

**불교교육연구원**
서울시 종로구 수송동 46-25 종로빌딩 3층 전화 725-7527~9

# 절찾아 가는 길

**점점 녹슬어가는 "우리절 이정표" 이젠 걱정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큰 맘 먹고 장만한 「우리절 이정표」 막상 비 오고 시간이 흐르면 녹슬고 칠이 벗겨져 보기 흉해집니다. 간판을 자주 할 수도 없고, 칠하기도 쉬운 일이 아니고 보면, 처음부터 잘 만드는 곳에 맡기셔야만 합니다.

저희 「가람기획 이정표」는 녹이 슬지 않습니다. 더군다나 반영구적인 스텐레스 재질로 디자인까지 산뜻합니다.

또한 저희 「가람」에서는 불교의 전문화·고급화·대중화를 위하여 불교미술문화를 소재로한 디자인의 현수막과 전국사찰지도·사찰연혁판·게시판·리본·상패·포스터·팜플렛·세계불교기·법륜기·만불기 등과, 각종행사 기획을 맡아드리고 있습니다.

저희 「가람기획」은 오직 「불자」됨을 자부하며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110-170 서울시 종로구 견지동 110-40
☎ 720-5121, 2874 FAX 732-3769

가람쇼회 대표 이 주 영 合掌


















# '문화답사기' 필독서 붐

## '명찰순례' '절로가는 …' 등 100여종 발간

## 사찰문화재 가치 재인식 …문화사랑 촉진

"현대 지식인들은 전통문화에 관한 한 무지에 가깝다." "사랑하면 알게 되고, 알게 되면 보이나니, 그때 보이는 것은 전과 같지 않으리라."

우리 문화의 철저한 외면에 대한 따끔한 질책과 충고를 담은, 우리 것·우리 문화를 일일이 찾아 소개한 답사기와 수상집의 출판행렬이 끊이지 않고 있다. 93년 5월 나온 〈나의 문화유산답사기〉 이후 〈명찰순례〉 〈살아있는 국토박물관〉 등 10여종에 이른다.

이같은 출판현상에 대해 "우리 것에 대해 알고자 하는 욕구가 그만큼 커진 것이며, 우리 문화에 대한 애정을 가진 사람들의 필독서로 권하고 싶다"는 것이 출판계나 이미 이들 책을 읽은 독자들의 반응이다.

특히 불교인들은 우리 문화유산의 80%가 불교와 연관된 것들이라는 점에서 "불교인이라는 자긍심을 높혀주었음은 물론 국민들에게 사찰이 지닌 문화유산적 가치를 새롭게 인식하는 계기를 주었다"며 긍정적으로 평가한다.

저자 또한 다양하다. 문화재 관계자는 물론 교수 문인 중고등학교교사 등으로 자기분야의 식견을 동원해 우리 문화유산이 갖는 의미를 생활 속으로 이끌어내고 있다. 불교를 직접 제목으로 내세운 책도 〈절을 찾아서〉 〈불교문학기행〉 〈절로가는 마음〉 등 4종이나 된다.

고은씨의 불교문화기행집〈절을 찾아서〉(책세상 펴냄)는 낙산사 직지사를 비롯한 전국의 43개 사찰과 지리산 가야산 등 불교문화와 관계가 깊은 산을 떠돌며 쓴 저자의 '방랑에 대한 한 기록'이다. 따라서 "만약 신라가 석굴암을 남겨놓지 않았다면 얼마나 슬픈 일인가. 그런 점에서라면 역사의 은혜, 역사가 베푸는 긍지와 위안은 어떤 성욕이나 진수성찬과도 바꿀 수 없는 것"이라는 감회가 그대로 전해진다. 각 장마다 사찰의 위치와 역사, 문화재를 짤막하게 소개하고 있다.

문화재전문위원 신영훈씨의 글과 사진작가 김대벽씨의 사진을 곁들인 〈절로가는 마음〉(책만드는 집)은 불국사 연화교, 부석사 무량수전, 석굴암 사천왕상 등 사찰 조형물의 빼어난 솜씨를 불교신앙적·문화적 의미에 따라 밝히고 있다. 절구경 하듯 현장감을 살린 문장이 읽는 재미를 더해 준다.

무량수전 배흘림기둥에 기대서서 국립중앙박물관장을 지낸 최순우씨(84년 작고)의 수상집.(학고재) 건축 불상 석탑 등 20개장으로 나눠 문화유산의 조형미와 자연과의 조화를 간결한 문체로 표현했다. 정양모 중앙박물관장은 서문에서 "이 글을 읽은 사람이면 누구나 깨우침과 깊은 감동과 가슴설렘과 흔연함과 시원함이 엇갈릴 것"이라며 아름다움의 본질을 추구한 고인의 성품을 흠모하고 있다.

〈명찰순례 1·2·3〉(최완수, 대원사)은 명찰 56곳을 순례하며 그곳에 깃든 역사의 숨결을 전해주고 있다. 현대교육이 서구문화를 수용하는 데 급급하여 우리 전통문화를 소홀히 하였다는 반성에 따라 시문서화(詩文書畵) 조각 건축 유교 등 전통문화에 대한 총체적 지식을 바탕으로 사찰이 지닌 의미를 밝혔다.

이밖에 〈불교문학기행〉(우봉규, 경지) 〈살아있는 국토박물관〉(안정애, 심지) 〈읽고 떠나는 국토순례〉(임덕순, 집문당) 〈문화유산을 찾아서〉(이형권, 매일경제신문사) 〈한국인의 문화유산 탐방기〉(이기순, 글벗사) 등도 우리의 귀중한 문화유산과의 진정한 대화를 나누기 위해 노력한 결과물들로 불자들의 관심을 모으고 있다.

〈정성운 기자〉

# '한국사' 통일 역사의식 수록

## 한길사 전27권·CD 24장으로 펴내

## 1백70여 필진 … 불교사 체계적 서술

지금까지 나온 한국사 관계 저작중 불교사 부분이 가장 많이 서술된 〈한국사〉(전27권, CD 24장, 한길사 펴냄)에 대한 관심이 교계에서도 높아가고 있다.

〈한국사〉는 지난 86년 편찬 작업을 시작, 8년여에 걸쳐 완간된 것으로, 진단학회의 〈한국사〉(전7권, 1959년)와 70년대 국사편찬위원회의 〈한국사〉(전25권)가 지닌 현대사 서술 제외, 관찬(官纂)이라는 한계를 극복한 획기적인 작업으로 평가된다. 또 민간출판사 단독기획에 의해 27권이라는 방대한 분량의 〈한국사〉를 완간한 점도 출판사상 처음 있는 일로 기록된다.

〈한국사〉는 중진과 소장을 망라한 170여명의 학자들이 필진으로 참여했으며, 불교사를 전공하고 있는 최광식교수(효성여대·사학) 추만호(우리불교문화연구소장) 채상식 교수(부산대·사학)등이 불교관계사를 집필했다.

편집위원장을 맡았던 강만길교수(고려대)는 지금까지의 한국사 서술이 "식민지시기와 분단시대를 겪어오면서 우리역사에 대한 서술은 많은 부분 왜곡되거나 혹은 충실하지 못했다"고 평가하고 △한국사의 대중화와 △통일민주국가 수립을 지향하는 역사인식을 담되 △집필방향은 필자들의 독자적 방법론과 역사인식 수용 등을 편집방향으로 삼았다고 밝혔다.

〈한국사〉를 펴낸 한길사 대표 김언호씨는 "잘못된 역사서술을 바로잡고, 역사적 사실을 사실대로 서술하는 '하나의 우리역사'를 만들어내야 한다는 것이 기획의도였다"라며 "주체적인 한국적 인문사회과학을 정립하는 토대를 제공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국사〉 27권은 '원시사회에서 고대사회로'(1권)부터 '북한정치와 사회'(22권)까지 연대순에 의거 주제별로 서술했으며, 해방이후 현대사는 17권에서 22권까지 6권 분량에 담았다. 연표와 찾아보기도 25~27권에 정리했다.

## ◇금주의 베스트불서 10

책방 여시아문 집계

| 순위 | 도 서 명 | 저·역자 | 출 판 사 |
|---|---|---|---|
| 1 | 금강경강의 | 무비 | 불광 |
| 2 | 알기 쉬운 불교 | 편성부 | 불교방송 |
| 3 | 미라래빠의 십만송 | 이정섭 역 | 시공사 |
| 4 | 자네, 도가 뭔지 아나 | 효림 | 대원정사 |
| 5 | 무소유 | 법정 | 범우사 |
| 6 | 시작도 끝도 없는 길 | 일타 | 효림 |
| 7 | 영원한 자유의 길 | 성철 | 장경각 |
| 8 | 연꽃만화 | 장지연 | 부다가야 |
| 9 | 부처님의 십대제자 | 사사키세이 | 우리출판사 |
| 10 | 한글 아함경 | 고익진 | 동국대출판부 |

구입문의:(02)737-0695

## 화제의 책

### 불교경전 성립의 연구

모치즈키 신코 지음
진열 옮김




### 대승경전의 부처님정신 구현 밝혀

불교의 경전은 모두 석가모니 부처님께서 직접 설한 것이라고 믿어 왔다. 그러나 소승측에 의해 '대승경전은 석가모니 부처님의 말씀이 아니다'라는 문제가 제기되었다. 이후 여러 실증적 연구에 의해, 대승경전은 부처님 설법의 실제 기록이 아니라 후세 학자들의 편찬에 의한 것임이 밝혀졌다.

그렇다면 대승경전은 무의미한 것인가. 결코 그렇지 않다는 것이 〈불교경전 성립의 연구〉저자의 입장이다. 즉, 대승경전에 나타난 인생관·우주관이 무엇인가를 고찰하고, 그것을 부처님의 가르침과 연결시켜 신행의 나침반으로 응용해야 한다는 것이다.

'대승경전 성립에 관한 연구' '이경 및 의위경론에 관한 연구' 등 2부로 나눠 경전성립의 실증적 연구와 함께 부처님의 정신을 실천적으로 구현하려는 의지의 표현이 대승경전임을 밝히고 있다. 〈불교시대사, 1만5천원〉

### 대일경·금강정경

허일범
김영덕 옮김




### 대일경등 밀교경전 7경 번역서

대일경을 비롯한 밀교의 근본경전 7경을 번역했다. 동국역경원의 한글대장경 가운데 밀교부 첫째권이다.

대일경(대비로자나성불신변가지경(大毘盧遮那成佛神變加持經)이 본래 명칭)은 인도밀교에서 매우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며, 6세기까지 인도의 전반기 밀교를 총괄한 경전이다. 입진언분 주심품(入眞言門住心品)을 비롯 전체 36품 가운데 제7권 5품은 한역본, 1~6권은 티벳본을 텍스트로사용했다.

각 경전마다 충실한 주(註)를 달아 이해를 도왔으며, 진언은 '진언표기용례집'에 의거해 우리말 발음과 한자음을 병기했다.

수록된 경전은 대일경 외에 초회금강정경 15회금강정경 금강계품 등 금강정경과 대일경 금강정경 유희야경 소실지경 등의 내용을 약출(略出)한 도부다라니목(都部陀羅尼目)등이다. 〈동국역경원, 1만원〉

## 명사추천 불서 100선

### 萬海편찬 「불교대전」

「불자」라고 하면 「佛子」또는 「佛者」라고 쓰며 불문에 든 신자 또는 불제자를 뜻한다. 그러나 어느 종파에도 속하지 않지만 부처님의 깨달으심과 가르치심 가운데서 배우려고 하는 사람은 무엇이라고 하여야 할 것인가. 표현과 방법은 다르지만 예수님에게도 진리가 있다. 그렇다면 사이비 종교만 아니라면 종파에 구애되지 말고 마음을 열고 인생의 진리를 서로 이야기할 수 있을 것 아닌가. 물론 자기에게 가까운 하나의 종파를 선택하여 소속된다는 것은 필요하다.

이런 유치한 생각을 지니고 있는, 소위 불교의 문외한인 내가 불서(佛書)를 추천한다는 것은 주제넘고 외람한 짓이라는 것을 잘 알고 있다.

요새 출판계를 보면 참말로 재주가 놀라운 천재들이 많다는 것을 느끼지 않을 수 없다. 왜냐하면 평생 만나보지도 못했던 과거의 인물들을 마치 그 사람의 전생(轉生)인 존재처럼 여러 권의 소설로 엮어내지 않는가. 심오한 선각자들의 진리를 글쓴이 나름대로 풀이를 한 책들이 수없이 쏟아져 나오고 있는 것을 보면 놀라움을 금할 수 없다. 그러나 막상 읽어보면 내가 잘못 깨달아서 그런지는 몰라도 용두사미인 것이 많다. 시원하게 뚫리기는 커녕 더욱 답답해질 뿐이다.

불교의 진리도 마찬가지가 아닐까. 물론 대장경(大藏經)을 하나도 빼지 말고 통독하여야 할 것은 알고 있지만, 결국은 모든 경전을 모두 덮어놓고 불립문자(不立文字)가운데서 스스로 깨달아야 하는 것 아닌가 하는 생각도 든다. 그런 견지에서 요새 범람하는 통속적인 불교를 빙자한 소설 등은 그리 좋아보이지 않는다.

그런 가운데 단연 빛나는 명저가 있는데, 만해 스님이 쓰시고 이원섭선생이 역주하신 〈불교대전〉이다. 방대한 불경을 주제별(主題別)로 정리한 이 책이야말로 나 같은 얕고 짧은 사람에게는 문자 그대로 보고(寶庫)이다.

만해스님은 열정적인 독립투사요 시인인줄만 알았는데 그 호한(浩瀚)한 불경을, 인용한 경전의 목록만 하더라도 무려 444종의 경전을 망라하여 주제별로 재구성하여 1741항목에 걸쳐서 편찬한 것임을 볼때 초인적인 업적에 놀라움을 금할 수 없다. 1910년에서 1913년사이에 만해스님이 통도사(通度寺)에서 대장경을 열람하면서 집필하신 것이라고 한다.

불교의 기본적 교리와 수도방법과 처신의 문제를 체계있게 분류하여, 위로는 깨달음의 내용으로부터 아래로는 국가 가정의 문제에까지 이르도록 망라하지 않음이 없고, 거기에 해당하는 말씀들을 경(經)·율(律)·논(論)에서 초록(抄錄)하고 있다.

더욱이 놀라운 것은 이원섭선생이 요새 사람이 쉽게 읽을 수 있도록 번역과 주(註)를 마련하였으며, 찾아보기(索引)도 5천 항목이 넘기 때문에 나같은 짧은 사람이 가령 불교에서는 건강관이나 양생법(養生法)이 어떻게 되어 있는가 하는 얄팍한 글을 쓰려면 제7 대치품(對治品)의 제4절 구병(救病)을 들치면 지혜로운 말씀들이 쏟아져 나온다.

1048쪽에 달하는 이 〈불교대전〉을 한 권 머리 맡에 놓아두면, 나는 8만대장경에 에워쌓여 있는 든든함을 느끼기 때문에 서슴치 않고 이 책을 권해드리는 바이다.



홍 문 화
(서울대 명예교수)

## 4백44종 경전 주제별로 집대성

## 초인적 업적…누구나 쉽게 접근

불음 가득 · 법향 가득

책방 여시아문은



국내 최대의 불교 전문 서적만을 취급하는 서점입니다.
60여 평의 여유로운 공간에
국내외의 불교관련 서적으로만 2만 권 3천 여 종을 갖추었습니다.
책방 여시아문은 초심자에서 학자에 이르기까지
독자들 한분한분의 기대에 따르겠습니다.

불자 여러분의 갈증을 풀어드립니다.
국내외의
서지정보(희귀본, 서적, 논문, 잡지)· 불교학술논문 · 불교문화예술정보 등
다양한 불교관련 정보나 자료를 제공하는 이외에도
항상 불자 여러분의 공부에 충실한 동반자가 되겠습니다.



불자 여러분의 편안한 휴식공간입니다.
누구라도 쉽게 찾아볼 수 있는 서가 배치, 컴퓨터 검색 체제,
그리고 언제라도 편안히 앉아서 독서할 수 있는 공간이 마련되어 있습니다.
가까운 분들의 만남과 함께 법향 듬뿍 음미할 수 있는 곳,
책방 여시아문의 문은 항상 열려 있습니다.



여시아문은 불자들의 자랑입니다.
여시아문은 삼보에 귀의하는 서점입니다.
불법 홍포를 위해 회향하는 서점입니다.
그리고 불교의 현대화 · 생활화 · 세계화를 실천하는 서점입니다.

책방 여시아문 서울시 종로구 견지동 110 - 33 · 전화 (대표) 737 - 8881 (서점직통) 737 - 0695 · 팩스 737 - 0696 교통편 전철: 1호선 종각역, 3호선 안국역 / 버스: 32, 53, 84, 159, 331, 588 - 2번

# 불교미술품 "봄나들이" 한창

## 회화·조각·설치등 작품 전시회 다채롭다

새봄을 맞아 불교미술품이 다채롭게 선보이고 있다.

회화, 조각, 설치등 다양한 장르의 작품들이 대형기획전과 개인전을 통해 관람객의 눈길을 모으고 있다. 특히 기행미술의 장르를 개척한 이호신씨의 「반도의 숨결」전과 광복50주년과 미술의 해를 맞아 국립현대미술관에서 개최되는 '한국현대미술50년전' 등은 미술 애호가들에게 모처럼 만나는 '좋은작품'을 감상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 있다.

〈편집자 주〉



◇불교미술계가 봄기지개를 켜며 개인전에서 기획전까지 불교미술품이 다채롭게 선보여 애호가들의 눈길을 끌고있다. 사진위는 「한국현대미술50년전」에 나온 안성금씨의 「관음」, 아래는 이호신씨의 「부석사」.



### 이호신, 반도의 숨결展

○… 늦깍이 한국회화가 이호신씨의 3번째 개인전 「반도의 숨결」전이 오는 3일부터 인사동 덕원갤러리에서 열린다.

이번 전시회에는 10년 가까이 국토 곳곳을 다니며 느낀 우리의 산하와 문화유적지를 전통 필묵으로 구사한 수묵담채화 36점이 선보인다.

다비장 가는길, 메주와 시래기, 운주사 천불천탑, 5월의 산유리, 태백산 정암사등 이번 개인전에 출품된 작품들에는 과거의 유물과 현재의 풍경을 연계하면서 우리시대에 필요한 어떤 정서를 환기시켜 주거나 드러내 보이겠다는 붓을 든 작가의 의지와 함께 삶의 진솔한 이야기가 담겨져 있다.

미술평론가 유홍준씨(영남대 교수)는 이씨의 작품들을 "이씨의 작품에서는 예술적 끼를 앞세우기보다 진실한 삶의 현장을 표현하는데 혼신의 힘을 다 하고 있음을 엿볼 수 있다"며 "이씨는 모더니즘의 흐름에 진원지를 잃어가는 한국화단에 주체의식을 가진 든든한 한국화가"라고 평가했다.

'한국자연대전' '신춘호대' '한국현대미술의 꽃' 전등 단체전에도 다수 출품한 화가 이호신씨는 현재 「해인」지에 '거레의 숨결과 풍경'이라는 기행미술을 연재중이다.

이번 전시회는 오는 14일까지 12일간 열린다.

### 안성금 「관음」등 내놓아

○… 한국의 현대미술 50년을 한눈에 볼수있는 「한국현대미술 50년전」이 지난 21일부터 이달 29일까지의 일정으로 과천 국립현대미술관에서 열리고 있다.

이 대형전시회는 광복50년과 미술의 해를 기념해 문체부와 일간오늘, 95미술의 해 조직위가 주최했다.

이중섭의 「소」등 비중있는 화가·조각가들의 대표작이 전시되는 이번 전시회는 한국의 7대 사립미술관이 소장하고 있는 작품들을 내놓아 주목받고 있다. 특히 안성금씨의 설치미술 「관음」이 전시돼 불자들의 눈길을 끈다. 안성금씨는 흥익대미대를 나와 활동중인 중견작가로 이번에 출품한 「관음」은 설치미술이 갖는 입체감과 관음상의 조형미가 돋보이는 작품이다.

### 석정·일장스님 선화작품

○… 한국불교 선화가의 대가들이 대거 참여하는 전시회가 제주에서 열린다.

한라불교신문(대표 김승석)은 창간 6주년을 맞아 3월2일부터 6일까지 제주문예회관 전시실에서 초대전을 갖는다.

이번 초대전에는 무형문화재 석정스님을 비롯 일장, 성륜, 보하스님과 제주최고의 서예가 소암, 전각가 무용선생등의 작품 1백여점이 전시된다.

### 남궁산 목판화 장서표전

○… 자신의 장서(藏書)라는 표시로 책의 표지나 뒷면 또는 안겉장에 붙이는 표, 장서표를 선보이는 전시회가 인사동 화랑가에서 열렸다.

지난 22일 관훈동 현화랑에서 문을 연 「남궁산 목판화-장서표전」이 바로 그것.

남궁산씨의 장서표는 표주의 취향과 책의 성격까지 짐작할 수 있는 몇가의 생략된 그림으로 포착된 것으로 이 전시회에서 판화작가 홍선스님, 남궁산씨가 제작한 시인 신경림, 미술평론가 유홍준, 불자주부 이보란, 민예총 김용태 사무총장등 78명의 장서표가 전시됐다.

4일까지 전시된다.

### 김행신 첫 조각개인전

○… 조각가 김행신씨의 첫 개인전이 지난 28일부터 3월12일까지의 일정으로 프레스센타 서울갤러리에서 열리고 있다. 30년간의 작업을 총정리한 김씨의 이번 전시에는 「불심」「어머니」등 40여점의 브론즈 작품이 전시되고 있다.

## 반야심경 '서예명품집' 출간

## 왕희지·추사등 필적 한눈에



◇왕희지가 쓴 반야심경 2백62글자중 「般若波」글자.

〈반야심경〉을 쓴 서예 대가들의 작품이 한데 모아져 서예의 진수를 반야심경과 함께 볼 수 있게 됐다.

도서출판 청산이 최근 펴낸 「반야심경 명품선」에는 왕희지, 구양순를 비롯 추사에 이르는 10여명의 명인이 쓴 반야심경만을 모은 서예교본. 이 책에 실린 서예가들은 서예의 성인으로 불리는 왕희지, 해서의 최고봉인 구양순, 청나라 제일의 신품이라 불린 등석여등. 이 밖에도 명나라의 8대산인(八大山人)과 추사 김정희, 추사의 스승인 옹방강, 시·서·화·전각의 4절로 꼽히는 오창석의 글씨도 만날 수 있다. 또 장개석 정부의 감찰원장을 지냈던 초서의 명장 우우임의 필체도 실려있다.

### 조선총독부 오가와 수집 문화재자료도록 펴냈다

일제시대 조선총독부에 근무하며 각종 문화재 수리공사와 유적조사를 벌였던 오가와 게이키치(小川敬吉)가 남긴 국내 문화재 자료들이 도록으로 묶여졌다.

문화재관리국 문화재연구소는 해외에 흩어져 있는 한국 문화재 자료발굴 작업의 일환으로 일본 교토대학이 소장해온 자료를 수집 정리해 「조사문화재 자료」를 펴냈다. 오가와는 1916년부터 44년까지 전국의 사찰건물, 석탑, 불상, 범종, 궁궐, 관아, 향교, 공예품등 1천2백47건을 조사해 4천4백37점의 사진과 탁본으로 남겼다. 이번 도록에는 전체 목록과 함께 9백64점의 사진과 탁본이 소개돼 있다.

## 불교문화계

### 찬불가 노래방 테잎제작

불음보급회(회장 조영근)가 법회장소나 각종 모임에서 즐겨 부르는 찬불가 22곡을 모아 경음악과 노래테잎으로 제작했다. 「찬불가 노래방」이란 타이틀로 제작된 이테잎은 「사홍서원」「예불가」등을 1개는 가사포함해 실었고 1개는 가사가 없는 반주만을 담아 찬불가부르기를 쉽게 했다.

### 현대불교문학회로 개칭

불교문학포교원(원장 혜관)의 큰수레 글나눔회가 「현대불교문학회」로 상오문학상이 불교문학 신인상으로 지난 15일자로 각각 명칭이 변경됐다.

### 찬불가 가요가사 공모

한국불교청소년 문화진흥회(이사장 박용렬) 부설 대한불교찬불가 제정위원회(위원장 정용우)가 「찬불가 가요가사를 현상공모」한다.

오는 4월10일까지, 6월1일부터 9월30일까지 2차례에 걸친 공모의 대상작품은 동요가사, 불음가요가사, 찬불가가사, 판소리사설(20분용)부분에 공양, 발원, 통과의례, 예배, 찬탄, 회향의 주제를 포함한 찬불가요와 가사다.

(문의:416-3346)

### 개원 1주년 기념법회

초의선원(원장 용운)은 오는 1일 오전10시 초의선원 개원 1주년 기념법회를 갖는다. 이날 법회에서는 초의선사의 선사상과 초의선사 다도관이 10시30분부터 12시까지, 오후 2시부터 3시까지 강연도 펼쳐진다.

(02)732-2317

## 화제연극



## '만해 한용운' 무대선다

### 8일부터 3일간 고대 인촌기념관서

광복50주년 기념사업의 일환으로 성북구청이 마련한 만해 한용운 스님의 일대기 연극이 3월3일부터 3일간 고려대 인촌기념관에서 공연된다.

성북구 관내 신명예술단이 꾸미는 이 연극 「만해 한용운, 당신을 보았습니다」는 공연끝까지 일지에 굴복하지 않았던 독립운동가, 시대정신을 아름다운 시로서 그릴 줄 알았던 예술가, 불교의 진정한 교리를 알았던 스님, 그리고 개인적인 번뇌와 갈등을 지닐 수 밖에 없는 한 인간으로서 만해 한용운스님이 주는 감동과 교훈을 여덟마당 22장면의 극중 극형식으로 흥미진진하게 형상화하고 있다.

노래, 춤, 풍물, 무대미술이 하나로 어우러져 펼쳐지는 「만해 한용운 당신을 보았습니다」는 박인배씨의 총연출로 8일 1회, 9일과 10일 각각 2회 총 5회 무료공연하고 3월 공연이후 전국순회공연을 계획중에 있다.

이번 공연을 마련한 성북구청의 한 관계자는 "만해스님이 말년에 주석했던 심우장이 성북2동에 있어 광복50주년과 3·1절을 기해 이 무대를 마련했다"며 "비교적 짧은 기간에 준비한 무대이긴하나 만해스님을 통해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들이 '조국'과 '인간적 삶'을 다시 생각할 시회를 줄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 문화재소식

### 보존, 정비사업 추진

### 1억1천만원 투입

충남 청양군은 최근 각종 문화재의 훼손방지와 보존을 위해 대대적인 보수·정비사업을 추진키로 했다.

청양군은 총 사업비 1억1천2백만원(국비 3천7백만원, 도비 1천8백만원, 군비 5천7백만원)을 들여 6건의 문화재 보수및 정비사업을 추진키로 했다.

특히 군은 도지정 문화재인 정산면 남촌리 3층석탑을 보수하고 주변을 새롭게 단장하는 한편 정혜사의 칠성각을 개·보수, 주민들의 정서순화및 문화공간으로 활용할 방침이다.

## 범어사벽화 단청 模寫보존

梵魚寺 대웅전(보물 제434호)과 이곳에 그려져있는 각종 벽화·단청등이 영구보존 가능하게 됐다.

부산金井구청은 지난해 7월 문화재 관리국의 승인을 받아 문화재 공사 전문업체인 삼성건축사(소장 장순용)에 의뢰 지난해 8월부터 실시한 梵魚寺 대웅전의 단청과 벽화문양에 대한 모사작업 및 건물 실측작업을 최근 완료했다.

벽화 단청문양 모사작업은 범어사 대웅전 외부 우측 박공벽 상단의 불화 4점과 외부 포벽 전면의 10개소 배면의 10개소등을 중심으로 이뤄졌으며 특히 사진촬영을 할 경우 색감의 변질에 따른 차이를 막기위해 비계를 설치 현장작업 위주로 실시됐다.

문양모사시에는 잘 비치는 화선지를 붙인후 바로 입체한뒤 다시 뒷면을 배접하는 새로운 방법이 시도되기도 했다.

건물실측은 정확한 조사를 위해 내 외부에 비계와 규준틀을 설치했으며 건물의 틀어짐이나 변형도 실측했고 지붕곡선과 처마곡선도 빼놓지 않는등 건물의 전체적인 아름다움이 함께 조사됐다.

범어사와 구청은 이번작업에서 보존가치를 지닌 조선초중엽 추정의 아미타삼존도 약사삼존도를 비롯해 백호도 신선도등 80여점의 벽화 단청문양 모사와 건물실측도를 영구보존 산 역사 교육자료로 활용키로 했다.

### 한·일 문화재보호 연구·합의서 교환

장경호 문화재연구소장은 지난 21일 오후4시 니시카와 교타로(西川杏太郎·67) 도쿄국립문화재연구소장과 한·일 문화재보호 공동연구를 위한 합의서를 교환했다.

양국은 올해부터 5개년 계획으로 공동연구를 벌일 계획이다. 이를 위해 연내에 온도 습도 우량 비 분석 풍향등을 측정하는 문화재환경 관측장비를 우리나라 원각사지 10층석탑등 양국의 주요문화재에 설치할 예정.

## 마이산 천지탑 연대·제작자 '새학설'

전북 진안군 마이산 탑사(塔士)의 천지탑(天地塔)에 최근 그 기원연대와 제작자를 놓고 새로운 학설이 제기돼 학계의 관심을 모았다.

마이산의 기이한 경관을 배경으로 하늘 높이 치솟은 기발한 현태의 천·지의 이 쌍탑은 그동안 20세기 초 이갑룡(李甲龍)거사가 축조했다는 설이 통설이었던 것을 이갑룡 거사가 중수한 탑이란 설도 제기되 논란이 일었던 것.

논란이 일자 진안군은 지난해 7월 동국대 불교미술·문화재연구소에 학술용역을 의뢰, 마이산 탑사 조사단(단장 문명대)은 최근 이에대한 조사보고서를 펴냈다.

보고서는 천지탑의 제작년대를, 기법상으로 돌담식 허튼막돌식쌓기로 축조한 점, 정교한 축조법과 시멘트 보강 등으로 보아 1900년대 이후에 조성된 자연적 석탑으로 추정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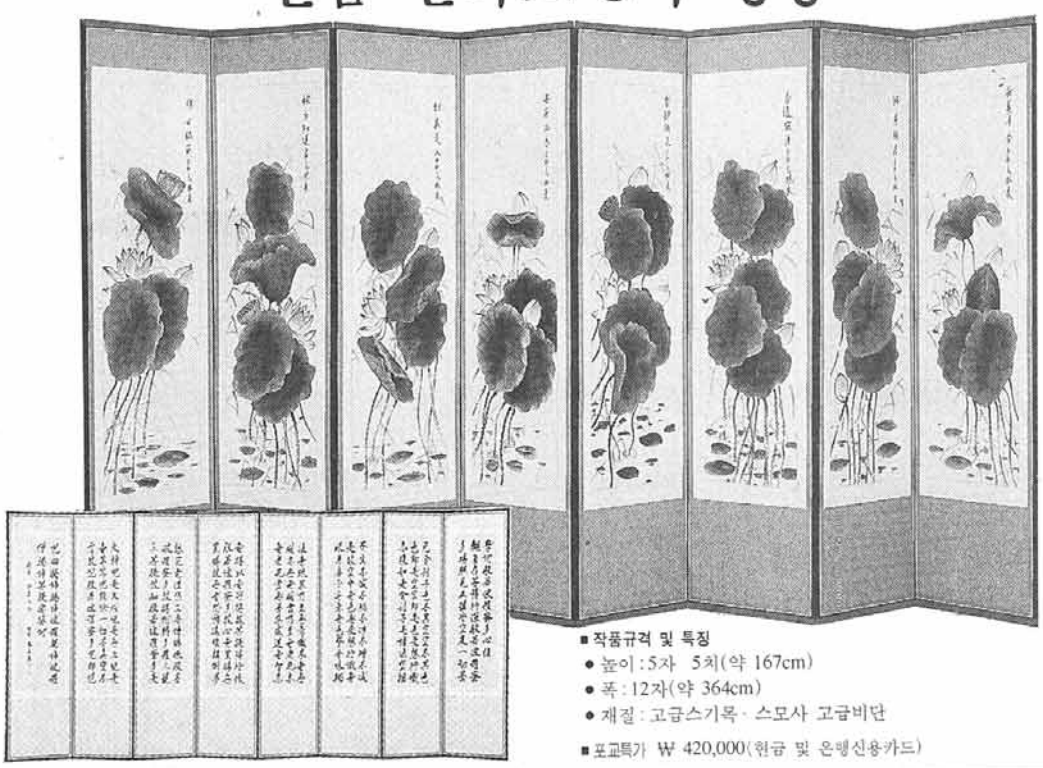
### '한국불교학' 논문2집 4월28일까지 접수

한국불교학회(회장 김영태)는 올 가을에 개최예정인 제24회 추계 전국불교학술발표대회에 앞서 발간되는 〈한국불교학〉 제20집의 논문 원고를 모집한다.


# 인연닿는 佛子님에게 불성을 전합니다

재가佛子 林泉화백 수행작품

## 진품 연화도 8폭 병풍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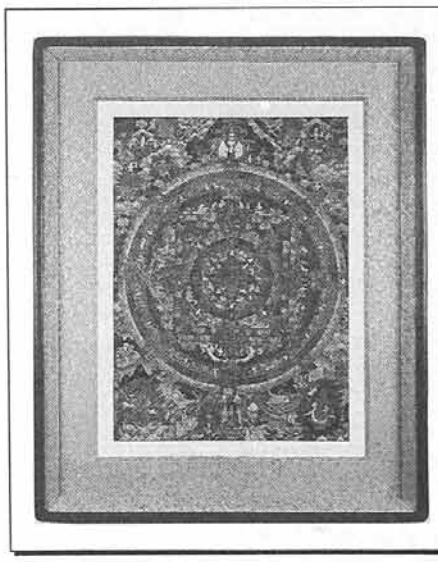


■ 작품규격 및 특징
- 높이 : 5자 5치(약 167cm)
- 폭 : 12자(약 364cm)
- 재질 : 고급스기목 · 스모사 고급비단

■ 포교특가 ₩ 420,000(현금 및 은행신용카드)

티베트 스님 안거 수행작품

## 진품 만다라



■ 작품규격 및 특징
- 규격 : 가로 49.6cm 세로 56cm
- 재질 : 고급스기목 · 고급비단 3중 입체표구

■ 규격과 작품구성은 다소 차이가 있습니다.

■ 포교특가 ₩ 480,000

(글로버써비스) 전화 080-023-1101, 지방에 계신 분은 수신자가 요금을 부담하는 글로버써비스 전화를 이용하세요.

불교전통불화공예연구원 (조계사 후문)
기획 제작 三田佛事
■ 문의처 : (02)732-6095 ~ 6

불교전통표구, 각종 불교행사기념품, 사찰인쇄 기획에서 제작까지 저렴하게 하여 드립니다.

## 해외통신

# 맨체스터 불교회관설립

### 법당·도서관·요가·의료시설등 갖춰

영국 맨체스터의 중심가에 있던 5층 상점건물이 맨체스터 불교센터로 개조되고 있다. 새로 확대된 이 공간은 기존의 맨체스터 센터의 활동에 필요한 공간뿐 아니라 법당, 도서관, 공부방, 요가, 맛사지, 침놓는 방 등의 건강 시설을 비롯하여 비디오제작업체인 클리어 비젼, 서구불자회의 여성불자를 위한 잡지인 다키니 편집실을 설치하고 지하에는 카페와 공연장까지 마련할 계획이다.

이 공사는 맨체스터의 불자회에서 착수한 가장 큰 기획으로서 맨체스터 승가의 건물 작업반이 개조작업의 대부분을 담당하고 있다.

한편 이 지역은 최근 의류 및 패션 산업이 번창하고 있는 번화한 곳으로서 앞으로 이 센터가 개원되면 더 많은 사람들이 쉽게 이용할 수 있는 장소로 활용할 계획이므로 포교의 거점으로 큰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

### 몽고·티벳불교 전시회
#### 英피트리버스 박물관

영국 옥스포드의 피트 리버스 박물관에서는 1994년 세모에 몽고, 티벳지역의 불교를 소개하는 전시회가 열렸다.

'하늘의 고지:몽고와 티벳의 불교'라는 제목의 이번 전시회에서는 멕지드의 몽고사찰 모형이 전시되어 관람객의 시선을 끌었다. 이 모형은 최근 몽고에서 지난 수십년간의 종교에 대한 압제로부터 불교의 부흥을 도모하기 위해 제작된 것을 영국 국립 미술품 수집기금, 박물관·화랑 위원회, 피트 리버스 박물관 후원회의 원조로 피트 리버스 박물관에서 구입한 것이다.

### 日에 지진성금 2만불

하와이 홍파 홍완지 포교원에서는 일본 고베 지진참사가 보도된 즉시 그 희생자들을 돕기위한 모금에 나서 하와이 포교원 긴급원조기금을 통하여 2만달러를 1월 20일 일본의 홍완지본부에 전달했다. 관계자에 따르면 앞으로도 개인 및 법인단위의 지속적 모금운동이 펼쳐질 계획이다.

### 美불교학교 교사회의
#### 4월 15~17일 빅아일랜드

미국 빅 아일랜드에서는 1995년 4월 15일부터 4월 17일까지 로얄 웨이콜란 호텔에서 미국 불교학교 교사회의가 열린다. 이번 회의의 주제는 '불법에 쉽게 다가가게 하는 방법'으로서 라마 예셰 왕모, 브루스 나카무라 스님, 미도리 곤도 여사가 강연할 예정이다.

이외의 프로그램으로 교과과정 및 교육자료 개발을 위한 흥미있는 워크샵도 준비중이며 가라오케, 댄스파티, 일용품 경매 등의 다채로운 행사를 마련 많은 교사, 포교사, 스님의 참가를 기다린다.

### 인도순례기 비디오 호평

석가모니의 발자취라는 제목의 인도순례기가 일본에서 비디오로 제작되어 호평을 받고있다. 지난 1983년 슬라이드로 제작되었던 것을 스레이루 회사에서 이번에 2편의 비디오로 재편집한 것이다.

제1권에는 석가의 성지인 룸비니, 부다가야, 사르나도 등을 통하여 부처님의 생애를 뒤돌아보며 각지의 박물관에 소장되어 있는 불전조각도 함께 수록하고 있다.

제2권은 불교의 보호에 힘썼던 아쇼카왕의 발자취와 남방에 있는 용수의 성지를 방문, 불교미술의 기원을 찾고 있다.

〈박미영 기자〉



◇ 천태종이 서울 우면동에 건립중인 관문사의 조감도

# 각 종단 대규모 불사 박차

천태종 도시전당·복지시설 건립　　진각종 36만여평 성지타운 조성

관음종 경기가평에 종합연수원　　법륜종 불교회관 세워 종도교육

각종단이 포교와 신행활동의 일번지 역할을 하게될 종합회관등 대규모불사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내년에 진기 50년을 맞는 진각종(통리원장 최지광)은 국제화 시대에 대비해 종단차원의 대규모 진각성지를 조성할 계획으로 현재 경기도 안성에 부지매입, 계약을 완료하고 금년내로 본격적인 불사에 착수한다는 계획이다.

10년동안 연차적으로 조성하게될 진각성지는 36만5천평의 대지에 2천여평의 규모로 불당을 비롯 불교박물관, 상담관, 도서관등의 종교시설은 물론 문화시설, 레포츠 시설등 다양한 부대시설을 갖춘 종교타운을 조성하게 된다.

또 진각종은 종립학교의 교육불사에도 적극적으로 지원한다는 방침아래 구체적인 계획을 세우고 있다.

최근 종단의 위상강화를 위해 다각적인 불사를 추진하고 있는 천태종(총무원장 전운덕)도 각 도시마다 전당건립이 필요하다는 종단적인 인식아래 전당건립 불사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천태종의 총본산역할을 하게될 서울 서초구의 관문사를 비롯 10개지역에 전당을 건립한다는 계획이다.

천태종의 숙원사업으로 펼쳐지고 있는관문사는 지하 4층 지상 7층 연건평 6천2백80평의 규모로 예참, 설법전도의 대강당, 염불 지관의 수도장 등을 비롯 효율적인 교화와 원활한 종무행정의 장으로 종도들의 근본 신행도량으로 건립되게 된다.

한편 율해안으로 부산이나 충청도 지역에 양로원이나 장애인 복지시설 건립에 착수할 계획이어서 종단 차원의 대작불사가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관음종(총무원장 이홍파)은 95년 건설 사업으로 경기도 가평에 대규모 연수원건립을 목표로 본격적인 제반 준비작업에 들어갔다.

종단연수원은 종도들의 기본 예절교육은 물론 전문적인 포교사 배출을 목표로 각종 시설을 갖춘 종교타운 형식을 띠게 된다.

법륜종(총무원장 석일화)은 지난해 총무원청사를 종로구 수송동으로 이전하고 조계사 근처에 부지를 매입 종도들의 교육은 물론 사회 문화 신행 포교의 전당이 될 종합불교회관을 건립한다는 목표하에 본격적인 불사준비작업에 한창이다.

〈김중근 기자〉

# 맑고 향기롭게 삽시다

### 운동본부 · 현대불교 공동 캠페인

## 음악회 꽃씨보급 · 나무심기행사

맑고향기롭게운동본부(회주 법정스님)는 우리의 마음과 세상을 본래 모습 그대로 맑고 향기롭게 가꾸며 살아가자는 취지아래 다채로운 행사를 마련하고 나섰다.

이 시대를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과 함께 하는 맑고향기롭게운동본부는 3월27일 오후 2시 대전 우송 예술회관에서 법동 사회복지관(관장 종실스님)주최로 '어려운 이웃과의 결연을 위한 음악회'를 마련한다.

맑고 향기롭게 살아가기운동은 여기에서 멈추지 않고 아름다운 꽃으로 이세상을 더욱 아름답게 하기 위해 '꽃씨 나눠주기 운동'을 벌여 전국 각 초·중·고등학교에 꽃씨를 보급, 아름다운 화단을 꾸며준다는 계획아래 후원자를 모집하고 나섰다.



◇ 진각종 청정국토 가꾸기 운동 본부가 북한산에서 매립 쓰레기 수거 작업을 벌이고 있다.

## '청정국토가꾸기' 전국 확산

### 재생비누 생산·우유팩 모으기등

진각종이 펼치고 있는 '청정국토 가꾸기 운동'이 전국적으로 확산돼 사회적으로 많은 관심을 모으고 있다.

진각종은 현세의 혼탁함을 씻어내고 국토의 청정을 보전코자 하는 취지로 환경보건사업(분리수거·포장줄이기·청정마을 가꾸기), 생명존중사업(헌혈·장기기증·장애인보호), 지은보은사업(우리말 사랑·소년소녀가장 돕기·무의탁노인 결연)의 3대 사업을 꾸준히 펼쳐 환경오염의 심각성을 일깨워주고 있다. 청정국토가꾸기운동은 각 지구 관구청을 중심으로 다양하게 전개하고 있다.

대전 신덕심인당(주교 대안화정사)은 가정마다 우유팩 모으기를 권장하고 자성일마다 모은 우유팩을 재활용품 교환장소에서 화장지와 교환해 주는등 생활속에서 환경의 중요성을 자연스럽게 인식시켜 주고 있다.

서울 유가심인당(주교 혜정정사)은 매월말 정기적으로 산을 찾아 숲속 사이의 깨어진 빈병, 일회용 종이컵, 담배꽁초는 물론 매립쓰레기까지 일일이 수거하는등 산을 찾는 많은 등산객들에게 홍보도 겸하고 있다.

대구 보광심인당(주교 효암정사)은 93년 2월부터 아침 저녁 두차례에 걸쳐 몽담집등에서 폐식용유를 수거해 가성소다와 물을 섞은다음 우유팩에 부어 3,4일의 건조과정을 걸쳐 재생비누를 생산, 신도는 물론 이웃에게까지 나누어주고 있는데 좋은 반응을 얻고 있다는 것이 주위의 평이다.

효암정사는 "수질오염방지의 일환으로 시작된 재생비누 생산은 신교도들에게 환경오염의 심각성을 일깨워 주는데 충분했다"라고 말하며 "앞으로 환경오염방지의 파수군으로써 모든 역량을 다하겠다"라고 야무진 포부를 밝혔다.

포항 보정심인당(주교 법광정사)은 주말이면 등산객들이 많이 찾는 영일군 운제산을 찾아 '자연속에 내가 살고 내 정성으로 자연이 산다'는 구호가 적힌 어깨띠를 두르고 장기간 부식되지 않는 깡통, 비닐 등을 수거하는등 청정국토가꾸기 운동에 선구자적 역할을 하고 있다.

〈김중근 기자〉

# 태고종 전국신도회 개편

### 교구별 이사2명 영입 다양한 사업전개

태고종 전국신도회(회장 김혜회)는 위상강화와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조직개편을 단행할 것으로 알려졌다.

신도회는 종단산하 각 교구별로 추천이사를 2명씩 영입, 전국신도회를 구성한다는 계획하에 각 시도 종무원장에게 추천을 의뢰 했다.

이에따라 신도회는 약 50명의 이사진이 구성되면 신도회의 재원을 확보하고 이를 토대로 다양한 사업을 전개한다는 방침을 세우고 있다.

### 천태종 2일 동안거 해제

천태종(총무원장 전운덕)은 오는 2일 구인사 삼보당에서 김도용종정을 비롯 전운덕 총무원장과 사부대중이 참석한 가운데 동안거해제식을 봉행한다.

이번 천태종 동안거는 평소 종단일과 말사일에 전력하고 있는 승려들이 종정스님의 가르침을 따라 지난 1월 12일 안거를 시작 50일 만에 회향하게 된다.

한편 천태종은 오는 4일부터 14일까지 각 지역 말사 9개지역을 순회하는 신도간부단합법회를 개최한다. 각 시·도 단위로 실시되는 이번 단합법회는 각 지역 사찰 신도들이 참석, 법회와 윷놀이 등 다양한 행사로 마련된다.

### 태고종 부장급 인사

태고종(총무원장 박서봉스님)은 2월 6일 총무원 부장급 일부에 대한 인사개편을 단행했다.

인사개편에 따르면 재무부장 우혜공스님, 교무부장 정대은스님, 사회부장 류우담스님을 각각 전보발령했다.

이번 단행된 인사개편은 종단의 원활한 행정업무와 1월에 출범한 종단발전특위의 사업을 추진하기 위한 것이다.

# '환경보전' 수륙영산대법회

### 태고종 생명존중·도덕성 회복 다짐

태고종(총무원장 박서봉)은 오는 27일부터 29일까지 경기도 평택호 국민관광단지(아산만)에서 '환경보존실천을 위한 수륙영산대법회'를 거행한다.

이번 환경보존대법회는 방생정신을 통해 생명존중정신 구현, 도덕성 회복 및 신앙심을 고취시켜 밝고 맑은 사회분위기를 조성한다는 취지로 마련된다.

### 통일기원방생대법회
#### 보문종, 임진강서

보문종 보문사(주지 황법준스님)는 지난달 14일 임진강 두포나룻터에서 남북동일과 선망부모 왕생극락을 위한 수륙방생대법회를 봉행했다.

### 성룡사 장학금 전달식
#### 김기현군등 9명에

천태종 서울 성룡사(주지 김경천)는 2월 19일 대웅전에서 신도2백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장학금 전달식을 가졌다.

신도들의 성금으로 마련된 장학금은 신학기를 맞아 삼룡사 불교학생회원 가운데 김기현(중앙대 4년)군을 비롯 9명에게 총 2백40만원을 지급했다.

# 강원의 비교종교학

목탁소리

김 재 경

〈취재2부 기자〉

조계종 지방승가대학에 비교종교학 과목이 개설된다.

조계종 교육원 산하 교육위원회(위원장 도법)는 지난 1월 6일 제1차 회의에서 강원의 비교종교학 과목 채택과 교육교재 출간을 결의한 이후 3월초까지 기본계획을 수립, 8월말까지 교재발간을 완료할 예정이다. 이는 전국 가톨릭·기독교 신학대학에서 오래전부터 비교종교학이 대부분 필수과목으로 인정되고 있는 현실을 감안할 때, 뒤늦은 감은 있으나 반가운 일이 아닐 수 없다.

불교계도 이제 다종교 사회속에서 21세기로 향하는 세계의 기류를 염두에 두고 시야를 넓혀, 타종교와의 관계에 있어 명확한 입장 견지와 유연한 대처 능력을 길러야 한다.

그간 각 신학대학은 타종교의 문화와 사고방식을 비교종교학을 통해 교육함으로써 전도(傳道)사업에 있어 괄목할만한 성과를 이루어냈다. 하지만 불교계는 전통적인 포용성과 가장 수승(殊勝)한 가르침이라는 우월감으로 인해 타종교에 대한 연구와 포교를 게을리한 나머지 교세(敎勢)가 위축되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현재 전국에 종교학과가 개설된 대학은 5개 학교에 불과하며, 박사과정 이상으로 비교종교학을 전공하는 인원은 1백여명에 불과한 것이 현실이다. 게다가 50%이상이 기독교 종교를 가지고 있으며, 비교종교학 교재도 대부분이 신학적 입장에서 기술된 점에 유의해야 한다.

아무튼 강원의 비교종교학 강좌는 한국문화전통에서의 불교의 위치를 자리매김하고, 미래사회의 인류를 이끌어갈 수 있는 역량을 기르는 신선한 자극제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 불교성지순례



**파키스탄 간다라 불교유적 순례 9일**

※ 대한항공 특별전세기 편으로 편안하게 다녀오세요
· 출발 : 5월 13일(단1회) · 동참금 : 140만원
· 일정 : 서울－이슬라마바드－탁실라(자울리안 불교대학 터)－스왓(붓카라, 타킷바이)－탁티바히－페샤와르－라호르－이슬라마바드－서울

**티벳·네팔 10일**

· 출발 : 4월 8일 · 동참금 : 230만원
· 일정 : 서울－카트만두－라사－체탕－샹체－시가체－라사－카트만두－서울

**미얀마·태국 7일**

· 출발 : 3월 6, 20일 · 동참금 : 135만원
· 일정 : 서울－방콕－양곤－파간－만달레이－페구－양곤－방콕－서울

**인도·스리랑카 15일**

· 출발 : 3월 7일 · 동참금 : 215만원
· 일정 : 서울－델리－럭나우－발람푸르－룸비니－쿠시나가르－바이샬리－파트나－나란다－라지기르－부다가야－바라나시－아그라－델리－오랑가바드(엘로라·아잔타)－봄베이－콜롬보－아누라다푸라－폴론나루와－덤불라－아루비하르－캔디－콜롬보－싱가폴－서울

**인도·네팔·태국 11일**

· 출발 : 3월 2일 · 동참금 : 165만원
· 일정 : 서울－방콕－델리－사르나트－부다가야－파트나－나란다－영취산－죽림정사－바이샬리－쿠시나가르－카필라바스투－기원정사－사윗성－룸비니－카트만두(보드넛·스와이앰부넛)－방콕(세벽사원 에메랄드사원)－서울

**스리랑카 6일**

· 출발 : 3월 10일, 24일 · 동참금 : 108만원
· 일정 : 서울－콜롬보－아누라다푸라－하바라나－폴론나루와－시기리야－하바라나－덤불라－아루비하르－캔디－콜롬보－서울

**인도네시아 5일**

· 출발 : 3월 19일 · 동참금 : 85만원
· 일정 : 서울－덴파사－족자카르타－자카르타－서울

**대만 5일**

· 출발 : 3월 17일 · 동참금 : 65만원
· 일정 : 서울－타이페이－고웅－화련－타이페이－서울

■여행조건 ●특급 및 1급(인도성지지역은 현지최고수준) 2인 1실 수준 ●전일정 식사제공(인도성지지역은 한식제공) ●최소 출발인원 : 10인 ●전문 가이드 동행 ●여행자 보험

HYECHO ADVENTURE TOURS, LTD. 혜초여행사
국외여행업 제604호
서울시 강남구 신사동 637-10
02) 544-1533 (代)

3월26일 2백회 기념공연

# 불교방송 '거룩한 만남' 자비전파로 자리매김

## 11억원모금 1백92세대에 '재활까지 보조'

소아마비로 어려운 삶을 지켜온 박병선씨(37). 그에게는 생후 1백일이 지나서 심한 소아마비증세가 나타났다.

그래서 장남인데도 불구하고 호적에 오를수 없었다.

불굴의 의지로 살아온 박병선씨는 손가락도 4개밖에 없는 환경에서 피나는 노력을 결들인 독학으로 공구를 만들며 어렵게 살고있다.

박씨의 평생소원은 남의 연탄수레를 뒤에서 밀어주는 것이고 또하나는 기차를 단 한번만 타보는 것이었다. 한번도 울지않았다며 슬픔을 삭이던 박병선씨는 '거룩한 만남'에서 끝내 눈물을 흘리고야 말았다.

이방송을 들은 철도동호회에서는 3월 빛꽃열차 운행시 소원을 풀어주겠다는 제의를 해와 한가지 소원은 이루게 됐다.

또 구리시에 사는 정훈이는 백혈병을 앓고있는 시한부 어린이.

정훈이의 이야기가 '거룩한 만남'을 통해 소개되자 군인들이 한 트럭 을 타고와 헌혈을 해주고 갔으며 이날 모금한 성금 2천9백60만원으로 수술까지 하여 건강한 어린이가 됐다.

우리 주위의 굶주리고 헐벗은 이웃의 이야기를 전하는 불교방송의 '거룩한 만남'(담당 PD 최윤희)이 진행되는 매주 금요일 오전 9시05분부터 1시간동안은 청취자들이 흘리내리는 눈물을 주체하지못해 연신 손수건을 꺼낸다.

91년 4월 5일 첫방송되어 오는 4월 5일로 2백회 방송을 맞이하는 '거룩한 만남'은 첫방송부터 청취자의 가슴을 울려 불교방송의 참모습과 한번 방송에 평균 7백여만원의 성금이 답지하는 호응을 보이고있다.

'거룩한 만남'은 현재까지 방송을 통해 192세대에게 11억여원의 도움을 주었고 방송이외에도 도심공중화장실에서 기거하는 사람들까지 포함하면 2백여 세대를 훨씬 넘는다.

'거룩한 만남'이 단지 방송프로로 그치지 않고 감동의 밀물을 넘쳐나게 하는 것은 흔히 방송이 갖는 일회성이 아닌 완전자활까지 책임진다는 점이다.

그래서인지 수를 거듭할수록 감동의 메아리는 더욱 커져 이제는 개인 의지와 방송의 한계까지도 뛰어 넘어 버렸다. '거룩한 만남'에는 기독교, 천주교신자들도 참여 종교의 벽까지 허물어 버리고 있다.

매주 한차례의 방송이지만 12명의 자원봉사자들은 각 구청과 동사무소를 다니면서 사회복지전문요원을 면담하여 도움이 절실한 사람을 파악한다.

그렇게해서 선정이 되면 장해정 리포터와오선희 보살 등 자원봉사자 교통통신원이 함께 취재한다.

전반부에는 자원봉사자와 리포터가 이십여분동안 취재내용을 방송하고 후반부에는 동참전화를 받는데 청취자 전화가 빗발쳐 방송 업무에 지장이 갈 정도라고.

특히 이 프로가 인기있는 이유는 정목스님의 애절한 호소력과 이웃을 위한 열린 마음이 크게 작용하고 있다.

'거룩한 만남'은 사회봉사 노력으로 91년 한국방송대상(사회부문)을 수상했고 라디오 방송프로로는 처음으로 방송위원회가 이달의 좋은프로그램으로 선정하기도했다.

이달 26일 세종문화회관 대강당에서 개최될 2백회특집 기념공연은 거룩한 만남을 더욱 거룩하게해 말없이 참여해준 분들에게 보답하는 의미로 준비하고 있다.

〈김원우 기자〉



◇'거룩한 만남'의 진행자 정목스님이 방송으로 소개된 어려운 이웃을 방문해 격려하고 있다.

코리아리서치, 선학원 분원장 설문조사

## "정관개정 요구 부당" 90%

### 현상유지선 조계종과 타협 55%

재단법인 선학원(이사장 정일스님)의 분원장들은 현재 조계종에서 강력히 요구하고 있는 정관개정 요구와 권리제한 방침에 대해 대다수가 '부당하다'고 인식하고 있으며 조계종의 제재조치시 '새로운 종단이 되지'는 견해가 과반수 이상(57%)임이 나타나 관심을 모으고 있다.

이같은 사실은 (재)선학원이 조사기관인 「코리아 리서치센터」에 의뢰 지난해 12월7일 조사돼 지난 22일 교계기자간담회때 발표된 「재단법인 선학원 전국 분원장회의 여론조사」에서 나타났다.

선학원이 조계종과의 관계를 알아보고 향후 활동방향 정립에 필요한 기초자료로써 조사된 이번 여론조사의 대상은 총 1백35명이다.(선학원 분원은 299곳, 포교원은 226곳 총 525곳)

선학원 스님들은 사설사암에 대한 강력한 제재조치를 담고 있는 조계종 종헌에서 규정하고 있는 권리제한 방침에 대해서 '부당하다'는 의견이 89.6%이고 '정당하다'가 8.1%였다. 교육기회 제한방침에 대해서도 '부당하다'가 92.6%로 높게 나타났다.

또한 조계종이 요구하고 있는 명의변경등에 대해서는 전체 응답자의 88.1%가 부당하다고 응답하고 이러한 요구를 수용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75.8%)고 답하고 있다.

전체 응답자의 61.5%가 조계종에 재산을 등록하지 않더라도 권리를 행사할 수 있어야 한다고 답변하고 있다. 16.3%가 등록하지 않은 상태에서 권리행사는 부당하다고 답했다.

또한 조계종헌의 개정 배경에 대해서는 '법인와해 흡수'(44.4%) 조계종의 세력 확장(43.7%) 재정분담압박(31.1%)순으로 답했고, 응답자의 85.2%가 선학원이 조계종에 비해 확실하게 사제상승을 보장해 줄것이라고 응답했다.

최근의 조계종의 제재조치에 대해 54.8%가 '선학원을 현상유지하는 선에서 타협'을 44.4%가 '새로운 진로를 모색'해야 한다고 밝히고 조계종이 승적관련 제재시에는 '종단이 되어야 한다'(57%)가 '종단이 되어서는 안된다'(31.1%)보다 높아 창종 가능성도 배제하지 않고 있다.

선학원에 증여(또는 명의등록)등기로는 △재산압류 회피 △사제상승 보장 △인사·관리상의 불간섭 △재단법인이어서 순서로 높은 응답율을 보였다.

〈숙〉

# 불교자료 전산화 가속

## 대장경등 CD롬 제작·통신서비스 … 삼성도 12억투입

팔만대장경을 비롯한 불교관련 각종 자료와 정보들이 전산화돼 통신망서비스 및 CD-롬으로 보급된다.

해인사 장경연구소와 동국역경원, 불교방송 불교정보연구소는 전체 불교계 차원에서 대장경연구자와 전산연구자들이 참여, 대장경 전산개발을 활성화하기로 잠정 합의하고 다음주중 추진계획을 발표할 예정이다.

추진계획이 결정되면, 역경원은 대장경의 분류.색인을 위한 자료와 인력을, 불교정보연구소는 대장경의 데이터베이스와 코드화에 필요한 기술과 인력을 장경연구소에 제공할 것으로 보인다.

장경연구소는 이에앞서 삼성문화재단과 올해안에 대장경을 CD-롬으로 제작키로 했다. 삼성은 이에따라 글꼴개발에 착수했으며, 전산입력작업에 곧 들어갈 예정이다. 대장경CD-롬은 연말쯤 제작 완료되며, 내년부터는 통신망 서비스도 실시할 계획이다. 이 사업에 삼성측은 12억원을 투입한다.

한글대장경도 올해안에 통신망 서비스를 실시한다. 역경원과 불교정보연구소는 지금까지 번역된 대장경 147권을 정부의 공공데이터베이스 사업의 일환으로 참가, 전산화할 계획이다. 불교정보연구소는 이미 정부에 사업신청을 마쳤으며, 올해 안에 전산화를 완료해 한국통신 정보통신망을 통해 서비스를 실시한다.

한편 불교정보연구소가 지난해 공공DB사업으로 개발한 '한국사찰' '한국불교역사인물' '한국불교소사' '한국불교계인물' 등의 자료도 이번달부터 시험서비스를 거쳐 8월부터는 일반에 본격 서비스된다.

〈한국불교총람〉도 일부 자료를 수정 보완해 12월경 CD-롬으로 제작된다. 〈총람〉은 한국불교역사와 현황, 종단 법인단체 등의 자료, 인명 사찰 문화재 도서논문 등의 목록이 수록된다.

'건잠머리 컴퓨터연구소'는 '사찰' '선사행적'을 CD-롬으로 제작, 8월께 발매한다. 이미 제작에 필요한 자료준비를 마쳤으며, CD-롬화에 필요한 자료는 소설가 김충호씨가 제공키로 했다.

전산화 작업을 통한 각종 불교자료, 정보는 통신망 및 CD롬 등 새로운 매체를 통해 쉽게 이용할 수 있어 불교정보의 대중화는 물론 불교학 연구 및 포교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

〈정성운 기자〉

### 청화·지선스님 공동의장 실천승가회, 사업안확정

실천불교전국승가회는 지난 21일 봉은사 선불당에서 회원 8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제 2차 정기총회를 개최하고 청화스님과 지선스님을 공동의장으로 한 새로운 체제로 출범했다.

총회 준비위원회의 경과보고로 시작된 이날 총회에서 실천승가회는 의장선출을 비롯한 부분적 정관개정과 함께 직제를 변경·신설하고 이에 따른 임원진을 선출하는 한편 95년도 사업계획안을 확정했다.

실천승가회는 의장선출에 이어 부의장에 명진,효림,종립스님을 선출하고 새로 신설된 사무처의 불교정론, 출판부, 집행위의 종무행정위원회, 종책위원회등의 위원장등도 선출했다.

### 중앙승가대 입학식 2일 정진관 대강당

중앙승가대는 오는 2일 오전 10시30분 정진관 대강당에서 입학식을 갖는다. 이날 입학식에는 불교학과 48명, 사회복지학과 38명을 비롯 편입학생 9명을 포함, 총 95명의 신입생이 입학한다.

# 보림사 목판불경 발견

## 고서30권 … 조선중기 제작된듯

전남 장흥군 유치면 보림사에서 조선중기 제작된 것으로 추정되는 목판본불경등 고서(古書) 30권이 지난 22일 발견됐다.

순천대 박물관에 따르면, 보림사 복원추진위원회의 용역으로 지난 2월13일부터 보림사내의 유구(遺構)와 지표를 조사하던 중 사천왕문내의 사천왕상 받안과 무릎등에서 이들 고서를 발견한 것.

이들 고서는 환자기술발전사와 보림사 역사를 규명하는데 귀중한 자료일뿐만 아니라 문화재적 가치가 높은 것으로 추정된다. 발굴팀은 현재 문화재관리국 전문가에게 정밀감정을 의뢰했다.

보림사는 6·25당시 전소됐으나 사천왕상만 유일하게 보전, 전남 유형문화재 제85호로 지정돼 있다.

### 유랑객승 불법행위 호법부서 강력조치

조계종 총무원 호법부(부장 혜창스님)은 전국 사찰을 떠돌며 금품을 요구하는 유랑객승의 불법행위에 대해 강력한 조치를 취할 것임을 밝혔다.

불사를 희망하는 사찰이나 비구니 사찰 등을 전전하며 여비와 약값 등을 요구하는 유랑객승이 날로 늘어나고 있고 이에 대한 피해 사찰이 속출함에 따른 조치이다. 승려들의 인적사항을 기재 해당교구 호법국 및 총무원 호법부에 신고를 담부했다.

# 양분 대구불교계 통합

## 광역시 사암연 준비위 구성…3월창립

십수년간 양분됐던 대구 불교계가 지자제를 앞두고 통합을 하기 위한 발걸음이 분주하다.

(가칭) '대구광역시사암주지연합회' 창립 준비위원회(위원장 원명스님, 관음사 주지)는 지난달 18일 조계종 제9교구본사 동화사에서 신년하례 및 창립준비 발기인대회를 개최했다.

동화사 조실 진제스님, 보광원 조실 화산스님 등 원로스님들과 대구지역 지도자 스님, 각계 기관장, 교계 신행단체장 등 1백50여명이 참석한 신년하례법회에 이어 발기인대회에서는 위원장 원명스님을 비롯 동화사측과 마하아나측 각 5인씩 11인으로 창립준비위원을 구성하고 전체사항을 위임했다.

이날 태일스님(동화사 부주지)에 의해 낭독된 발기취지문에서 "양분된 지역승가의 통합은 역사와 시대에 부응하는 당연한 일로써 만시지탄의 감이 있기는 하나 그동안의 불신과 분화의 벽을 넘어 의연한 승가상을 확립하자"고 역설했다.

한편 동화사는 대불청 대구지구 대불련 대구·경북지부, 청교련 대구지구 군법당 교도소등에 연간 8천만원의 예산을 지원해 주기로 하는등 지역 불교청년회와 동반자적 관계를 정립하고 있다.

# 음성공양·대법회개최

## 한마음선원 대구지원… 오는 3·12일

3월들어 대구지역에 불교합창단 발표회 및 대법회가 잇따라 열려 이 지역 불자들을 들뜨게 하고 있다.

한마음선원 대구지원(지원장 혜계스님)은 오는 3일 오후7시와 12일 오후2시 '송언(頌言)합창단 음성공양의 밭'과 '대구·경북지역민과 호국영령을 위한 대법회'를 각각 개최한다.

대구 문화예술회관 대강당에서 열리는 송언합창단 제1회 선법가 발표회는 귀의, 발심, 수행, 깨달음, 회향의 5단계 수행과정에 맞춰 공연할 예정이어서 이지역 불자들에게 살아있는 법음을 전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대구실내체육관에서 열리게 될 대법회에는 광복 50주년을 기념한 호국영령 천도제와 대행스님의 법문이 이어지며 지역민과의 집의·응답식 대화시간도 마련된다.

한편 대구지원은 대법회에 앞서 오전 11시 대구 수송구 중동에 대지 450여평 규모의 대법당 기공식을 가질 예정이다.

### 홍승희씨 이사선임 대한불교진흥원

대한불교 진흥원(이사장 서돈각)은 지난 22일 오전 11시 신라호텔에서 정기 이사회를 개최, 홍승희 감사(전 재무장관)를 새 이사로 승인했다.

진흥원은 이날 이사회에서 94년도 사업보고 및 회계결산을 승인하고 지난 2월28일 임기만료된 서광룡 이사를 해임, 후임으로 홍승희 감사를 영입했다. 신임 홍승희 이사는 전 재무장관과 외환은행장을 역임했으며 진흥원에서 20여년간 감사로 재직해왔다.

한편 홍o 사 후임에는 구본회 회계사가 감사로 임명됐다.

### 부적판매·헌납강요 일련정종 검찰조사

국내에서 불법 종교활동을 펼쳐온 일본불교의 하나인 일련정종에 대한 경찰의 조사가 실시됐다.

서울 구로경찰서는 지난 달 14일 당국의 허가를 받지 않고 각종 불법종교활동을 해온 종로구 숭인동 진선빌딩 4층에 소재한 일련정종 국내연락사무소(소장 이용한)에 대해 출입국관리법 위반혐의로 압수수색을 단행했다.

일련종 국내연락사무소는 지난 93년 10월부터 1월19일까지 신도모집하고 포교활동을 하는 과정에서 1만원에서 20만원상당의 부적을 판매·공양금 명목으로 헌납 강요하는등 일본인 승려들의 불법종교활동을 도와준 혐의를 받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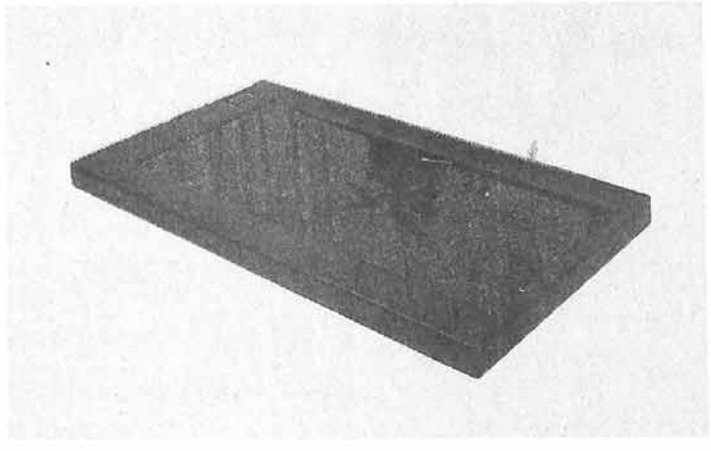

우리 시대 최고의 수맥방지 온돌침대

병이 있는 사람은 병세가 호전되거나 치유되고 허약한 사람은 건강을 되찾고 건강한 사람은 더욱 건강하게 태어난다

돌 자연석
인간의 몸은 소우주
자연의 기를 원한다

전기용품 Q마크 획득
품질보증
EMI





전국에서 난치병의 개선효과를 보신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 지금 전화로 상담하여 주세요

왜 많은 분들이 수맥방지 온돌침대의 효능에 만족하실까요?

■ 전화 주시면 계약금만으로 바로 설치해드립니다.
고객감사 현금가 10개월 할부 단행!!

생산자 — 총판 — 대리점 — 판매점 — 소비자

• 기존 사용하시는 침대를 수맥방지 돌침대로 개조해 드립니다.

■ 현대인의 질병 그 원인이 수맥(水脈)이라는 것을 아십니까?
수맥의 기(氣)는 인체의 조화를 깨뜨리기 때문에 각종 질병의 원인이 됩니다. 현대인은 이 수맥과 콘크리트 벽 바닥에서 뿜어져 나오는 라듐방사채와 독소로 인하여 건강을 잃고 각종 질병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수맥방지 돌침대는 이러한 독소와 수맥을 방지하고 실내의 유해한 공기를 정화하여 편안한 수면과 건강을 지켜주는 돌찜질기입니다.

■ 온돌침대는 확실한 효과로 선택하십시오!
• 혈액순환의 촉진 및 신진대사의 활성화 • 통증의 경감 작용과 조직의 재생작용으로 신경통·류마티스·관절염·디스크·고혈압·당뇨병·중풍·냉대하증·산후조리·교통사고 후유증 등 성인병과 부인병에 탁월한 효과 • 피로회복·불면증·비만·미용 등에 효과 있습니다.

민영실업
.(02)208-7974~5
부산 (051)412-9351
건강상담실 운영



# TV부처님이 오셨습니다

## 맞이할 준비 되셨습니까?





### 우리 시대 최대의 불사(佛事), 불교텔레비전 개국

3월 1일 우리 곁에 오신 부처님. 깊은 암자에서나 듣던 쇠북소리가 슈퍼마켓에도 들리고, 동네 미장원에서도 들립니다. 바보상자라고 놀림받던 TV가 부처님 은덕으로 지혜의 눈을 뜬 것입니다. 얼마나 좋은 일입니까? 이천만 불자님네는 물론 이발소 최씨, 세탁소 장씨… 이 땅의 모든 선남선녀가 부처님의 자비와 지혜를 만나게 되었으니 말입니다.

준비되셨습니까? TV가 대웅전이 됩니다. 선방이 됩니다. 절이 됩니다.
TV부처님이 오셨습니다.

btn 불교TV 32
서울 마포구 마포동 418번지(금호전기빌딩)
전화 : 3270-3300 팩스 : 3270-3498

# 3월 1일, '채널 32' 불교텔레비전 개국

진리의 전화 부처님 품안 따뜻한 가정 구룡사부설 인생상담
어려운 문제가 있습니까 여기 자세히 묻어 있습니다 진리와 친히가 있습니다
상담전화 (02) 579-3033

# 현대불교

법공양판 18~19 면
방송·연예 20면

# 면학기풍 어린 첫 비구니 강원

내일의 아라한들 ①

젊은 학승 탐방 동학사 승가대

## 56년 개원…38년간 475명의 이력종장 배출

## 내외전 균형있는 교육…도서관 건립 발원



◇ 동학사승가대학은 2월21일 31·32회 합동 졸업식을 가졌다.

지난 21일 동학사 강당에서는 5년간 경학을 배운 비구니 스님들의 졸업식이 봉행됐다. 지난해 졸업식을 갖지 못한 31회 스님들과 올해 졸업하는 32회 스님들이 강원 영화를 비감하고 각자의 수행처로 가는 날이었다.

"수행자에게는 졸업식이 있을 수 없습니다. 이제 여러분은 오늘로써 다시 초발심자가 되는 것입니다…"

### 깊은 연륜, 대강백 산실

강주 일연스님의 훈화와 각계의 격려사, 후배스님들의 송사, 졸업하는 스님들의 답사, 그리고 학수 속에 전달되는 갖가지 선물들…한 시간 동안의 졸업식이 끝나고 스님들은 서울로 경상도로 전라도로 뿔뿔한 바랑을 메고 떠났다. 그렇게 동학사 승가대학은 또 하나의 언론을 쌓으며 최초의 비구니 전문 강원의 면모를 지키고 있었다.

동학사 승가대학은 1956년 2월 경봉스님이 강석을 열고 학인을 모아 첫 대문을 열었다. 최초의 비구니 전문 강원이었다. 체계적인 교육이 이루어 지지 않았던 당시의 첫 졸업생은 6명에 단 한명이 배출됐다. 이후 65년까지 9명이 졸업하며 4회의 연륜을 쌓았고 67년부터 84년까지는 2백39명의 비구니스님이 졸업 20회의 나이를 갖췄다. 이 동안의 강주는 호경스님이었으며 뒤를 이어 85년부터 94년까지 24회명의 졸업생을 입소스님이 배출했다. 그리고 지난 6월 일연스님이 강주자리를 맡아 32회 졸업생 스님들을 졸업시키게 된다. 38년의 역사동안 총 475명의 비구니스님이 동학사 승가대학에서 경학을 배워 이력종장의 기틀을 다지고 떠난 셈이다.

물론 56년 이전까지 동학사 강업에서는 많은 결승들이 경전을 읽고 논강을 했다. 경허 선사가 이곳에서 20대에 강백의 청호를 얻은 것은 잘 알려진 얘기다.

### 경전·신학문 함께 배워

동학사 승가대학이 최초의 비구니 전문 강원이었던 까닭에 현재 우리나라에 본을 얻 5개 비구니 승가대학(통학사, 운문사, 청암사, 봉녕사, 삼선포교원) 중 삼선포교원을 제외한 4곳에의 승가대학 강주, 강사를 맡은 강백들이 모두 동학사 출신이다. 운문사의 강주(학장) 명성스님, 봉녕사의 표업, 대우스님, 청암사의 지행스님, 동학사의 일연스님이 그 분들이다.

이렇게 볼때 동학사 승가대학은 우리나라 대강백의 산실로서의 밝은 법등이 면면히 타고 있는 곳이다 할 수 있을 것이다.

동학사 승가대학은 올해 1학년(사미과) 처분반에 50명의 스님을 새 식구로 맞았다. 사집과는 33명이 사교과는 22명이 대교과는 1명이 율한에동안 경학을 연구하게 된다. 강의 과목은 내전의 경우 전통 강원의 체제대로 치문, 서장, 능엄경, 금강경을 하년 단위로 배운다. 물론 교습방법도 전통적으로 이어지는 논강법이다. 논강법이란 학인 스스로가 그날 정해진 본문을 공부해 와서 한호 추첨이 되면 자신이 공부해 온 내용을 대중에게 강의하고 그 과정에서 보충하거나 잘못된 것은 강사 스님이 교정해 주는 방법이다.

이같이 과학적인 교습법으로 진행되는 내전 외에도 동학사 승가대학은 일본어 한국불교사(6학년) 중국불교사(3학년) 인도불교사(2학년) 불교학개론(1학년)을 더 공부한다. 옛날 같으면 외전이라 했을 이들 과목은 이제 시대의 변화에 맞춰 필도로 외전 취급을 하지 않는다. 어쨌든 동학사 승가대학은 5년내내 일본어를 가르치고 사군자 붓글씨를 가르친다는 점에서 대중 포교의 역량을 발휘해야 할 것으로 소홀히 하지 않음을 알 수 있다. "내전이건 외전이건 수행자가 갖춰야할 것이라면 배워야지요. 요즘같이 열린 세상에 너가 수행하고 포교하기 위해서는 안공부 바깥공부가 따로 있을 수 없는 것 아닙니까" 종강 정우스님의 얘기는 강원이 승가대학으로 명칭을 바꾼 것과 학사입정과 교육과목을 현대화하려는 움직임의 타당성을 제시하고도 남는다.

동학사 승가대학은 격월간으로 '동학' 지(誌)도 발간하고 있다. 학인들이 직접 만드는 이 격월간지는 큰스님의 법어와 각종 논문, 강원, 소설, 화보, 에세이등을 담고 있다. 잔잔한 글의 맛과 무게 있는 논문들 그리고 재미있는 연재소설들로 짜여지는 '동학'지는 승가는 물론 재가자들까지 함께 읽는 종합 교과지다. 현재는 수광스님이 주간을 해결스님이 편집장을 맡고 있으며 최종, 성민, 수민, 일공, 승연스님이 제작에 동참해 통권32호까지 내놓았다.

지난해 강주로 취임한 일연스님은 "동학사를 관광사찰로만 인식하는 경우가 많다"고 지적하며 "어디까지나 기풍있는 수행, 교육 도량이라는 인식을 제고 시키기 위해 학인 모두가 노력하고 있다"고 말했다. 또 스님은 대규모 도서관을 건립, 학인들의 면학 열의를 북돋워 줄 것이란 계획도 밝혔다.



◇ 대웅전 좌측에 자리한 동학사승가대학 전경.

공주 = 임연태 기자

## "고통받는 중생의 손발 되겠어요"



동학사 승가대 졸업생 현공 스님

졸업하는 스님과 후배 학인들, 내외 동참자들의 뜨거운 박수 속에 특별장학금을 받은 현공스님에게 지난 21일의 동학사승가대학 졸업식은 스스로를 새로이 태어나게 한 계기였다.

현공스님은 이제 동학사에서의 4년 공부를 마음의 바탕에 갈무리해두고 3월이면 다시 중앙승가대학에 입학하게 된다. 복지학과에 응시 전체 차석이란 영예까지 안은 스님은 "부끄럽고 어깨가 무겁다"는 말을 되풀이 했다.

내소사 지장암에서 일지스님 문하에 득도한 현공스님은 "우리 사회의 그늘진 곳에서 고통받는 사람들의 손과 발이 되고 싶어 중앙승가대 사회복지과에 입학했다"고 말했다. 자신이 수행자인 이상 이웃의 고통을 '남의 것'으로 볼 수 없다는 스님은 "체계적인 공부를 해서 이 사회의 아픔을 밝히는 등불이 되겠다"며 "동학사에서 배운 내·외전의 자식들이 반드시 포교현장에서의 승고한 자세로 자리잡힐 것"이라고 힘주어 말했다. 거기다 중앙승가대에서 배울 복지에 대한 기대 그리고 자신의 소신있는 수행생활로 보다 올바른 수행자가 될 것이라는 다짐도 덧붙였다.

## 한국불교근대 강맥

### 한영·진응·금봉 3대 강백 '명성 자자'

13세기 말에서 20세기 초에 이르는 기간동안 한국 불교계의 대강백으로는 한영(漢英), 진응(震應) 금봉(錦峰)스님이 꼽혔다. 이들을 흔히 3대 강백이라 불렀는데 모두 강맥을 달리하고 있다. 특히 진응스님과 한영스님을 알려 강원에서는 아직까지도 북(北)한영 남(南)진응이라고 표현하고 있는데 이는 한영스님의 명성이 서울 개운사에서 진응 스님의 명성이 천은사 화엄사등에서 크게 떨쳐진데서 비롯된 말이다.

한영스님은 문하(門下) 고봉(高峰) 문기(聞起) 은상(隱性) 청담(靑潭)스님에게 강맥을 전했으며 다시 문하스님은 지관, 월운, 탁업스님에게 고봉스님은 고산, 우용스님에게 은기스님은 허남 제선스님에게 은성스님은 종광, 성업스님에게 각각 맥을 전했다. 또 탁업스님은 일연스님에게 고산스님은 보광, 도리천스님에게 강맥을 전해 현재에 이르고 있다.진응스님은 성봉스님에게 강맥을 전했으며 성봉스님은 다시 명성스님에게 맥을 이었다. 이로써 근대 강맥이 한영스님과 진응스님으로부터 가지를 뻗어나가고 있으며 3대 강백 중의 한명이었던 금봉스님은 전강제자를 두지 않은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한영스님:1870년 전북 완주에서 출생해 19세때 위봉사로 출가했다. 순창 구암사에서 설유당 처영(雪乳堂 瑩英)스님에게 전강을 받고 구암사 대원사 금산사 백양사 해인사 법주사 화엄사 범어사 안변 석왕사등에서 분을 얽고 후학을 지도했다.

특히 1914년 서울 개운사 대원암에서 개당(開堂)하고 학인들을 가르쳤는데 늘 1백명이 넘는 납자들이 운집해 성황을 이루었다.

▲진응스님:1872년 전남 구례에서 태어나 15세때 화엄사로 출가했다. 화엄사 선암사 강원등을 옮며 경학을 참구했으며 24세때 화엄사 응암(應庵)스님으로부터 영향사법(전강)했다. 후에 해인사 강사를 지낸 성능스님에게 강맥을 이었다.

▲금봉스님:3대 강백중의 한 명이었던 금봉스님은 1869년 전남 순천에서 태어났다. 14세에 봉도사로 출가 사문스님 아래 득도했다. 18년동안 전국의 유명 강백들을 찾아 다니며 이력을 마치고 1893년 경운 원기(擎雲元奇)스님의 법을 이어 받았다.

### 동학사 강주

### 경봉-호경-일초-일연스님

▲경봉스님(鏡峰·1885~1969):1911년 27세에 건봉사에서 언호(彦浩)화상에게 출가했다. 건봉사 불교전문강원에서 설파스님에 강화를 받아 하루 3시간씩만 자면서 공부에 몰두 이력종장의 면모를 갖췄다. 1922년 강백이 되어 유점사, 건봉사에서 불교전문강원의 조실로 있었다. 광복후 건봉사 주지로 있다가 남으로 내려와 신도안에 은거하던중 56년 동학사 주지 대한스님의 청으로 동학사에 최초의 비구니 전문강원을 열고 강주가 됐다.

▲호경스님(琥鏡):봉도사에서 강사를 지냈으며 1967년부터 84년까지 동학사에 머물며 비구니스님들을 가르쳤다. 일엽(一葉) 한주(漢珠) 일초(一超) 보관(普觀) 수정(秀晶) 혜성(慧性)스님에게 강맥을 전했다.

▲일초스님(一超·1943~):전남 담양에서 출생한 스님은 71년에 동학사 강원을 졸업하고 이듬해부터 동학사에서 강사, 강주(승가대학장)를 지냈다. 지난해 동학사 주지직과 강주직을 마치고 포교와 정진에 몰두하고 있다.

▲일연스님(1947~):강원도 강창에서 태어나 65년 충남 논산 관촉사에서 득도 66년 범어사에서 동산스님으로부터 사미니계를 70년 범어사에서 석암스님으로부터 비구니계를 수지했다. 동학사 강원과 동국대 승가학과 등을 나왔으며 90년에 수원 봉녕사에서 표업(珠業)스님에게서 전강을 받았다. 봉녕사 강사를 거쳐 현재 동학사 승가대학장(강주)을 맡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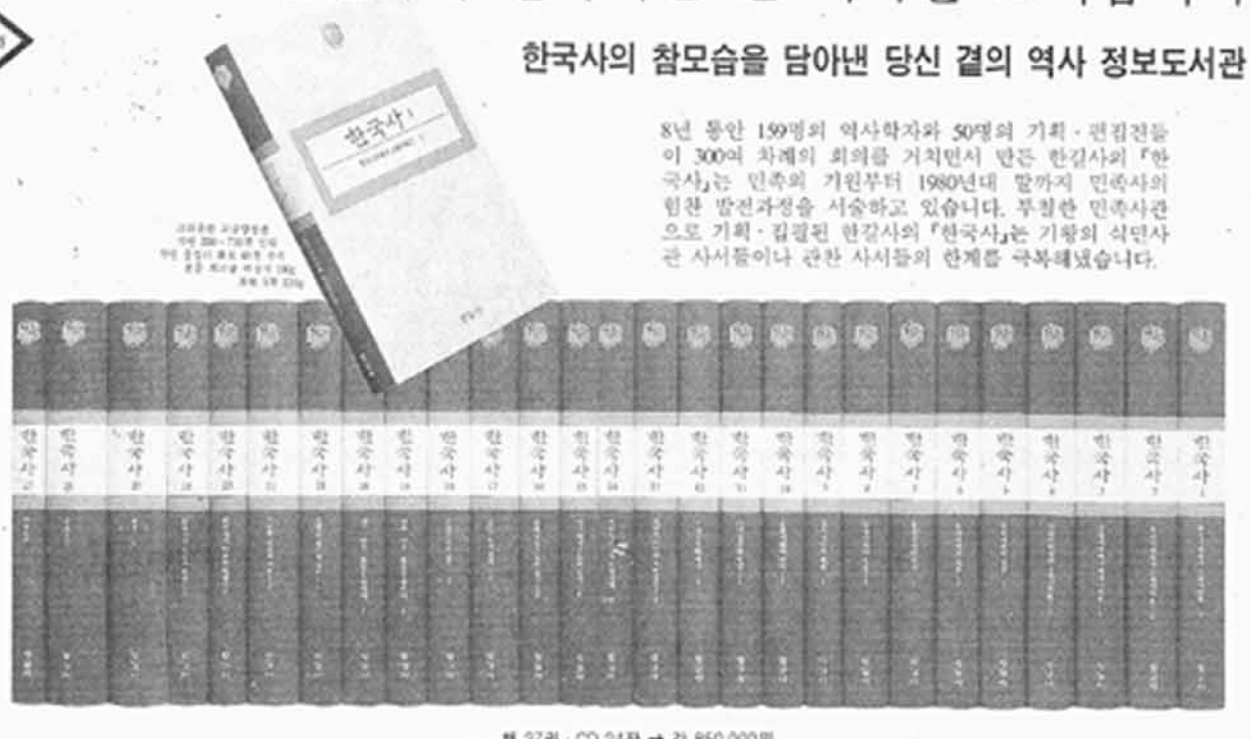
한국사 권27권

한길사의 한국사는 큰 역사를 보여줍니다

한국사의 참모습을 담아낸 당신 곁의 역사 정보도서관

8년 동안 159명의 역사학자와 50명의 기획·편집진들이 300여 차례의 회의를 거치면서 만든 한길사의 『한국사』는 민족의 기원부터 1980년대 말까지 민족사의 힘찬 발전과정을 서술하고 있습니다. 부철한 민족사관으로 기획·집필된 한길사의 『한국사』는 기왕의 식민사관 사서들이나 근찬 사서들의 한계를 극복해냈습니다.

- 한국의 찬란한 문화와 사상 한국인의 꿋꿋한 정신을 담아냈다.
- 민족출판문화에 우뚝 솟은 이정표를 세웠다.
- 21세기 우리 민족의 발전을 위한 지혜를 담았다.



◀CD 전 24매 포함

(주) 한길사
서울시 강남구 신사동 506번지 강남출판문화센터

우리 시대 우리 민족의 빛나는 성과 『한국사』가 불교의 앞에 설명 다가옵니다. 부처님의 인연을 소중히 생각하는 가톨가족에서는 그간 『한국사』 구입의 애로점을 파소하고, 불자님들의 가슴에 더욱 가까이 가고자 『한국사』 권매·보급의 전정이 있습니다.

책 27권 · CD 24장 → 값 850,000원
▶스님, 불자님들의 구입문의는
(02) 720-5121

전화주시면 친절하게 구입방법을 안내해 드리며 필요하신 분께 『한국사』 관련 안내자료를 무송하여 드립니다.

가람기획대표 : 이주영 합장

한국사 편집위원
강만길 고려대 교수 · 한국사
강남식 작한문예연구가
김병하 성균관대 교수 · 한국사
김태영 경희대 교수 · 한국사
박충석 국민대 교수 · 한국사
박현채 조선대 교수 · 경제학
한영우 서울대 교수 · 한국철학사
정석종 덕성여대 교수 · 한국사
조동걸 한양대 교수 · 한국사
조 광 고려대 교수 · 한국사
최광식 포항제철 실수 · 한국사
최창집 고려대 교수 · 정치학

한국사 책 27권의 내용
제 1 권 한국사회에서 고대사회로 - 1
제 2 권 한국사회에서 고대사회로 - 2
제 3 권 고대사회에서 중세사회로 - 1
제 4 권 고대사회에서 중세사회로 - 2
제 5 권 중세사회의 성립 - 1
제 6 권 중세사회의 성립 - 2
제 7 권 중세사회의 성인 - 1
제 8 권 중세사회의 성인 - 2
제 9 권 중세사회의 해체 - 1
제10권 중세사회의 해체 - 2
제11권 근대민족의 형성 - 1
제12권 근대민족의 형성 - 2
제13권 식민지시기의 사회경제 - 1
제14권 식민지시기의 사회경제 - 2
제15권 민족해방운동의 전개 - 1
제16권 민족해방운동의 전개 - 2
제17권 현대사회의 성격 - 1
제18권 현대사회의 성격 - 2
제19권 사상 · 신앙 · 풍습을 통하여 - 1
제20권 사상 · 신앙 · 풍습을 통하여 - 2
제21권 북한의 정치와 사회 - 1
제22권 북한의 정치와 사회 - 2
제23권 분단시대의 비판과 방법 - 1
제24권 분단시대의 비판과 방법 - 2
제25권 연표 - 1
제26권 연표 - 2
제27권 찾아보기

# 관음종 법공양 페이지

* …· 현대불교신문은 교계의 각 종단 또는 사찰과 공동으로
* …· 제작하는 법공양면을 신설했습니다. 신설 법공양면은
* …· 본지의 편집의도에 따라 제작되는 기존의 지면(주16
* …· 면)과는 별도로, 동참을 원하는 종단·사찰이 스스로
* …· 제작의 주체가 되어 자기재량하에 소재를 선택하고 본

# 찬란한 생명의 빛이 나의 참모습

"여래의 오직 하나 뿐인 위대한 목적이란 도대체 무엇일까. 그것은 여래의 지혜를 발휘하여 사람들을 고무시키기 위해 여래께서 이 세상에 출현하는 것이다. 여래께서 지혜를 발휘하는 것을 보이기 위해서다. 또한 그것을 사람들에게 이해시키고 알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다. 여래가 지혜를 발휘하기까지의 도정(道程)을 사람들에게 이해시키기 위해 세존은 이 세상에 출현하는 것이다. 이 일이 사리푸트라여, 여래의 유일한 목적이며, 여래의 유일한 위대한 일이며, 여래가 이 세상에 출현한 유일한 동기인 것이다"(방편품)

이것은 법화경 방편품의 내용입니다.

한역본에서는 開·示·悟·入으로 표현하고 있으며, 일대사인연이라 하기도 합니다. 문제는 부처님의 가르침을 여법하게 실천하고자 하는 우리들의 마음가짐입니다. 여래의 위대한 목적을 실현하고자 하는 원력이 필요합니다.



홍파스님 <관음종 총무원장>

약 력

▽1943. 10. 8 서울生.
▽67년 동국대 불교학과 졸업 동대학원 불교학과 석사.
▽77년 묘각사 주지.
▽81년 한일불교문화교류협의회 사무총장.
▽82년 한국불교자유총연합회 회장.
▽86년 한국불교종단협의회 사무총장.(현재)
▽88년 관음종 재단이사장(현재)
▽89년 관음종 총무원장(현재)

## 여래의 위대한 목적

부처님의 위대한 원력과 우리들의 간절한 원력이 하나가 될 때 법화경에서 누누히 강조하는 부처님의 지견(知見)이 열리게 된다고 봅니다. 우리들의 마음의 눈이 비로소 열리면서 생명의 실상을 바라볼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는 모든 중생들은 생명의 실상에서 한 순간도 벗어난 적이 없건만 누생겁 동안 쌓여온 업연과 욕망 그로인한 무명에 가리어 찬란한 생명의 빛을 보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부처님께선 그러한 중생들에게 知見을 열어주어 생명의 실상을 볼 수 있게 하려합니다.

대부분의 중생들은 자신들의 눈이 열리지 않았음을 자각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생명의 실상은 찬란한 빛을 발하여 일체의 존재를 비추고 있다는 사실을 알지 못합니다. 그 빛은 모든 중생들의 내면을 비출 뿐만 아니라 시공을 초월하여 잠든 중생들을 일깨워 줍니다. 애석한 것은 이러한 사실을 깨닫지 못하는 중생들의 무지입니다. 생명의 실상이 우리들 자신 이외에 존재하는 것으로 착각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나 분명한 사실은 우리들의 마음을 잘 관찰하면 쉽게 찾을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땅에 넘어진 사람은 반드시 땅을 짚어야 일어설 수 있듯이 참생명의 주체도 나 자신이요 생명의 찬란한 빛을 찾을 사람도 나 자신이란 사실을 잊어서는 안되는 것입니다.

## "욕망·무명 휩싸이면 마왕의 권속 사회의 빛과 거름될 때 관음 나투어"

부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하늘에서나 땅에서나 오직 나만이 홀륭하도다. 이 세상 구석 구석이 고통 속에 있지만 바로 나 스스로가 이를 구제하여 편안하게 하리로다" 이것은 부처님의 지견과 중생의 참 생명이 하나인 것을 말씀하신 것입니다. 따라서 '나'란 다른 존재를 지칭한 것이 아닙니다.

여기서 분명히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나'가 바로 법화경에서 말씀하는 '일불승(一佛乘)이며, 여래장이요, 불성이란 사실입니다. 따라서 '나'는 부처님의 지견이요, 중생의 참다운 생명의 실상입니다. 구원의 주체도 '나'요, 구원의 대상도 '나'란 사실을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나'란 생명의 실상이며, 부처님의 지견이란 사실을 자각하면 그를 보살이라 부릅니다. 보살은 깨달은 중생으로서 '여래의 사도'라 부릅니다. 부처님을 대신하여 부처님의 일을 실천궁행하는 사람입니다.

## 불교인들의 사홍서원

이러한 보살은 누구나 될 수 있지만 무엇보다 위대한 원력을 세워야 합니다. 여래의 일을 대신하여 일체의 중생들을 모두 안락하게 단들고야 말겠다는 서원입니다. "보살은 위대한 서원의 힘으로 혼란과 고통이 난무하는 세상에 태어나 중생을 이익되게 한다"는 대비바사론의 가르침이 이것입니다.

법화경에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고 계십니다.

"아직 구원받지 못한 사람을 구원하며, 깨닫지 못한 사람을 깨닫게 하고, 편안하지 못한 사람을 편안하게 하고, 열반을 성취하지 못한 사람은 열반을 성취하게 하리라"(약초유품) 이것은 모든 불교인들의 근본정신이 되어야 한다는 점에서 4홍서원이라 하며, 행사 때마다 부르는 것입니다. 또한 구체적으로 중생들에게 접근하기 위해 "인간들의 신심과 마음의 움직임을 알고 많은 종류의 가르침을 보이리라. 각종의 수단을 사용하여 그들의 마음을 분발시키리라. 이것이 나의 독자적인 지혜의 힘이다"(방편품)라고 말씀하십니다. 삶의 여정에 빛과 희망을 던져주는 간절한 말씀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그렇건만 중생들의 마음가짐은 어떻습니까.

폭풍우 속에 떠 있는 대해의 조각배같은 우리들의 삶이 아닐 수 없건만 저 잘났다고 찢고 떠들고 까부는 것이 현대인의 모습입니다. 속이고, 때리고 할퀴며 무엇인가에 미쳐 살고 있습니다. 이것은 바로 불난집이 아닐 수 없습니다. 오염된 환경, 무너진 인륜, 삭막해진 인성, 어디에도 편안한 곳이 없는 듯이 보입니다. 얼마나 가엾은 중생들 입니까. 그러나 불난집에서도 아이들을 구원해 내는 부처님의 지혜가 오늘 우리들에게도 절실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부처님의 지견을 자각하는 순간에 우리들은 희망과 밝음의 세계로 들어가게 될 것입니다. 사바라는 욕망에 불타오르고 있는 집을 벗어나 안전지대로 들어갈 수 있습니다. 보살은 이러한 사회의식을 지니고 오늘을 살아가는 사람을 지칭하는 것입니다. 법화경의 말씀과 같이 실답게 살려는 마음 속에서 오늘날의 문명적 위기를 극복할 지혜가 있는 것입니다.

친애하는 사부대중 여러분, 저는 진실로 여러분들에게 부처님의 말씀대로 살려고 노력하는 것이 급선무라 강조하고 싶습니다. 아무것도 믿을 수 없는 불확실성의 시대에 부처님은 참 생명의 자아이자 모든 중생의 고향이기 때문입니다. 일체를 포용하여 생명의 찬란한 빛이 누리 구석 구석에 비추이게 합니다. 불신의 벽을 허물고 자비의 승결이 파동치게 합니다. 적대감을 허물고 경애하는 마음이 충일하게 합니다.

그토록 위대한 부처님은 그러나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가면 속에 들어있는 본래의 마음입니다. 이 마음은 온 우주에 꽉차고도 남음이 있으며, 겨자씨 속에도 감출 수 있는 신축자재한 것입니다. 한점 보탤 것도 덜 것도 없는 우주의 완전한 실상이요, 일불승입니다. 한 생각 진실하면 부처님 마음이 되며, 한 생각 자비하면 보살의 마음이 됩니다.

## 실천수행이 우리 할일

일체 중생을 가엾이 여기는 마음 속에서 부처님의 천백억 화신이 나오며, 이 사회의 빛과 거름이 되고자 하는 마음에서 관음보살이 현현합니다. 석가모니부처님께서 구원겁 이전에 이미 성불하였으나 중생을 제도하기 위해 방편으로 삶과 죽음을 보여주었듯이 우리의 참 생명도 이미 구원겁 이전에 불성 그대로 성불하여 있는 완성된 존재이나 보살도를 실천하기위해 태어난 보살들임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제 우리들이 삶과 죽음이라는 변화 속에서 할 수 있는 것은 실천수행 뿐임을 명심해야 할 것입니다. 실천수행이란 부처님의 출현 목적을 반드시 성취하고야 말겠다는 위대한 서원을 세우고 끊임없이 정진하는 것입니다. 어리석게도 욕망과 무명에 휩싸여 가면 마왕의 권속이 되고, 거룩하신 부처님의 자비를 실천하면 그대로가 석가의 화신이요 관음의 나툼임을 잊어서는 안된다고 간절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나무마하반야바라밀.

## 종지와 연혁

대한불교 관음종은 대각국사 의천을 종조로 석가모니불의 '불지지견 개시오입(佛之知見 開示悟入-부처님의 지견을 열어서 보고 깨달아 들어가는 것)'의 법화사상을 정혜겸수로써 체득하여 보살의 제세원력을 구현함을 종지로 하고 있다.

관음종의 탄생은 1945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일제 강점기에서 해방과 더불어 태허 흥선 대종사는 오랜 수도와 원력으로 하화중생 상구보리하는 보살행의 진정한 실행을 위하고 〈법화경〉의 구원실성(久遠實成)을 구체화하는 승속 일체의 불교를 지향하는 불교의 창종에 뜻을 두었다. 스님은 먼저 1957년 법화 행자의 모임체인 '일승불교 현정회'를 창립하고 회장에 취임하여 소수로 나뉘어진 모든 법화신행단체를 규합하여 통합체를 만들었다.

그후 법화교단 통합을 위하여 〈대승법화경〉을 소의경전으로 하고 본존불로는 석가모니불, 보체보살로는 상행보살, 무변행보살, 정행보살, 안립행보살을 봉안하고 가사와 법의도 통일하여 큰 이정표를 남겼다.

당시 홍선대종사는 몸소 파고다공원과 거리로 나서서 법화경을 강설하는 등 거리포교와 보살행을 실천 수행했다.

1965년 홍선대종사는 불교재산관리법에 의하여 '승속혼연일체종단'인 '불입종'을 문화부에 등록, 초대종정에 취임하고 10여년동안 문서포교와 도제양성을 지도육성하여 교계에 커다란 바탕을 일으켰다.

그후 1989년 종헌개정에 의하여 '재단법인 대한불교 관음종'으로 문화부에 등록하고 오늘에 이르러 전국에서 3백여 사찰 1백50만명의 신도가 수행정진하고 있다.

### 태허종사 창종·법화사상 전교
### 전국에 사찰 3백곳·신도 1백50만



◇1939년 초대종정인 태허대종사가 서울 숭인동에 건립한 묘각사 전경. 현재 관음종 총무원이 들어있다.



◇1979년 세수75세 법립50년으로 열반에 드신 태허대종사의 사리 128과를 봉안한 부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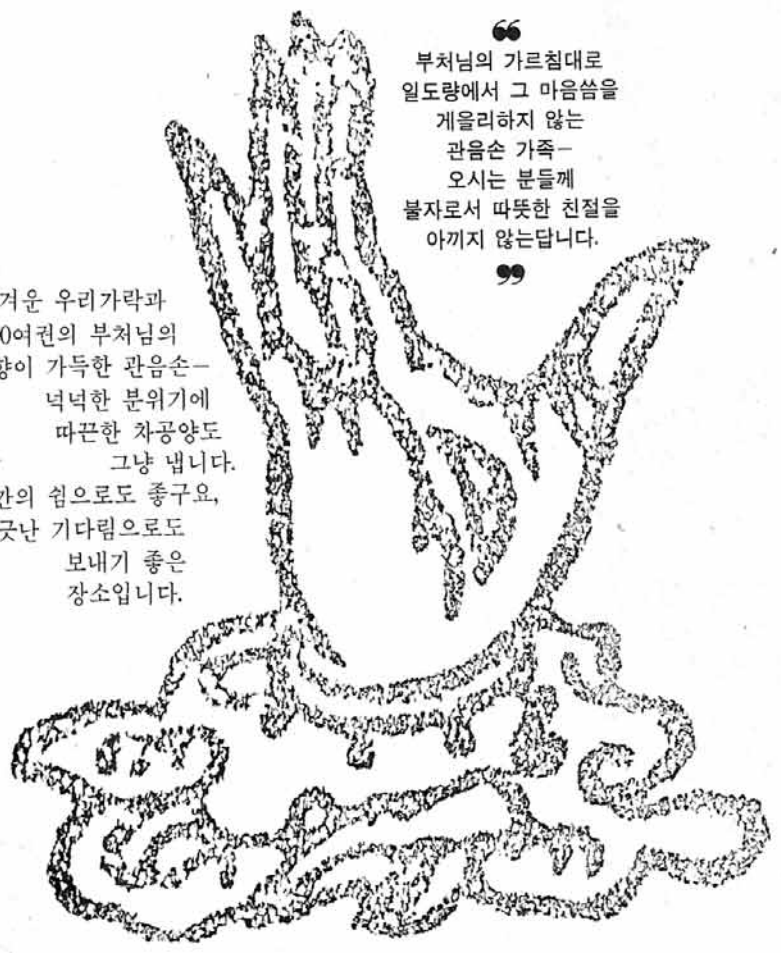

# 관음손으로 오세요

시내에 볼일이 있으시면
관음손에서 만나세요

지하철 1호선 종각역이나
3호선 안국역에서 하차,
조계사 쪽 입구에 있습니다.

관음손

720-1147~8



부처님의 가르침대로
일도량에서 그 마음씀을
게을리하지 않는
관음손 가족—
오시는 분들께
불자로서 따뜻한 친절을
아끼지 않는답니다.

정겨운 우리가락과
4,000여권의 부처님의
법향이 가득한 관음손—
넉넉한 분위기에
따끈한 차공양도
그냥 냅니다.
잠깐의 쉼으로도 좋구요,
어긋난 기다림으로도
보내기 좋은
장소입니다.

관음손에서 하는 일

어린이 포교를 위한 불교용품·불교서적 판매
스님을 위한 신변잡화·염주 염가 주문제작
비디오·카셋트·설법집·단체용품 기획제작

지 편집진과 함께 지면의 틀을 짜는 방식으로 제작됩니다. 법공양면은 약간의 실비부담만으로 종단 또는 전국 어느 사찰이라도 이용 가능하며 개인 불지의 경우는 특정 종단 또는 사찰을 지정하여 제작을 의뢰할 수 있습니다. * * * * * * * * *

# 법공양 페이지

관음종

## 역대종정

관음종의 개조인 태허 홍선 대종사는 1905년 9월 25일 서울 종로구 견지동에서 태어났다. 스님은 1928년 경성 예비전문학교를 졸업하고, 중국의 상해등 여러 곳을 돌아다니며 망국의 한을 달래다,1929년 25세에 조선불교선교양종 교정이며 선암사 3대 강주인 경운스님에게 계를 받았다. 4년간 구도정진한 뒤 중국 산서성의 이름있는 절을 두루 참배, 큰스님들을 만나고 1939년 귀국하여 서울 종로구 숭인동에 묘각사를 창건하고 포교에 전념했다. 1951년 피란중 경상도 상주에서 백화암이라는 초암을 짓고 〈법화경〉을 정독하며 치열한 수행을 6년간 계속했다. 그뒤 서울로 돌아와 탑골공원에서 대중을 상대로 2년간 포교활동을 벌였다.

1957년 일승불교현정회를 조직, 법화계스님들의 분파를 막고 법화신앙의 종문을 열고자 노력했다. 스님은 한중불교친선회와 한일불교친선회의 고문으로 추대되어 불교의 국제적 교류에도 기여했다. 이러한 공로로 1971년 정부로부터 보국훈장을 받기도 했다.

스님은 1979년 6월 24일 문하에 3천 수계제자와 2백여명의 법제자를 두고 세수 75세 법납 50년의 일기로 열반에 드셨다. 다비후 1백28과의 사리가 나와 묘각사에 사리탑을 세웠다.

홍선 대종사의 뒤를 이어 1980년 백상 경조 대종사가 2대 종정으로 추대되어 불교재산관리법이 폐지됨에 따라 5차에 걸쳐 종단총회와 중진회의를 거쳐 1988년 8월 9일 종명을 재단법인 대한불교관음종으로 변경했다.

1989년 3월 4일 철운 대종사가 3대 종정으로 추대되었다. 스님은 89년 8월31일 종정원에서 세수 85세 법납 69세로 열반에 드셨다.

현 종정 운호 대천 대종사는 1991년 4대종정으로 추대됐다. 공주군 계룡면 양화리에서 태어난 스님은 7세에 금산 보석사에서 소응준스님을 은사로 삭발, 13세때 공주 신원사에서 응암선사에 의해 득도했다.

그뒤 스님은 마곡사에 금오선사로 부터 구족계를 수지, 마곡사 불교강원 대교과를 나와 조선불교 교정으로 부터 대덕 법계를 품수했다.

스님은 1946년 대덕 법계를 품수받은 뒤 논산 관음사에 주석하면서 사찰 중창에 앞장서 현재의 대지 1천여평을 확보, 대웅전을 새로 짓는 한편 요사 60여평 종각등등의 불사를 일으켰다.

스님은 평소에 제자와 신도들에게 "만유 법계가 성주괴공의 원리에 적용, 그 실체가 없을지라도 한 그루 과일나무를 심는 마음으로 중생교화를 하고 또 그 길을 걷는다. 비록 만상의 실체가 허상이라 하더라도 그 누구나 존재하고 있는 동안은 주어진 임무에 대하여 최선을 다하여야 한다"고 강조한다.



◇초대종정 터허 대종사



◇4대종정 대천 대종사

# 일제하 묘각사 창건후 전법

태허종사 대천스님

# 사찰 중창 불사 크게 일으켜

## 문서포고



◇관음종이 발행해온 정기간행물들.

**'범 성'—신행길잡이 50호까지 발행**
**'백 련'—7년동안 펴낸 포교 소책자**
**'불교시보'—90년부터 불교대중화 선도**

대한불교 불입종을 모태로 한 관음종은 천오백년 역사를 이끌어온 민족의 종교로서 불교의 새로운 이해와 노력, 새로운 신앙풍토 조성으로 불교의 나아갈 길을 모색하자는 종정 태허선사의 뜻을 받들어 1973년 1월 첫 정기 간행물 월간 '범성'을 창간했다.

관음종은 범성을 통해 민족과 사회의 눈이되고 등불이 되는 건전한 신행의 길잡이로서 그 역할을 수행해 왔다.

불교의 참된 진리는 하나로 통한다는 법화경의 사상을 널리 펼치며 범성은 1977년 특집기념 50호까지 발행되었다.

뒤이어 1983년 부터는 격월간으로 간행되는 '백련'지를 창간하고 1979년 열반한 태허선사의 가르침과 법화경의 사상등을 연재 했다. 또한 관음종 신도들의 신행에 대한 상담코너를 마련하는등 신행포교지로서 확장, 불자들의 신행의 길잡이 역할을 담당했다.

1964년 창종이후 '위대한 부처님의 지견을 중생에게 열어보이고 깨닫게 하여 그 속으로 들어가도록 한다(佛之知見 開示悟入)'는 종지를 받들어온 관음종은 1990년 10월 다시 타블로이드판 신문 '불교시보'의 제작을 시작했다.

관음종은 일심으로 수행하면 누구나 부처를 이룰 수 있다는 부처님의 가르침을 불교시보를 통해 펼치면서 불교의 대중화, 현대화 생활화를 추구하고 불교중흥과 불교홍포의 새로운 장을 여는 등 종풍진작과 불교 선양활동에 매진해왔다.

## 고화사업

# 영산대재·이웃돕기·국제학술회등 개최

# 올 연수원건립등 사업50건…중흥 박차

지난해 창종 30주년을 계기로 종단의 새로운 위상정립을 꾀하고 있는 관음종(총무원장 이홍파)이 올해들어 다양한 사업과 함께 부처님의 대승적 사상을 실천하기 위해 원력을 모으고 있다.

창종이래 종풍 선양을 위해 진력해오면서 세계평화, 나라의 안녕, 남북통일, 신도들의 안전 기원을 닦아온 관음종이 전 지역에 교선을 전개하며 커다란 성과를 올리고 있다.

85년부터 87년까지 연이어 정부관계자와 종도 1만여명이 지켜보는 가운데 '호국영령 영산 대법회'를 봉행한 관음종은 이 기간에 '수륙방생법회'와 '아시안 게임 성공기원' '88올림픽 성공기원'법회를 봉행하고 국운 상승을 염원했다.

아시아 평화와 국제평화를 위해 관음종은 89년 제1회 '국제 보살계 수계식'을 봉행한데 이어 92년 제 2회 대회를 개최하고 불교해외교류의 전기를 마련했다..

두차례 '국제 보살계 수계식'에는 한국·일본·중국 대덕스님과 사부대중 1만5천여명이 참가해 성황을 이뤘다.

90년대에 들어서면서 관음종은 현대사회와 불교와의 관계를 정립하기 위한 다양한 행사를 마련했다.

관음종은 90년부터 94년까지 매년 마다 '현대사회의 신행과 불교 보살운동' '현대사회의 신행과 6바라밀의 실천' '현대사회와 불교신행' '현대사회의 불교신행과 법화경 정신' 등을 주제로 한일 양국 고승 대덕과 학계 저명 인사가 참석한 '국제학술 강연회'를 개최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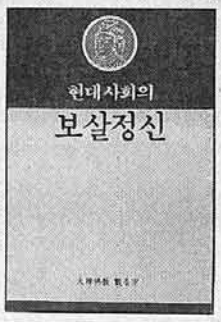
또한 관음종은 91년 온 국민의 기대를 모았던 대전 엑스포의 성공적 개최를 위한 '대전 엑스포 성공기원 대법회'를 비롯 94년 '서울 정도 600년 기념' 나라굿 민속 행사와 함께 '6.25 제44주년 호국영령 추모 대법회'를 봉행하는 등 시의적절한 종단 정책을 폈다.

이외에도 관음종은 서울시민을 위한 기원법회, 남북평화통일기원 및 영산대재, 국가재난 천도재,관음장학금 지급, 불우이웃돕기 등을 통해 불법홍포에 앞장서 왔다.

올해에도 관음종은 제6차 국제 학술 강연회와 제 3회 국제 보살계 수계식을 개최해 국제 불교 교류에 선도적 역할을 다할 준비를 하고 있다.

또한 관음종은 각종 세미나 개최와 교화사업, 한강 연등제와 연수원 건립 등 50여개 사업을 계획하고 올해를 종단의 새로운 전기를 마련하는 원년으로 삼고자 박차를 가하고 있다.

## 현대사회의 보살정신




### 오계·육바라밀 실천 '보살정신' 등 담아

관음종은 창종 30주년을 기념해 현대사회에 있어서의 불교와 불교신행, 보살의 역할등을 한권의 책으로 묶어 발간했다.

오계에 대한 새로운 인식과 실천·현대사회와 육바라밀의 실천·현대사회에 있어서의 보살불교·현대불교의 신앙과 법화경의 정신 등 한·일 석학들의 가르침을 주제별로 모아 놓은 이 책은 자비와 지혜를 보다 명확히 밝혀 이를 지표로 더욱 정진, 수행하는 길이 대승불교의 보살사상임을 강조하고 있다.

## 조직표



◇이혜웅 스님



◇정법륜 스님



◇김용직 회장

| | | | |
|---|---|---|---|
| 종 정 | 김대천 | 재무부장 | 김경철 |
| 사서 | 김성진 | 사회부장 | 김성철 |
| 원로원장 | 이혜웅 | 감찰부장 | 김화엄 |
| 위원 | 박종영 | 조직부장 | 이종현 |
| | 김명우 | 포교부장 | 정법성 |
| | 신경봉 | 종무위원 | 전동화 |
| | 조혜경 | 종회의장 | 정법륜 |
| | 박삼우 | 부의장 | 신무본 |
| | 장영월 | | 정춘담 |
| | 김자월 | 사무국장 | 지법정 |
| 총무원장 | 이홍파 | 교육원장 | 김동령 |
| 총무부장 | 김지섭 | 수교부장 | 홍지묵 |
| 교무부장 | 황법명 | 역경부장 | 오혜원 |

## 전국 종무원

〈교구 종무원〉
서울 직할 종무원
인천 종무원(흥륜사·정법륜)
경기 종무원(천은사·곽덕암)
부산 종무원(법성사·김동령)
경남 종무원(세원암·이운강)
서부·경남 종무원(송원사·박송월)
경북 종무원(용흥사·김법화)
충북 종무원(백운사·황법명)

## 신도 회

〈전국 신도회〉
회장:日田 김용직
부회장:곽진용
사무국장:김인택
여성위원장:윤보덕심(윤희정)

# 축 인천 광역시 승격

**인천**은 우리 나라 개화의 전진기지이며 21세기를 향한 세계화의 교두보가 될 도시입니다. 3월 1일자로 강화·김포·옹진군 등이 인천시로 편입됨에 따라 시역이 서울시보다 1.5배나 더 크게 확장되었으며 앞으로 영종도의 국제공항과 송도의 신도시 건설이 완료되면 우리 나라 제2의 도시로 발전될 것입니다. 여기에 따라 인천 광역시 불교연합회의 모든 성직자들은 한국불교의 중흥과 인천지역 불교발전을 위하여 매진할 것을 전국의 이천만 불자들 앞에 서원합니다.



◀인천 송도 흥륜사 대웅전 내에 봉안된 목조후불탱화와 석가모니 부처님의 진신사리탑

(032) 865-1133~4

## 인천불교 연합회 조직표

회장 정 법 륜 (인천 흥륜사 주지)

원로: 유해운, 박송담, 한구하, 홍현록, 박응삼, 이운강

고문: 김용복, 현기홍, 정대은, 김무찰, 방지하, 임송산, 이형관

| | | | | | |
|---|---|---|---|---|---|
| 수석부회장 | 김덕웅 | 조직부회장 | 우원경 | 사 회 부 장 | 홍하쫀 |
| 상임부회장 | 김홍제 | 홍보부회장 | 박현진 | 호 계 부 장 | 임혜원 |
| 홍무부회장 | 유우경 | 여승부회장 | 김덕환 | 기 획 부 장 | 임현국 |
| 교무부회장 | 석돈현 | 감사 | 이종현, 최석호 | 조 직 부 장 | 박일초 |
| 재무부회장 | 이기태 | 사 무 총 장 | 김홍제 | 사 업 부 장 | 구보각 |
| 사회부회장 | 홍일학 | 총 무 부 장 | 박법수 | 홍 보 부 장 | 현경원 |
| 호계부회장 | 최창배 | 교 무 부 장 | 이무초 | 여 승 부 장 | 한법련 |
| 기획부회장 | 용월산 | 재 무 부 장 | 박삼보 | | |

자문위원 : 주선응, 장준섭, 이도해, 장현성, 이민구, 정득환, 신무본, 이자신, 박효산, 최광일, 서수익, 석선일, 지원종, 석호림, 조혜우, 구회림, 이상연, 백일송, 박선재, 신덕운

이 사 : 김일우, 지법정, 박연귀, 신관음장, 이경수, 조법호, 오진공, 박월은, 김능화, 석토진, 김보천, 이대현, 장운경, 한화응, 고일파, 이옥순, 김혜공, 이벽송, 정각심, 박화진, 김수명, 백혜월, 김복순, 일광성, 만법심, 정토심, 정원담, 김혜능, 백련화, 백법기, 김순자, 석승암, 최금자, 최월성, 김정남, 이자월, 서남선, 김재수, 신법정, 대명화, 박효산, 철성화, 김혜암, 반야화, 안규봉, 박주봉, 최태례, 보문행, 조완경, 윤대우, 김경봉, 강보성, 원만행, 감로수, 고정래, 장민애, 홍혜명, 조옥춘, 석벽암, 진정순, 원 당, 김점숙, 김묘련, 김 정, 유행자, 방승찬, 이승우, 정청곡, 양명순, 김옥희, 채갑순, 강보일, 안경래, 위형심, 윤일원, 오보현심, 이재한, 공구담, 최연수, 배동환, 김정각, 정현우, 황진법, 유춘란, 양명순, 이문암, 만덕화, 한영신, 주명지, 김청호, 원주식

## 방송단신

### 3·1정신 집중 조명
불교 TV·불교방송

불교텔레비전은 '3·1운동과 불교'라는 60분용 다큐멘타리를 제작, 1일 오후 3시30분~4시30분까지 1시간 방송하여 거국적 민족운동이었던 3·1운동에서 불교가 주도적 역할을 담당 했음을 규명한다.

불교방송도 '3·1운동의 현장'(1일 오후 4시10분~4시40분)과 '불교그곳에 깃든 3·1정신'(1일 오후 10시5분~11시)을 통해 독립과 항일정신의 근거지를 찾아 현지에 얽힌 사연과 만해와 용성스님의 3·1운동 정신, 일제하에서 핍박받은 우리 불교 역사를 되새기는 시간을 마련한다.

### 불교방송 포교위 발족
위원장 제원스님 추대

불교방송(사장 김태호)은 포교프로그램 강화를 목적으로 지난달 18일 '불교방송 포교위원회'를 구성, 12명의 방송포교위원을 위촉하고 위원장에 제원스님을 추대 했다.

### 홍보영화 제작 완료
btn영상사업부

불교TV 영상사업부(부장 이원덕)는 btn홍보영화를 지난달 27일 제작했다.

btn홍보영화에는 btn의 순조로운 개국을 위해 성심껏 뛰는 btn사람들의 노고와 열정을 공감해보며 설립부터 현재까지의 과정과 팬자들의 반응을 소개.

### '불기협입장'에 반박
22일 불교방송

불교방송은 지난 22일 오후3시 15층 회의실에서 교계기자간담회를 갖고 '신문창간에 대한 불기협의 입장'을 반박하고 불교방송의 신문창간 당위성을 설명했다.

## btn 주요프로·진행자

퀴즈특급 이정부·김나운 — *김병조의 스타쇼* 김병조

당신의취미 오미영

문화라인 박범훈·고은희 — *나의삶 나의불교* 이계진

강변정담 민용태


◇ 김병조씨


◇ 이계진씨


◇ 박범훈씨


◇ 이영숙씨


◇ 고은희씨


◇ 오미영씨


◇ 이정부씨


◇ 김나운씨

# 염화실서 신행현장까지 화면에
## 진행 맡아 불교 공부…좋은 방송 '자신'

영상포교시대를 연 불교텔레비전이 1일 개국과 함께 본격적인 프로그램을 선보인다.

오전 10시 삼귀의와 애국가로 방송의 문을 열고 10분간 btn 뉴스가 방송된다. 매일 방송되는 이 뉴스시간에는 교계내외의 소식과 날씨를 알려준다.

이어 방송되는 '날마다 좋은 날'역시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고정적으로 안방을 찾아간다. 생방송으로 진행되는 이 프로그램은 종합신행프로다.

월요일 오전 11시10분부터 12시까지는 '한국의 명찰'이 화요일에는 '자비의 천수천안'이 방송된다. '한국의 명찰'은 국내 전통사찰을 안방에서 기행하는 시간으로 이미 1백여 사찰이 영상에 담겨 안방배달을 기다리고 있다. '자비의 …' 는 불우장애인, 소년소녀가장 등 불우이웃과 그들에게 자비 손길을 보낼 불자들을 이어주는 시간.

수요일에 김병조씨와 만나는 '김병조 스타쇼'는 종합버라이어티쇼이다. 김병조씨는 특유의 재치와 입담으로 이 프로그램을 진행하겠다며 각오를 다지고 있다. 목요일의 'TV 신행상담'은 이영숙씨가 진행한다.

금요일의 '퀴즈특급'은 중견 아나운서 이정부씨와 인기탤런트 김나운씨가 맡았다. 불교상식을 퀴즈로 푸는 이 프로를 맡은 이씨와 김씨는 "우리도 이제 불교공부를 해야겠다"며 마이크 앞에 앉기위한 준비를 게을리하지 않는 모습을 보여주기도.

고려대 민용태 교수가 진행하는 '강변정담'은 토요일에 방송된다. 교계의 중진인사, 예술인 등을 초청 그들의 이야기를 듣는 이 시간은 민교수의 해박한 지식과 출연자의 독특한 삶이 엮어내는 신선함을 맛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매주 월요일 오후1시 30분부터 50분간 방송되는 '나의삶 나의불교'는 불심돈독한 아나운서 이계진씨가 진행한다.

재계,정계,학계등 각계의 유력인사들이 풀어내는 인생이야기들은 텁텁한 이씨의 화술로 한층 돋보일 것이란게 방송관계자의 기대이다. 이씨는 "불교TV에 출연하는 것 자체가 생활의 기쁨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화요일에 방송될 '당신의 취미'는 좋은 취미생활과 여가활용을 오미영씨가 안내하는 시간. 수요일의 '촛점32'는 불교계 현안문제를 토론하는 시간이며 목요일의 '건강여의주'는 사찰의 건강비법을 소개하는 프로이다. 또 박범훈 교수와 고은희 아나운서가 금요일에 진행하는 '문화라인'은 연극,영화, 음악,미술등 문화계 전반의 소식과 평을 하는 시간.

토요일의 '염화실 탐방'은 교계대덕스님을 찾아가는 시간이며 월~토요일 오후 2시 55분부터 3시까지 방송되는 '길에서 길을 묻는다'는 경전속 생활의 귀감이 될 명언들을 듣는 5분 명상시간이다.

불교TV는 매주 일요일 한주간 방송된 프로그램을 종일 재방송, 바쁜 직장인들을 화면 앞으로 끌어들일 계획이다.

〈김원우 기자〉

## 불교 TV 주간기본 편성

| 요일 / 시간 | 월 | 화 | 수 | 목 | 금 | 토 | 일 |
|---|---|---|---|---|---|---|---|
| 10:00 | Sign on 삼귀의 애국가 | | | | | | 10:00 TV법회 |
| 10 | btn 뉴스 | | | | | | |
| 11:00 | 생방송 날마다 좋은날! | | | | | | 11:00 btn 동서남북 |
| 10 | 한국의 명찰 | 자비의 천수천안 | 김병조 스타쇼 | TV 신행상담 | 퀴즈특급! 이 뭐꼬? | 강변정담 | 11:30 불자예찬 |
| 11:35 | | | | | | | 우리말의 정립기 |
| 12:00 | 알기쉬운 교리강좌 | | | | | | 12:00 |
| 25 | 우리들의 찬불가 | | | | | | |
| 30 | 기획 다큐멘타리 〈실크로드〉 | | | | 드라마〈삼장법사현장〉 | | 13:00 한국의 명찰 |
| 13:00 | | | | | | | |
| 20 | 영상 니르바나 | | | | | | |
| 30 | 나의삶 나의 불교 | 당신의 취미 | 촛점 32 | 건강 여의주 | 문화 라인 | 염화실 탐방 | 13:40 자비의 천수천안 |
| 14:00 | 우리들의 찬불가 | | | | | | 14:30 영상 니르바나 |
| 20 | 재미있는 경전공부 | | | | | | |
| 25 | 길에서 길을 묻는다 | | | | | | 14:40 삼장법사 현장(3탕) |
| 35 | 사홍서원, 애국가 Sign off | | | | | 여기에 숨은 꽃 | 15:30 삼장법사 현장(3탕) |
| 15:00 | | | | | | 문화 라인(3탕) | 16:20 염화실 탐방(3탕) |
| 16:00 | | | | | | TV진행 상담(3탕) | 17:10 강변정담(3탕) |
| 17:00 | Sign on 삼귀의, 애국가 | | | | | btn 주요 인물소개(재) | 18:15 TV법회(재) |
| 18:00 | 저 녁 예 불 | | | | | | 19:05 우리말의 정립기(재) |
| 15 | btn 뉴스 | | | | | | 19:30 퀴즈특급! 이 뭐꼬?(3탕) |
| 25 | 날마다 좋은날! (재) | | | | | | 20:20 btn 동서남북 |
| 19:00 | 한국의 명찰 (재) | 자비의 천수천안 (재) | btn 스타쇼 (재) | TV 신행상담 (재) | 퀴즈 특급! 이 뭐꼬?(재) | 강변 정담 (재) | 21:00 영상 니르바나 |
| 25 | | | | | | | 21:10 나의삶 나의불교 |
| 20:00 | 알기쉬운 교리강좌 (재) | | | | | | 22:00 btn국장 만행승 계인 |
| 15 | 기획 다큐멘타리 〈실크로드〉 (재) | | | | 드라마〈삼장법사 현장〉 (재) | | |
| 40 | | | | | | | |
| 21:00 | 나의삶 나의 불교 (재) | 당신의 취미 (재) | 촛점 32 (재) | 건강 여의주 (재) | 문화 라인 (재) | 염화실 탐방 (재) | |
| 22:00 | 우리들의 찬불가 | | | | | | |
| 20 | 재미있는 경전공부 | | | | | | |
| 25 | 길에서 길을 묻는다 | | | | | | |
| 55 | 사홍서원, 애국가 〈주간 총 4560분 방송〉 | | | | | | |
| 23:00 | | | | | | | |

# 불교 광주방송 1일 개국
## 특집프로 다채

FM 89.7MHz, 3w 출력의 불교광주방송이 3월1일 개국,호남지역 불자들에게 법음을 전한다. 불교광주방송은 개국특집프로그램과 자체제작프로를 다채롭게 마련한다.

불교광주방송 개국특집 프로그램으로 '개침의 소리 나누는 기쁨'(1일 오전8시~10시)을 광주가 중심이 되어 서울,부산 세곳에서 동시에 생방송으로 현장을 연결하여 화개장터 현장리포터팀과 호남불교역사의 발자취를 더듬는 코너로 부산·서울·광주불자들의 신심자랑등을 펼친다.

'남도 불자가 발원하는 정법포교'(1일 오후 9시5분~10시)는 불교문화의 전통 맥을 유지하고 있는 광주·전남지역 불자들의 포교원력은 무엇이고 현대 한국을 이끌어갈 불교지도자들의 결의와 기대감을 모아보는 시간으로 광주·전남지역의 학계, 교계, 신행단체의 대표성을 가진 인사들이 참여하여 정법포교의 원력과 다짐을 전국의 불자들과 함께 나누는 자리로 마련한다.

'출발! 89.7MHz, 축하합니다'(1일 오전 10시30분~11시)도 광주및 전라도지방에 부처님의 법음을 전파할 불교광주방송개국을 축하하는 김홍국씨를 비롯한 불자연예인들의 축하메세지와 축하퍼레이드가 소개된다.

'개국 축하공연 실황'(5일 정오 12시20분~14시)은 2월 26일 광주염주종합체육관에서 펼쳐진 국내 정상급 가수들의 개국축하공연실황이 녹음프로가 방송된다.

## 어머니 합창단 창단
불교방송, 108명 구성

불교방송은 지난 23일 오후 2시 30분 다보빌딩 3층 대법당에서 어머니합창단 창단식을 가졌다. 1백8명으로 구성된 어머니합창단의 단장에 김창영(불교방송 영업국장)씨가 위촉되고 지휘자에 김동환(중앙대 )교수, 총무에 정순자씨가 임명됐다.

이날 창단식에는 불교방송 임원과 각 종단 간부스님등 2백여명이 참석했다.


# 5천여 불자가 이미 화엄경을 모셨습니다!

**화엄경의 大講主 無比스님이 10년의 각고 끝에 완성한 화엄경 전12권**



## 발간 두달만에, 無比스님 완역 한글화엄경을 구입하신 5천여분의 불자가 불교 최고의 경전인 화엄경의 세계를 확인하셨습니다.

## 80권本 화엄경의 완역판!

### 이제 화엄경도 쉽게 읽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

민족사판 한글화엄경 전12권은, 80권本 화엄경을 모두 한글로 완역하여 읽기 쉽게 되어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화엄경의 전 내용을 치밀하게 분석하여, 누구나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단락을 나누고 상세한 소제목을 첨부하였습니다. 또한 미려한 편집과 큰 활자, 최상의 고급지 사용, 영구보존판 양장으로 제책되어 있습니다.

또한 中國 天童山판 80화엄경 원문을 두 권에 수록하였고, 화엄경의 주요 어휘를 알기쉽게 풀이한 〈華嚴經小辭典〉을 발간하여 독자들에게 편의를 드리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無比스님 완역 민족사판 한글화엄경의 특색입니다.

### 무비스님 완역 한글 화엄경에 대한 언론의 격찬!

— 도서출판 민족사가 펴낸 무비스님 완역《한글화엄경》전12권은 入法界品을 비롯해 80권本 華嚴經 전40품을 모두 한글로 옮기고 뒤에 원문을 붙여 참조할 수 있도록 했다. 특히 경전의 긴 내용을 단락을 나누고 소제목을 붙여 독자의 이해를 돕고 있는 점이 특징이다.
— 조선일보 —

— 이 책은 한국불교의 사상적 원천인 화엄사상의 대중화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평가받고 있다. — 한국일보 —

— 무비스님 완역 한글화엄경은 단순한 번역이 아닌 경전의 치밀한 내용 파악으로 연구자와 일반인 모두에게 잘 읽히도록 번역편찬했다는 것이 특징이다. — 불교신문 —

### 대덕스님과 석학들이 한결같이 권하는 무비스님 완역편찬 한글화엄경!



**李 智 冠 스님**(哲學博士, 前東國大 總長, 現 海印寺住持)
누구나 화엄경을 이해하지 않고는 불교를 알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 불교를 이해하려면 반드시 精讀하여야할 책이라 생각되어 藏書로는 물론, 특히 젊은 학인스님과 불자들에게 일독을 권하는 바이다.



**金 知 見 박사**(文學博士, 韓國精神文化硏究院 敎授)
우리 한국인의 정신세계에 가이없는 자양을 이루어 온 경전은 화엄경입니다. 불자 여러분에게 無比스님의 완역편찬 한글화엄경을 삼가 추천하는 바입니다.



**權 奇 悰 박사**(哲學博士, 東國大學校 佛敎大學 學長)
화엄경을 바르게 읽고 실천하는 길이 바로 우리나라 불교의 얼을 되살리는 일임을 불자 여러분에게 말씀드리며 무비스님 완역편찬 한글화엄경의 수지독송을 권하는 바입니다.

### 보다 편리해진 구입방법 및 특전

1. 특가 전 12권 160,000원(2회 분할)(각종 카드로도 구입 가능)
2. 신청 즉시 택배나 소포로 보내드리며, 화엄경소사전과 화엄변상도(1장), 화엄경 강연테이프(무비스님, 고은선생) 2개를 증정합니다.
3. 송금방법: 아래의 은행구좌나 소액환을 이용하십시오.

(조흥은행) 390-01-033705 민족사 (제일은행) 130-10-080370 윤재승
(농 협) 032-01-088461 윤재승 (외환은행) 059-18-17838-6 윤재승
(우 체 국) 010041-0097045 윤재승 (국민은행) 023-01-0225-854 민족사
(신탁은행) 15504-0475103 윤재승 (상업은행) 113-04-101987 민족사

도서출판 민족사 우편번호 110-130 서울 종로구 청진동 208-1
전 화 : (02)732-2403~4, 722-7679
팩 스 : (02)739-7565

지방취급서점 : 부산 : 고려불교예술원(807-6842) 삼장원(464-2696) 불교전시관(647-7393) 영광도서(816-9500) 경공포교사님(부산 334-3035, 휴대폰 011-572-3007) 부산불교문화사(466-3884) 광주 : 불일서점(232-7542) 대전 : 보문서점(257-0161)